

## 전쟁을 돌아보고 평화를 생각하다

– 문학작품 속 전쟁 이야기

**지은이**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020 클럽

**펴낸이**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020 클럽

**주소**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7길 34-10

**전화** 02) 2665-8818

**팩스** 02) 2665-5777

**전자우편** [ethica96@sen.go.kr](mailto:ethica96@sen.go.kr)

**홈페이지** <http://mdfh.or.kr/>

**제1판 제1쇄** 2015년 10월 26일

## 차례

머리말	1
2020클럽의 활동들	5
북 콘서트	7
쉰들러 리스트에 대하여	21
『제2차 세계대전』요약 보고서	41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의 두 작품	64
스페인 내전에 대한 문학적 보고서	95
2차 세계대전의 참상	109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한국전쟁	163
J. M. 쿣시, 어둠의 땅에 대하여	175

## 머리말 -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기

처음에는 거창한 계획으로 시작했었다. 전쟁을 다루고 있는 동서고금의 문학작품을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을 연구한 연구서, 전쟁을 체험한 사람들의 구술 기록들까지 모두 찾아 읽고 전쟁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기회를 갖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역시 계획은 계획으로 그치고 말았다. 굳이 변명을 해보자면 학교 교육과정 상 동아리 활동 시간이 적은 편이었고,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너무 컸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열정과 역량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결과물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웠다. 열정과 노력을 적절하게 집중시켰더라면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 상황은 그렇게 좋게만 흘러가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활동의 성과를 폄하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 동아리원들이 만들어낸 결과들은 나름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다. 역사 속 중요한 전쟁들과 그 전쟁들에 대해 고민한 책들을 찾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 진지하게 풀어낸 학생들의 기록을 읽어 보면서, 이것을 꼭 책이라는 형태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수능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이 이 주제를 놓고 북 콘서트를 주최하고 전쟁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은 더욱 강해졌다.

그런데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사실 이런 것이 아니었다. ‘전쟁’을 주제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무렵, 남북한 사이에 벌어진 일촉즉발의 상황은 ‘전쟁’에 대한 고민을 점점 더

깊어지게 만들었다. 한쪽에서는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격한 어조의 결의들이 쏟아져 나오고, 상황의 진실을 밝히려는 온건한 입장 또한 진지하게 제기되고 있었으며, 온갖 루머들이 SNS에서 한 시간이 멀다하고 불거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전쟁’이라는 주제는 어쩌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동아리원들은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역사와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기로 한 것이다. 정답을 찾을 수는 없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삶에 대해 좀 더 깊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이 책을 겨우겨우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책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작품들을 살펴보면 ‘전쟁’과 정확히 맞닿아 있지 않은 것들도 눈에 들어온다. 이런 점이 거슬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 20·20 동아리원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 오롯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기에,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싶다.

우리가 다룬 책과 영화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서

- ① 제프리 주크스 외, 『제2차 세계대전 - 탐욕의 끝, 사상 최악의 전쟁』
- ②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 2) 소설 및 만화

- ① 타티아나 드 로즈네, 『사라의 열쇠』
- ② 어니스트 헤밍웨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
- ③ J.M. 쿿시, 『어둠의 땅』
- ④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 『서부전선 이상 없다』

- ⑤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 『사랑할 때와 죽을 때』
- ⑥ 쿤더 그라스, 『양철북』
- ⑦ 손창섭, 『잉여인간』, 『비오는 날』
- ⑧ 베른하르트 슈링크,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 ⑨ 조지 오웰, 『카탈로니아 찬가』
- ⑩ 아트 슈피겔만, 『쥐』

3) 영화

- ① 데니스 간젤, 『디 벨레(Die Welle, The Wave)』
- ② 스티븐 스피버그, 『원들러 리스트』

20·20 클럽 지도교사  
명덕외국어고등학교 김 지 운

■ 전쟁을 돌아보고 평화를 생각하다

# 2020클럽의 활동들

## 1. 북 콘서트

## 2. 영화, 『쉰들러 리스트』 감상

## 북 콘서트 발표 자료들

### 1. 역사 앞에 선 미술

3학년 함○○

#### 제 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은 에스파냐 내전 때 프랑코를 지원하고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체코를 침공했다. 1936년부터 나치의 야망은 독일 국경을 넘어서기 시작한다. 초기에 유럽 국가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새로운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미온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1939년 9월 1일 독일군 방군이 폴란트를 침공한다. 히틀러는 프랑스와 영국이 체코를 침공했을 때도 가만히 있었기에 이번에도 묵인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프랑스와 영국이 독일에게 선전포고하면서 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다.

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몇 년 동안 특히 에스파냐 내전이 발발한 이후에 초현실주의 그림은 주로 악몽을 표현한다.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 막스 에른스트의 작품들을 보면 이상하고 불길한 생물체 괴물들을 주로 볼 수 있다. 특히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은 구체적인 사건을 거의 표현하지 않으면서 현실을 괴상하게 비틀어 작품에 반영한다. 그를 볼 수 있는 것이 1938년에 그린 <현재>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 속의 독수리는 유럽을 위협하는 나치의 난폭성을 드러내기

위해 독일의 상징인 독수리로 표현한 것이다. 이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 버티고 앉아 금세라도 세상을 덮칠 준비를 하는 것 마냥 보인다. 이 독수리는 옷옷을 걸쳐 교양 있는 인간인 것처럼 보이며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그것이 곧 독일의 표면적인 모습이며 실상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비판한다. 또한 땅바닥에 놓인 쇠구슬은 또 다른 사악한 괴물이 막 태어나려고 하는 알을 의미한다.

막스 에른스트의 <집의 천사>역시 괴물을 보여준다. 에른스트는 알에서 막 태어나 아직 눈을 다 뜨지 못한 새의 머리를 갖고 있는 괴물을 그렸다. 이것은 마치 인류의 야만성과 폭력성이 깨어난 것만 같은 느낌을 준다.

나치는 독일이 겪는 모든 불행이 유대인 탓이라고 주장하고 유대인들을 열등 인종이라고 여기는 반유대주의를 내세운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자마자 독일의 유대인들은 폭력에 시달리게 되고 1939년 폴란드 침공 이후 폴란드의 유대인들은 계토에 나뉘어서 수용되어 영양실조와 전염병으로 죽어가며 나치의 특별행동부대에게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살해당한다. 1942년 11월 20일 반제회의에서는 유대인 절멸을 위한 방안으로 가스실에서의 죽음 즉, 홀로코스트를 실행한다. 이로써 유럽전체 유대인인구 3분의 2가 살해당한다.

홀로코스트를 그린 화가는 거의 없는데 이는 집단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이가 없기도 했으며 가스실로 몰아넣어 죽이는 공장 식 처형을 예술 작품으로 남길 생각을 감히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독일 화가 펠릭스 누스바움은 수용소에 감금되다가 가까스로 탈출하여 도피생활을 하면서 그림을 그린다. 누스바움의 그림 중 이 작품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재앙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12명의 사람들이 보인다. 검은 옷을 입은 해골들이 관을 운반하고 건물의 창에는 검은 것발들이 걸려 있다. 이는 중세에 흑사병에 감염된 집에서 내거는 표식이다. 이 외에도 누스바움은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다 아내와 함께 독일군



에게 체포되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강제 이송 돼 가스실에서 생을 마감한다.

마지막으로 <카인 혹은 지옥에 간 히틀러>라는 이 작품을 설명하고 발표를 마칠 것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치즘이 대두하는 상황을 작품 속에서 표현한 이우 게오르게 그로스는 히틀러가 권력이 잡기 바로 전에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로스는 미국에서 1942년부터 히틀러의 운명을 예견한 이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불타고 있는 도시가 지옥을 연상시키고 히틀러를 카인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카인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며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된 인물이다. 히틀러의 옆쪽에 아벨의 시신이 피를 흘리며 누워 있고 수많은 작은 해골들이 묻혀있던 구덩이에서 나오고 있다. 나치의 희생자들의 살인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되살아난 것이다. 이와 같이 끔찍하고 기괴한 광경이 펼쳐지는 가운데 히틀러는 앉아서 이마를 훑치고 있다. 이제 더는 눈속임을 할 수 없으며 끝이 멀지 않았음을 아는 늙고 지친 인물의 모습이다.

이 그림이 예언과 같이 1945년 1월부터 벙커에서 생활하던 히틀러는 자신의 패배가 점점 현실에 되어가는 것을 느끼고 1925년 4월 30일 소련군이 베를린으로 입성하자 히틀러는 동거하던 사람과 함께 자살한다.

**다음은 함께 하는 시간~~**

**<펠릭스 누스바움, 죽음의 승리>**

폐허 더미에서 해골들이 음악을 연주하면서 춤을 추고 있고 찡그린 얼굴을 그려 넣은 연들이 하늘을 날고 있다. 땅바닥에 널브러진 부서진 물건들은 예술(팔레트, 악보, 타자기, 영화 필름 릴, 찢어진 캔버스, 조각상과편 )과 기술(전화기, 전구, 자동차, 자전거, 나침반, 세계지도)을 떠올리게 한다. 이곳은 유럽문명의 폐허다. 수세기에 걸친 진보, 창조,

■ 전쟁을 돌아보고 평화를 생각하다

발견도 인류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야만성이 등장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페이지가 뜯겨나간 수첩은 화가가 1944년 4월 18일에 그림을 완성했음을 알려준다.

## 2. 전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담긴 명제들

### - 『서부 전선 이상 없다』를 읽고

3학년 김○○

1. 평화를 무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말엔 오류가 있다. 핵이 일으키는 대참사가 없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세기 만에 청소년의 자살률이 두 배 이상 뛰어오르는 국가는 평화롭지 않다. 평화는 2년 안에 총기난사로 인해 죽은 사람이 베트남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많은 나라에 있지 않다.

2. 여자로서 나는 전쟁에 참전할 수 없고 그 누군가도 보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지진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전쟁에서 또한 이길 수 없다.

3. 간혹 전쟁이 인간의 본성 때문이란 말이 나온다. 군인으로서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나는 숨 쉬는 것, 먹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보살피는 모습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믿는다. 사람들이 전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만드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전쟁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어 보인다. 심지어 핵전쟁까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말이다. 세상에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 국가는 없다.

4. 나는 전쟁이 아군과 적에게 모두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전쟁이란 그저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5. 사실 전쟁이란 그리 유용한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 편이 지기 마련이며 이는 50%만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이기는 쪽도 많은 비용이 나가는 마찬가지이다.

6. 우리는 우리의 자동차들이 가동되게 하기 위해 죽일 준비가 돼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적이고 쓰레기 같은 경제를 지키기 위해 죽일 준비가 돼있다. 나는 정치인들의 실수 때문에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패배감을 겪게 될 18살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7. 우리는 평화를 영원히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죽음을 제조해내고 그것으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말이다.

8.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항상 비도덕적이다. 외교적으로 그리고 다른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항상 갈등과 공격적인 것들을 막아내야 한다. 비폭력적인 방법이 실패한다면 한 국가는 불공평하게 다른 쪽을 공격하기 시작할 것이고, 당하는 국가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공격에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은 정당방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

9. 이는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비용이 이득에 적절히 비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격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았든 직접적이든 직접적이지 않았든 어떤 무기가 사용됐든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공격해서 민간인을 학살하는 것은 매우 비윤리적이다.

■ 전쟁을 돌아보고 평화를 생각하다

10. 인간의 역사 내에서 어떤 것도 핵무기 작전을 게임하는 것과 같이 얘기하는 것만큼 터무니없는 것이 없다. 미국과 러시아는 마치 주사위 게임을 하는 것처럼 누가 먼저 핵을 떨어뜨릴지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두 나라는 인간의 목숨과 미래를 단순히 포커를 치는 것처럼 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고 생각한다.

11. 내 제안은 꽤나 단순하다. 핵폭탄을 폭발시키는데 필요한 코드를 작은 캡슐 안에 넣고 그 캡슐을 군인의 심장 옆에 이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군인을 아주 큰 칼을 들고 다니며 대통령을 모시게 하는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핵폭탄을 폭발시키고 싶다면 먼저 대통령의 손으로 인간을 죽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미안하다, 그러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보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의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느껴야 한다.

12. 하나의 공동체에 벌을 내릴 수 있는 힘은 전쟁 밖에 없다. 전쟁과 같은 효과를 내지만 벌을 내릴 수 있는 다른 무엇인가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나는 전쟁이 일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13. 전쟁상태는 인간 개개인을 수치스럽게 하는 모든 악행과 폭행을 허용한다. 전쟁은 받아들여진 전략들뿐만 아니라 적에게 거짓말과 속임수를 사용하게 만들기도 한다. 엄청난 양의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개개인의 의견과 뉴스를 검열된다.

14.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지도자가 있을 뿐이지요.

15. 인류의 역사가 '휘발유 더미 속에서 성냥을 가지고 노는 유인원들의 이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여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다.

16. 전쟁은 모든 우리의 문화적 전통 중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17. 살면서 조금도 진실한 만족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의미함과 지루함에서 벗어나고, 두려움과 불만을 떨쳐버리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18. 그들은 검을 녹여 쟁기를 만들고, 창을 녹여 낫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국민을 향해 칼을 겨누어서는 안 되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19. 물리적인 힘은 전쟁의 수단입니다. 적에게 우리의 의지를 내세우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이 무력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론적으로 전투의 목적입니다.

20. 대개, 계획하는 사람은 죽이지 않고, 죽이는 사람은 계획하지 않습니다.<sup>1)</sup> 베트남 전쟁 당시 집중 폭격, 자유사격지대, 고엽 작전<sup>2)</sup>, 곡물 말살, 암살 작전 등을 계획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다.

21. 전쟁은 사회적·정치적 체계, 종교, 윤리, 지적·기술적 기준에서의 변화와 관계없이 역사적으로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영구적인 인간 삶의 특징입니다.

---

1) Those who plan do not kill and those who kill do not plan.

2) 정글이나 삼림 지역 같은 곳에 화학 약품을 뿌려 나무를 말라 죽게 하여 적의 은신처를 없애려는 작전

■ 전쟁을 돌아보고 평화를 생각하다

22. 전쟁의 공포와 무익함, 그리고 파괴력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포기할 수 없는 특정한 장점과 진실이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생각을 내고, 자신을 숭고한 대의명분에 헌신하고, 동료와 정신적 통합의 기쁨을 느끼고, 그들에 따라서 행동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격렬한 행동과 용기의 발휘가 대담한 열정에 의해 휩쓸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참된 이상의 실현을 위해 공통의 규율과 어려움을 겪고, 효과적인 상태에 있길 바라며, 강하고, 관대하고, 자립적이고, 신체적으로 알맞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조화롭게 작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모든 인격은 깨어있고, 의식적이며, 통합되어 있습니다.

23. 무인계급은 그들을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번성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오직 여성들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쟁만이 전사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한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야기합니다. 부분적으로 전쟁은 다음에 싸울 전사들을 키워내기 때문이지요.

24. 호주의 군대는 밀즈베이 주에서 일본에게 확실한 패배를 가했습니다. 우리 중 몇몇은 이미 일본의 무적 군대를 처음으로 깨부순 나라가 호주라는 것을 잊었을 것입니다.

## 북 콘서트 소감문들

2학년 박○○

2015년 8월 21일, 동아리 <2020>에서 주최한 북 콘서트에 참여했다. 북 콘서트는 책 ‘서부 전선 이상 없다(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한국 구술사 협회)’, ‘역사 앞에 선 미술(니콜라 마르탱, 엘로아 루소)’을 비롯하여 영화 ‘디 벨레(데니스 간젤 감독)’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하고, 책이나 영화의 배경 및 줄거리와 느낀 점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토의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처음으로 ‘역사 앞에 선 미술(니콜라 마르탱, 엘로아 루소)’라는 책을 다루었다. 책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도 전쟁 중에 피어난 예술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보았다. 과연 예술이 당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친구들과 토론도 해보고, 당시 ‘전쟁’이라는 특수한 시대 상황과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가치관 등도 꼼꼼히 따져가며 우리의 생각을 교류하고, 정리해 나갈 수 있었다.

책 ‘서부 전선 이상 없다(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 와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한국 구술사 협회)’에 관해서는 ‘전쟁’의 의미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파고들었다. 전쟁에 관련한 여러 가지 문구 20여개 중 가장 공감하는 것과 공감하지 않는 문구를 꼽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공통적으로 전쟁의 효용과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전쟁으로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우열을 가르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친구들과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전쟁이라는 것이 양 쪽 모두에게 별 의미가 없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만 잔뜩 안겨주는 인류 최대의 재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남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때에 ‘전쟁’이라는 큰 주제로 북 콘서트에 참여해서 그런지 더욱 진지하고 절실하게 느껴졌던 것 같다. 대북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형성되고, 아주 팽팽한 긴장 속에서 전쟁이 터질 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경고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하는 전쟁에 관한 얘기... 조금 겁나고 걱정되기도 했지만, 북 콘서트를 계기 삼아 이런 국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중요한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그리고 그들이 진두지휘하는 ‘전쟁’에 몸사리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려들어 서로를 혈투는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쓰러운지, 그럼에도 왜 전쟁에 관한 두려움과 위협은 없어지지 못하는 것인지 등 다양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2020 동아리의 회원으로서 전쟁과 관련된 문학을 읽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주제의 북 콘서트가 열리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3학년 선배들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행사이기 때문에 기대가 됐다.

첫 번째 주제는 세계 대전과 미술을 함께 보는 것이었다. 전쟁과 관련된 문학이 많듯이 당시에 그려진 그림도 많고 전쟁 후에 전쟁 상황을 묘사하여 그린 그림도 많다. 히틀러와 나치를 비판하는 내용의 그림과 수용소와 같은 장소를 묘사한 그림을 보고, 친구들과 당시에 그려진 그림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토론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평소에는 이런 작품을 감상하고 이에 대해 토론을 해보거나 깊게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당시 상황이나 전쟁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그림과 함께 접하게 되어서 어렵거나 지루하다는 느낌 없이 재미있게 봤다.

두 번째 주제는 한국 전쟁이었다. 한국 전쟁 당시 일어난 학살 사건을 소개했는데 대부분 잘 모르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 중 하나였던 보도연맹 학살 사건은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빼 동굴 미스터리’라는 이름으로 방영되었던 적이 있다. 육군 본부 정보국과 경찰들이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쌀과 밀가루를 주겠다고 무고한 민간인을 데려다 가입시킨 뒤, 반공 활동, 좌익 전향 등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대량 학살한 사건이 바로 보도연맹 사건이다. 빼 동굴은 당시 그 사건으로 학살당한 사람들의 빼가 묻혀 있던 곳으로 3500명 이상이 그 동굴에서 죽음을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당시 보도연맹 학살은 전국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희생자를 최대 60만 명 까지 보는 견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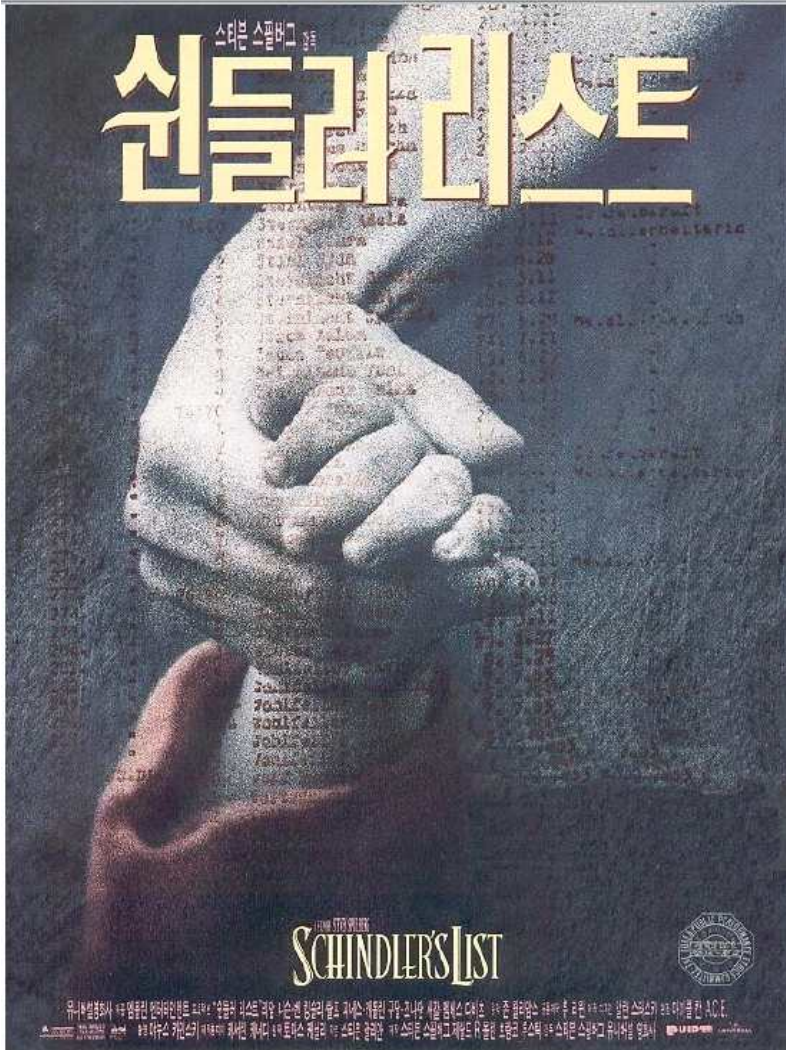
있다. 나는 방송을 볼 때도 그렇고 북 콘서트에서 관련 내용을 들을 때도 그렇고 너무 화가 났다. 정부가 국민의 대량 학살을 지시하는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1950년대면 엄청난 과거도 아닌데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아직까지 정확한 조사 및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유족들에게 사죄했으면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처럼 사람들이 알아야 할 역사 속 사건들을 숨기지 않고 전해주는 책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 번째 발표는 전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도서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선정했다. 동아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읽은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다.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 파괴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는데 내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생각과 대체로 비슷했다. 특히 나는 작가가 전쟁 묘사를 구체적으로 한 것이 전쟁 상황의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발표자도 이런 부분에 대해 말해서 공감할 수 있었다.

올해 동아리에서 준비한 첫 북 콘서트였는데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다. 특히 주제에 관해서 친구들과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좋았다. 작품에 관해서 토론하면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는 활동이 재미 있는데다가 작품의 이해에도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도 조원들과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 20·20클럽

### 스티븐 스피버그, 『신들러 리스트』를 만나다!!!



## 2학년 정○○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받았던 장면은 많았지만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한 가지만 뽑으라면 오스카 윈들러가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하지 못했던 것을 자책하며 오열하는 장면이다. 나는 처음에 그가 나치 당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도와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오히려 그가 유대인들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악덕 사업가가 아닌가 의심했었다. 물론 그가 공장을 세울 때만 해도 그는 유대인들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이윤 추구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유대인 이자크 슈텐을 회계사로 고용하면서 점점 수용소에 끌려가게 된 유대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공장으로 데려오려고 힘쓴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그의 공장에서 일하게 된 사람들은 나치에 의해 수용소에 끌려가는 대신 목숨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유대인 여자의 말에 따르면 그의 공장은 아무도 죽지 않는 유대인들의 천국이라고 불린다는데 확실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의 공장은 안전한 은신처였을 것이다. 이자크 슈텐이 수용소로 끌려가게 될 상황에서 그는 기지를 발휘해 기차를 멈추어 그를 찾아내었고 자신의 부모님을 공장으로 데려와 달라는 처음 본 여자의 간절한 부탁도 들어주었다. 나중에는 많은 돈을 들여 유대인들을 사서 자신의 공장으로 데려온다. 특히 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까지 찾아가 그들을 데려오는 모습을 통해 그가 유대인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유대인들도 그의 진심을 느꼈던 것인지 마지막에 그가 떠나려고 할 때 자신들이 서명한 편지와 직접 만든 반지를 그에게 전해준다. 그는 자신의

■ 전쟁을 돌아보고 평화를 생각하다

자동차, 나치 금배지를 가리키며 이것들을 팔았더라면 몇 사람의 목숨은 더 살릴 수 있었을 거라며 물건을 팔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는 유대인의 목숨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 나는 이 영화를 보고 나치 통치 시절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오스카 쉰들러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독일인, 그것도 나치 당원이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지금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않지만 당시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한 상황에 놓이게 하면서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떠올렸다.

## 2학년 김○○

‘쉰들러 리스트’ 라는 영화는 전부터 제목은 많이 들어왔었지만 영화를 볼 기회는 없었는데, 1900년대 나치가 유럽을 장악하던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 탄압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영화를 보기 전에는 단지 유대인들이 어떤 탄압을 당했는지 만을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뻔할 수 있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영화를 보고 나니 쉰들러라는 인물 또한 상당히 강조된 영화였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실존 인물이었다는 쉰들러라는 인물이 궁금해서 검색을 해 보게 되었는데, 영화에서 언급된 내용 외에 크게 알려진 것은 없어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영화 내용이 실화라는 점과, 쉰들러를 보는 관점이 사람에게 따라 갈린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이 영화는 러닝타임이 세 시간으로, 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나 인상 깊었던 장면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유대인을 탄압하는 장면들이었던 것 같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다루듯 폭력을 행사하고, 유대인 거주 지역을 지정해 그 곳에 유대인들을 모두 몰아넣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때로는 이유도 없이 유대인들을 총살하는 장면들은 충격적이었다. 영화의 배경이 된 폴란드의 시민들조차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그 당시 유대인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심했는지가 매 장면을 통해 사실적으로 나타나서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각 인물의 감정 또한 세세하게 드러나서 더욱 그 고통이 잘 느껴지지 않았나 싶다.

■ 전쟁을 돌아보고 평화를 생각하다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은 영화의 마지막 즈음에 쉰들러가 유대인들을 더 살리지 못했다며 괴로워하는 장면이었다. 그는 파산까지 해가며 수많은 유대인들을 자신의 공장에 취직시키고 빼돌려 살렸지만, 더 살릴 수도 있었다며 자책하는 모습은 감동적이기도 했고 안쓰럽기도 했던 것 같다. 이 장면에 이러한 말이 나온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이 영화를 통해 유대인들의 고통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수 있었던 것 같고, 한 사람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화려한 효과나 긴박한 스토리는 없어도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영화인 것 같다.



## 2학년 박○○

‘쉴러 리스트’는 우리 조원들과 읽었던 책 ‘사랑할 때와 죽을 때’와 시대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 둘 다 세계 제 2차 대전 독일군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영화에서는 유태인과 나치 당원의 삶이 빈번하게 대비된다.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서 유태인 가족이 게토로 쫓겨나게 되어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이 있다. 유태인들이 쫓겨난 그 집에서 쉴러는 ‘어떻게 이보다 좋을 수 있겠어?’라고 기뻐하지만 바로 다음 장면에서 허름한 단칸방에 살게 된 유태인 가족은 ‘어떻게 이보다 나쁠 수가 있겠어?’라고 말하며 분노한다. 이 장면은 유태인들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사유재산을 빼앗는 독일의 악행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유태인 가족의 미래가 더 어둡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슬프고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독일군이 유태인 게토에 남아 숨어있는 이들을 학살하는 동안 한 독일군 병사가 시끄러운 총성 속에서 피아노를 연주한다. 피아노 뒤에 숨어 있다가 빠져나오려던 유태인이 피아노 건반을 밟아 들리게 되고 이에 독일군 병사의 연주가 이어지면서 불편하지만 자연스러운 전개에 감탄했다. 수많은 생명이 죽어나가는 현장에서도 태연하게 ‘바흐야?’, ‘아니, 모차르트야.’라고 대화를 나누는 군인들의 무심한 태도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조가 앞서 읽었던 ‘서부 전선 이상 없다’에서 배운 점을 바탕으로 그 어린 병사들은 ‘서부 전선 이상 없다’의 소년병들처럼 전쟁에 사회화된 것이

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 피아노곡이 원래 바흐의 곡이라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그 어리석은 병사들을 더 안쓰럽게 생각하게 했고, 나는 전쟁이라는 상황 그 자체에 더 큰 분노를 갖게 되었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내가 무엇보다 주목한 것은 오스카 윈들러 라는 사람이 변화하는 모습이였다. 영화 초반부의 윈들러는 전쟁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번성하게 하려는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였다. 그래서 그는 나치 당 모임에서 많은 돈을 사용하고 유대인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그들과 거래를 한다. 자신의 공장 노동자 중 한 명이 나치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때는 냉정하게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독일인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사업을 도와준 스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비교적 따뜻하게 대해준다. 나는 이것이 그가 말했던 일종의 ‘포장’인지 아니면 그의 양심인지 헷갈렸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스텐의 영향을 받은 윈들러는 양심의 힘을 더욱 기르는 것 같아 보였다. 영화의 후반부에서 윈들러가 하는 자책은 나에게 정말 깊은 감명을 주었다. 영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나는 그들 하나하나를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저 나치는 악하고 유대인은 불쌍한 희생자라는 알팍한 동정심만 갖고 있었다. 그러나 윈들러는 자신의 차를 판다면 열 명의 생명을, 배지를 팔아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했어야 했다며 괴로워한다. 그래서야 나는 희생자‘들이 아닌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애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내 생명을 소중히 하듯 모두 그들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갖고 있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는 윈들러 만큼이나 가치 있는 변화를 겪었다. 바로 전쟁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변화가 내가 사회의 모든 현상들과 문제점을 파악할 때 올바른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2학년 배○○

동아리에서 전쟁을 주제로 한 문학을 읽고 감상문을 쓰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그에 이어서 감상하게 된 영화가 ‘쉰들러리스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유대인 학살을 중심 소재로 한 영화인데 예전부터 보고 싶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보게 되어서 좋았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쉰들러가 천 명이 넘는 유대인을 구해내고도 더 구할 수 있었다며 자신을 자책할 때 쉰들러의 공장에서 일하던 유대인들이 그를 둘러싸 안아주는 장면이다. 오스카 쉰들러 라는 인물이 변화되어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고, 독일인 대 유대인의 관계를 떠나 인간 대 인간으로서 유대인을 대한 쉰들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깨닫게 되었다.

결말 부분이 특히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데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영화의 진행 방식인데, 영화를 보면서 쉰들러라는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을 같이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회주의자에 불과했던 그는 슈텐과 일하면서 자신의 양심을 돌아보게 되고 유대인 수용소 폐쇄 과정을 지켜보며 사회의 문제점을 직시한다. 특히, 쉰들러가 유대인이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할 때 영화를 보는 나 또한 이 장면을 같이 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에게 감정이입하게 된다. 두 번째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화면과 함께 아이들의 노래 소리나 경쾌한 피아노곡들이 배경음악으로 깔린다. 화면과 소리가 대비되어 독일군의 잔혹한 행위가 더욱 섬뜩하게 느껴진다. 이외에도, 쉰들러리스트에 올라온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유대인을 화면에 비

■ 전쟁을 돌아보고 평화를 생각하다

추는 것도 몰입감을 높여 마지막에 감동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 유대인 전체를 생각할 때 느껴지는 감정보다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영화적 장치들과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를 봤을 때 매우 잘 만들어진 좋은 영화라고 생각한다. 오스카 윈들러를 보며 당시의 유대인 학살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학살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 꼭 한 번 보아야 할 영화라고 생각한다.

## 2학년 백○○

평소 나치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 편인데, 쾨들러 리스트는 그 내용이 사실적이고도 감동적이라 좋았다. 이 영화는 전쟁을 이용하던 쾨들러가 결국에는 전쟁으로 인해 유대인들을 아끼게 되면서 자신의 힘으로 유대인들을 나치로부터 지켜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중 내가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은 단연 영화 후반부에 전쟁이 종결되고 유대인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쾨들러가 공장에 유대인들을 남기고 떠나는 장면이다. 공장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나치로부터 지키기 위해 애쓴 쾨들러가 나치당이라는 이유로 해를 입지 않도록 한 명 한 명 쾨들러의 죄가 없다는 서명을 해서 진정서를 만들어 쾨들러에게 전달했다, 또한 그들은 그에게 반지를 주었는데, 거기에는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함이다’라는 탈무드의 말이 있었다. 쾨들러는 이것을 받고 감사해하기 전에 자신이 구하지 못한 유대인 몇 명의 목숨을 안타까워하며 좀 더 유대인들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미안해한다. 그에 슈텐은 당신이 살린 유대인들의 후손이 당신의 희생을 값지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쾨들러가 떠나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배웅한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이용하던 쾨들러가 나중에는 유대인들을 위해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노력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누가 당시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도와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는가. 이 영화는 오스카 쾨들러의 삶을 조

## ■ 전쟁을 돌아보고 평화를 생각하다

명함으로써 힘이 있는 자가 전쟁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윈들러는 전쟁을 통해 그 실상을 알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도와주었지만, 피트의 경우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피해자를 양산했다. 그 둘의 차이는 공감과 이해의 한 곳 차이였다. 유대인들의 삶에 공감하며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윈들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것이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에서는 전쟁이 발발하고 있다. 서로에게 공감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조금의 노력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았으면 한다.

## 2학년 조○○

전쟁과 학살. 종이 위에 이 두 단어를 쓰다보면, 종이 위에 쓰인 ‘전쟁과 학살’이라는 단어들은 각각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와 무게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 같다. 아마 그 이유는 사람들이 전쟁과 학살이란 단어들을 책과 교과서, 그리고 수많은 미디어 자료들을 통해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이 단어들이 담고 있는 엄청난 무게와 고통을 잊어버린 채 너무나도 가볍게 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해보면, 나 또한 이 두 단어를 아무런 자각 없이 일상적으로 쓰고, 또한 일상적으로 읽었던 것 같다. 전쟁과 학살의 고통, 사람들의 비명,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서 느끼는 끔찍한 절망, 이 모든 것들을 털끝만큼도 절감하지 못한 채 너무나도 가벼이 ‘전쟁과 학살’을 ‘남용’했던 것이다. 이를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은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보고 난 후였다. 영화에서 보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고통과 불안은 너무나도 생생하여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셀 수도 없이 많은 글과 자료들에 쓰여 있는, 이미 일상적인 단어가 되어버린 ‘전쟁과 학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다.

이 영화는 오스카 쉰들러 라는 나치 당원이자 뛰어난 사업가였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처음에는 한 사악한 자본가의 이야기를 다루어 유대인들의 고통의 단면, 단면들을 생생하게 묘사해주는 영화가 아닐까 하고 예상해 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오스카 쉰들러는 본인의 지위와 자본을 최대한 이용하여 유대인들의 학살에 동조하지 않고, 그들을 구출 하는 데에 주력하여 약 1천 100명의 유대인

들을 죽음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구해내는 큰 업적을 남겼다. 이 영화를 감상하면서 나는 오스카 윈들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이 유대인들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시시각각 변해가는 것을 공감하며 영화가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와 메시지에 흠뻑 빠져들게 되었다.

물론 이 영화의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맘에 들었고, 몇몇 부분에서는 잊지 못할 감동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영화의 모든 부분들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몇 가지 꼽자면, 그 첫째로는 독일 나치 장교인 괴트의 무분별한 사살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괴트는 평범한 아침을 맞아 상쾌하게 기상한 후 느닷없이 총을 잡는다. 그 다음에 이어진 괴트의 행동은 끔찍하게도 수용소 내에서 바쁘게 짐을 옮기고 있는 한 유대인 여성을 쏘 죽이는 것이었다. 마치 그냥 심심풀이로 사격게임을 하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 사람을 죽인 괴트의 표정에서는 어떠한 죄책감도 없었으며, 다만 장난을 치는 남자아이들과 같은 짓궂고 천진한 미소가 입가에 걸려있었을 뿐이었다. 두 명의 유대인 여성의 머리를 사정없이 소총으로 명중시킨 후 괴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다. 이 장면을 보면서 나는 그야말로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사람이 이토록 쉽게 죽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 여성이 마치 악운을 만나 '우연히' 죽고 말았다는 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또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인 후 한바탕 장난이 끝난 것처럼 후련한 표정으로 소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두려웠다. 한 사람의 생명이 재미만도 못하게 다루어질 수 있게 한 것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였을까. '유대인은 벌레이고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종족이다'라는 한 미치광이의 말이 마치 종교처럼 퍼져 그를 믿는 광신도들을 형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한 여성이 예상치 못하게, 마치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하게 넘어지듯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 학살이라는 것을 나는 이 충격적인 장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두 번째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바로 오스카 윈들러가 전쟁이



끝난 후 자신들이 구한 유대인들과 함께 운영하던 공장을 피신을 위해 떠나는 장면이었다. 설령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였다 해도, 그의 과거 나치 당원이었던 행적과 유대인 노동자들을 혹사시켜 자본을 모았다는 것은 분명히 처벌받아 마땅한 것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도망가야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죄를 고려하더라도, 모든 유대인들은 그의 선행에 깊이 감사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 오스카 윈들러가 직접 윈들러 리스트를 작성하여 자신들을 구원해준 장본인임은 마음 속 깊이 새겨 넣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그의 앞으로의 안전과 무사를 위해, 공장의 유대인들은 그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음의 수용소로부터 구해내었고,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의 삶을 꿈꿀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편지를 써서 주었다. 오스카 윈들러는 이들의 정성에 깊은 감동을 받는 한편, 어째서 ‘자신은 한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지 않았나, 자신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울부짖으며 죄책감을 호소한다. 이 장면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오스카의 죄책감의 눈물을 보면서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다. 한 사람의 생명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절절히 느끼며, 오스카의 죄책감이 십분 이해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가 1천 100명의 유대인들을 구조해 그들이 앞으로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준 것을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일을 이루어 놓고도 자신의 부족함과 생명의 무게를 잊지 않고 감당해 내려는 오스카의 태도는 쉬이 잊혀 질 것 같지 않다.

오스카 윈들러의 업적을 기리고 유대인들이 증언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 실화 영화의 힘은 실로 대단했고, 나 또한 이 영화를 진심으로 감명 깊게 보았다. 하지만, 몇 가지 영화에서 아쉬운 점을 들자면,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 오스카 윈들러에게 소위 윈들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뇌물을 준 유대인들이 있었고, 오스카가 그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영화에서 생략되어있었다. 아마 이는 오스카의 영웅성과 그의

업적을 한층 더 깊은 감동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영화 제작자의 의도였겠지만, 이에 대한 해명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러 유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스카 윈들러 뿐만 아니라, 윈들러의 아내 또한 유대인 구출에서 기여한 부분이 실제로 있었고 그를 통해 살아남게 된 유대인들의 수도 결코 적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부분이 영화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고, 윈들러의 부인은 위대한 남편을 묵묵히 따르는 순종적이며 현명한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영화에서 오스카 윈들러 만을 성자와 같이 묘사함으로써 관객들이 그를 향해 경외심을 갖고 주목하게 하고자 했던 것은 충분히 알겠으나, 윈들러 부인의 공적을 놓친 것은 조금 안타깝게 느껴진다.

비록 몇몇 아쉬운 점을 불만을 토로하듯이 써내려 갔지만, 이 영화는 유대인 학살을 과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순화시키지도 않은 묘사를 통해 마치 그 당시 끔찍했던 상황을 카메라를 들고 직접 찍은 듯이, 관객들에게 전쟁과 학살의 비극을 전달해 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영화는 위대하며, 인류가 앞으로 계속해서 기억해야만 하는 비극을 후세에 전달하는 중요한 기록물이자 유산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2학년 황○○

처음 영화 제목을 듣고 리스트가 어떤 리스트일지 궁금했었다. 그것은 바로 영화 주인공인 오스카 쉰들러가 구하고자 한 유대인들의 이름이 든 명단표였던 것이다. 쉰들러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축적해둔 자금으로 피트와 협상을 했다. 이런 사람이 독일 나치정권 시대에 있다는 사실이 나에겐 정말 놀라웠고 감동적이었다. 게다가 쉰들러는 1100명에 달하는 유대인을 살려냈음에도 불구하고 더 못 살려냈다는 자책감까지 갖게 된다. 내 개인적으로 “이 차를 팔았다면 10명은 더 살렸을 거야.”라고 한 대사가 인상적 이었다. 영화 초반에 쉰들러가 엄청난 사업가로 재력가와 고위 간부들과 술을 마시며 친분을 나누고 유대인들을 값 싼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장면을 보면 돈만을 추구하는 무정한 사람일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당시 유대인 학살 장면을 목격한 이상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중 쉰들러와 같이 자신의 양심을 깨닫고 행동을 바로 취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었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독일의 양심’이란 수식어가 붙으며 독일과 관련 없는 나라인 한국에 사는 내가 봐도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 이유일 것이다.

지금껏 독일의 유대인 학살과 관련하여 많은 문학 서적과 영화를 접해왔지만 이런 특정 인물을 다룬 영화는 처음 보았다. 특히 오스카 쉰들러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웠다. 영화를 보고난 후 독일의 숨겨진 영웅을 알게 되어 뿌듯했다.

## 1학년 이○○

쉴러 리스트는 세계2차 대전이 바탕인 영화이다. 영화 주인공인 오스카 쉴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 죽을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구해낸다. 이렇게 구해낸 유대인들은 대략 1,100명이나 되는데 오스카 쉴러는 이 유대인들을 데려다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게 한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을 다 풀어주기로 결정하고 도망가기로 한다. 오스카 쉴러가 도망가는 길에 어떤 유대인이 오스카에게 반지를 내미는 데 그 반지에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적혀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차를 팔아서 10명을 그리고 자신의 나치 배지를 팔아서 최소한 1명을 구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계속 말하며 자책하면서 운다. 나는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 오스카 쉴러는 나치 당원인데 1,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구했다. 유대인들을 구하면 자신이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다. 그는 자신의 이익에만 눈에 멀어있었던 나치 정당과는 달랐다. 그는 현실을 직시해서 나치의 악행들로 인해 죄 없는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걸 깨달은 것이다. 나는 오스카 쉴러를 독일의 남아있는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나는 반지에 쓰여 있던 글이 참 기억에 남는다. 오스카 쉴러는 세상을 구한 것이다. 나는 이 글을 보며 다시 반성했다. 다시 세계2차 대전에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죽은 사람들을 떠올리며 나는 그동안 내 삶을 낭비한 것이 부끄럽다. 앞으로도 내가 삶을 살기 싫어질 때 이 사람들을 떠올리며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 1학년 이○○

‘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고 원래 알고 있던 나치들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잔혹성에 대해 더 생생하게 알게 되었다. 선들러는 나치당원이 공장을 만들고 유대인을 노동자로 고용함으로써 그들을 수용소에서 꺼내주려고 노력한다. 나는 선들러 라는 캐릭터를 보고 나치 당원이면서 유대인을 구해주려는 노력하는 모습이 정치적인 사상보다는 사람의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휴머니즘을 구현하는 모습을 보고 인간적인 매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 몇 날 며칠을 열차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에게 소방호스를 통해 물을 뿌려주는 모습을 보고 선들러의 인간에 대한 진한 사랑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독일이라는 나라 전체가 유대인을 학살하고 학대하던 중, 선들러는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무릅쓰고 유대인을 도와줬다는 것에 대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들러는 집단의 폭력과 광기에 맞서 자신의 소신을 펼친 사람으로서 소대장인 아몬과 대립된다. 아몬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유대인을 죽이는 사람인데 과연 아몬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전쟁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행해지는 폭력인 것처럼 개인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개인은 집단의 의사에 내몰린다고 할 수 있는데 전체주의를 대표하는 독일의 나치즘이 개인들의 생각과 행동, 삶까지 피폐하게 만들어 버렸다.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독일 군인들도 군복을 벗으면 가정에서는 따뜻한 아버지, 아들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아마 선들러가 광기와 살기가 넘쳐나는 전체주의 하에서 나치의 정책에 어긋나는 자신만의 소신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지키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랐을 것이다. 어찌면 자기의 모든 것과 생명을 내걸고 지켜내고자 한 인간에 대한 소중함과 생명의 소중함을 지금 이 시기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다.

## 1학년 최○○

독일이 연합군에 의해 항복한 후, 나치당 의원이었던 오스카 쉰들러는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의 공장에서 착취를 당했던 유대인들은 그에게 금반지를 선물합니다. 반지에 새겨져 있던 글, “한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람은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 쉰들러는 반지를 보고 과거의 자신이 유대인에게 했던 잔인한 행동을 반성하게 되고, 나치 군인인 '아몬'에게 자신의 금배지와 차를 팔아서라도 단 한명의 유대인을 더 데려오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수많은 장면 중 제게는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유대인을 착취했던 쉰들러, 그가 이기적이고 잔인하다고만 생각했던 저는 그가 변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물론 쉰들러가 유대인을 자신의 공장으로 데려오는 과정이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 상황에서 쉰들러가 유대인을 위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영화 "쉰들러 리스트" 중 )



( 영화 "쉰들러 리스트" 중 )



## 1학년 이○○

<<영화, ‘선들러 리스트’에 담긴 아름다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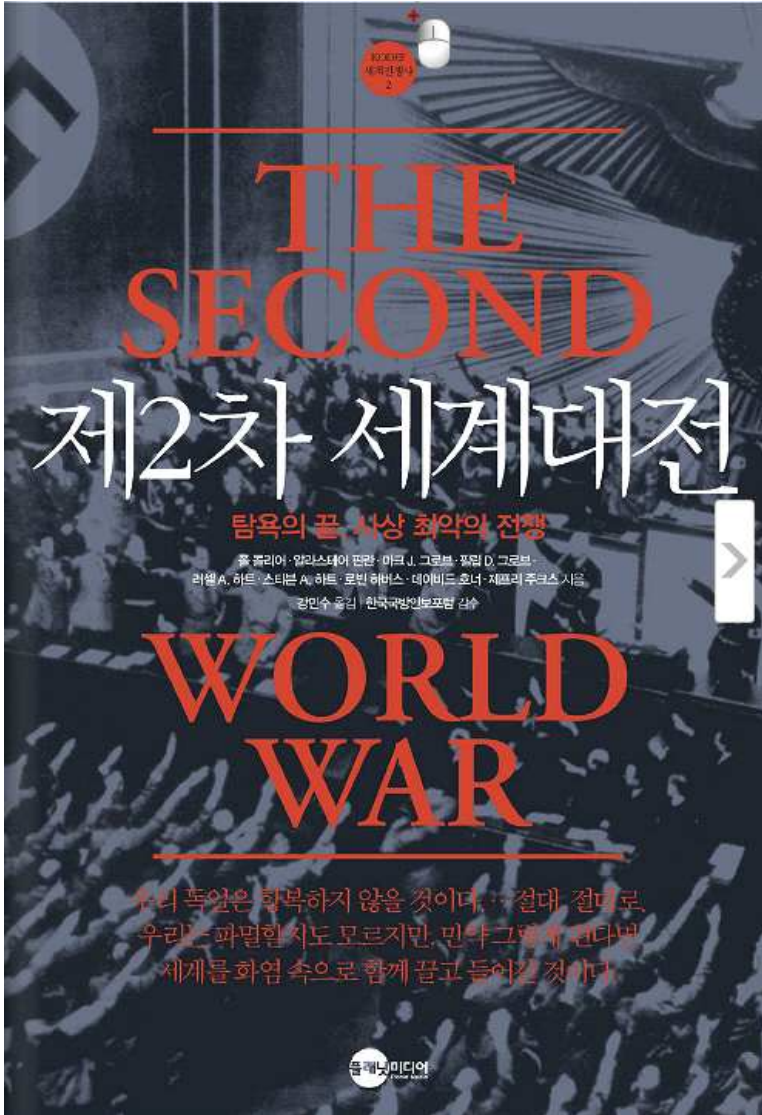
영화, ‘선들러 리스트’의 가장 인상 깊은 점은 영화의 주인공이자 감독적인 실화의 장본인인 오스카 선들러 에게 일어난 변화이다.

영화는 1939년 9월 독일침공 2주 만에 폴란드 군을 대파하였는데 이러한 배경 뒤에 살아가는 기회주의자, 오스카 선들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그는 폴란드 계 유대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하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유대인 회계사인 스텐을 이용하게 된다. 스텐과 함께 이루어낸 사업이 성공하자 선들러는 그와 한층 가까워지며 동시에 여러 유대인에게 정을 느끼게 된다. 오직 공장일의 경제적인 목적만 중요시 여기던 선들러는 유대인을 통해 자신의 이기주의적 모습과 양심이 흔들리게 된다. 또한 공장의 유대인 직원들에게 정을 느끼게 되어 결국 유대인들을 강제 노동 수용소로부터 구해내기로 결심한다. 그 과정에서 구출할 유대인들의 이름을 목록에 작성하게 되는데 훗날 일명 ‘선들러 리스트’라고 불리는 생명의 명단이다. 마침내 오스카 선들러는 1,100명의 유대인 구출작전에 성공한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르렀을 때의 시대적 배경은 이미 1945년 전쟁의 종식 후 러시아 군대가 동유럽을 자유화시켰을 시점이다. 나치 당원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선들러도 그들과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된다. 함께했던 유대인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선들러는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해하기 보다는 큰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리게 된다. 그동안의 사치스러웠던 생활과 생명의 소중함을 모른 채 살아온 나날과 그의 무지에 분노하게 된다. 그리고는 자문한다. 그동안 더 많은 유대인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왜 그러지 못하였는지.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스카 윈들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가 등장한 첫 장면부터 그는 고위관직의 장교들에게 뇌물을 주며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그는 장교들과 유대인을 비하하고 자신들의 우월감에 사로잡힌 말을 주고받으며 유대인을 대량 학살하는 장면에서도 태연한 모습을 보인다. 어쩌면 이러한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지배자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항상 그의 곁을 지켜준 유대인 회계사로부터 애뜻한 정을 느낀 이후부터 그는 유대인들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장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줄 것을 당부하는 모습을 통해 그가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인물에서 생명을 중요시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 도리어 자신이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유대인 구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난 그의 변화가 영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순간까지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특히 윈들러가 끊임없이 자문하며 괴로워하는 장면을 통해 생명의 중요성을 자각하고는 있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한 수많은 현대인들 역시 각자에게 자문해 성찰할 수 있는 영화임을 확신하였다. 그리고 역사에 깊이 남을 오스카 윈들러. 그 조차 힘겹게 이루어낸 아름다운 변화로, 결국은 위대하면서 용기 있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에게 경의를 표해야 할 것이다.

제프리 주크스 외 『제 2차 세계대전 - 탐욕의 끝 사상 최악의 전쟁』  
- 요약 보고서



## 1부\_유럽전선 1939~1943

### 3학년 함○○

아마도 역사 속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쟁들 중 최악의 재난을 꼽는다면 제 2차 세계대전을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물론 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그 전쟁을 겪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히틀러라는 인물의 파급력을 익히 들어왔다. 그가 시작한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그 전쟁이 주는 도덕적, 군사적, 정치적 교훈이 전쟁이 끝나고 6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대두되고 있다. 난징과 뉘렌베르크, 루손, 레닌 그라드 등의 지역에서 수억 명의 인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잔인한 고통을 겪어왔던 인류 역사 최대 규모의 전쟁인 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

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장 전쟁의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할 부분은 그 인물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2차 세계대전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히틀러’와 그 전쟁을 겪은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콜린 페리’를 중심으로 생각해보았다.

독일어과 임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와 생각은 굉장히 적고 알았다. 명덕외고 입학 초기에 읽었던 <취1,2>의 가장 인상깊은 장면인 홀로코스트에 대한 정보만이 세계대전과 히틀러에 대한 생각의 전부였다. 폴란드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포로수용소가 해방 될 때 까지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당한 일이라는 것,

인간의 잔인성과 폭력성, 배타성 그리고 광기가 어디까지 인지 그 끝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통해 20세기 인류 최대의 치욕적인 사건을 꼽히는 점, 그 주축에는 히틀러가 존재했다는 점.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전부였으며 딱 이만큼의 관심만을 갖고 있었다. 이 책, 특히 내가 읽은 1부는 그러한 히틀러의 잔인성보다는 전쟁 전략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어 다뤄지고 있다. 1부에서의 히틀러의 전쟁 전략 중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제 2차 세계대전의 본격적인 막이 오르는 부분이었다. 이는 평소에 나 자신이 전쟁에 관해 크게 관심이 없었던 이유에서 비롯되었겠지만 처음 알게 된 매우 신선한 정보였기 때문인 것 같다. 이 책은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을 히틀러의 야망이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이 해석에 이어 힌덴부르크라는 암호명이 붙은 작전을 설명한다. 히틀러가 원하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와 친위대 보안방첩부 요원들이 글라이비츠의 라디오 방송국, 호흘린텐의 작은 세관 사무소, 폐철편의 사냥터 관리인의 오두막 세 곳을 동시에 습격하는 계획을 가진 작전이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를 독일이 전 세계에 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자국이 아니라 폴란드와 연합국인 영국과 프랑스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책략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나는 이 전략을 매우 고도의 치밀함을 가진 전략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특히, 글라이비츠의 라디오 방송국 습격전략의 경우 방송국을 습격한 괴한들이 폴란드어로 독일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방송국 직원들을 사살하는 상황이 그대로 방송될 계획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놀랍다. 사람들의 믿고 있으며 믿어야 하는 언론의 특징을 사용하여 히틀러의 의도를 표현하려고 했다는 점이 굉장히 치밀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라디오 방송국 습격전략은 계획대로 진행되었긴 하나 방송국의 전파 송신기 출력이 매우 약한 탓에 습격 현황을 생중계하겠다는 목표는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 방송국 습격작전은 전반적으로 계획과 같이 진행되었고 나피는 폴란드군이 독일에 침입했다는 증거를 위하여 작센하우젠 수용소의 수용자와 친폴란드

인사였던 독일인을 살해하고 폴란드 군복을 입은 이들 시신의 사진을 흔들어대며 폴란드가 적대한 증거라고 소리쳤다. 따라서 폴란드 군이 독일 영토에 포격을 가해왔으며 그에 자국의 군은 반격작전을 실행 중이라고 발표하여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사람의 심리를 읽어내 언론을 사용한 이 작전들은 조잡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으나 매우 치밀한 계획 아래 시행된 전략이라는 점에서 히틀러의 전략가적인 면모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기동성이 뛰어난 기갑부대의 장점을 충분히 사용하여 말과 발에 의존한 폴란드 군의 취약 부분을 파고 들어가 적의 후방을 양의 포위하는 ‘가마솥 전술’을 통해 승리하는 등 상당히 뛰어난 독일의 전략을 알게 되었다.

또한 전쟁을 시작한 히틀러가 있다면 그 전쟁에서 시민의 역할로서 살아간 콜린 페리라는 인물이 있다. 그 당시 전쟁을 경험하던 수많은 시민들 중에서 콜린 페리를 이 책에서 다루는 이유는 그가 프랑스가 함락된 직후인 1940년 6월부터 11월까지 쓴 일기 때문이다. 그 당시 영국 시민으로서 이 전쟁을 경험하고 느낀 내용을 마냥 철없던 19살 소년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일기를 쓴 소년 콜린 페리에게 전쟁은 두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한 편으로 신나는 모험이기도 했다. <위기에 빠진 조국>이라는 선전 영화를 보고 크게 감명 받아 육군에 지원하겠다고 마음먹는 그의 모습과 ‘그 소녀는 정말 매력적이고 예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여자아이는 독일의 제 5열, 즉 간첩 조직원이었음에 틀림없다.’라는 그의 글 속에서 젊은이의 철없음과 독특함을 동시에 느끼면서 전쟁 중인 상황과는 대비되는 맑은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이렇게 지극히 단순하고 비교적 성숙하지 못한 그의 감정과 표현에서 그 당시 영국 국민들의 생각을 간간히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콜린은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모른다. 잠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 줄은 과거에 알지 못했다. 금요일 새벽 이래로 독

일 폭격기들이 끊임없이 날아왔고, 그 때문에 공습경보가 잠잘 틈고 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일기를 씀으로서 독일군이 단순히 공습경보를 발령시킴으로 영국 국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목적이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그 당시 영국시민들의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의 쾌활함과 대담함은 독일 공군의 공습이 격화되면서 전쟁의 처참함에 의해 사라지게 되었다.'소방차와 구급차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이스크 엔드 지구로부터 피난민들이 쏟아져 나왔고 알데이트 방면에서 자동차와 자전거, 온갖 짐들과 아기들이 밀려왔다. (중략) 겨우 쌍안경을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간 나는 가장 무서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런던 중심거리가 불길에 휩싸였고 사방에 소방 호스들이 널려 있었다. 나는 그때 내가 느낀 기분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에 나는 났을 잃고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은 그의 일기내용은 그 전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었다. 마냥 신나고 흥미로운 일이었던 전쟁이 아닌, 독일군의 공습에 맞서는 시민의 결연한 의지를 지닌 청년이 아닌 파괴된 집과 시체들의 모습을 통해 혼란스러워하는 시민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이를 통해 전쟁 중의 시민으로서 느끼는 처참함과 잔혹함, 허무함 등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전쟁을 겪는 시민의 심정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에는 미래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결연한 의지에 있다. 특히 한국은 북한과 분단된 상황으로서 제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의 발생이 존재한다. 현재 북한은 부족한 자국의 힘을 만회하기 위하여 핵에 집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너무 군비 경쟁으로 몰아붙이면서 한국과 비롯해 많은 나라에 위협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제 2차 세계대전이 만든 잔인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한다. 물론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쟁은 결과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전쟁은 곧 파멸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 2부\_바다에서의 전쟁, 6부\_북서유럽 전선 1914~1945

3학년 정○○

“Accurst be he that first invented war”

“전쟁을 처음 생각해낸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의미를 가진 위 문장은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Christopher Marlowe가 한 말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나 당연히 제1·2차 세계대전들을 언급할 것이다. 특히 유럽에서 벌어진 제2차 세계대전은 비단 유럽 대륙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 영향을 미친,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면서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낳은 전쟁이었다. 연합국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을 저지하고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러한 승리를 얻기 위해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으며, 많은 승전국들은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제2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기억과 상처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다.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 또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총알받이로 끌려갔고, 바라지도 않는 노동을 해야 했으며, 먹을 것마저 떨어진 국민들은 굶어 죽기가 일쑤였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쟁의 피해는 아직까지도 남은 사람들에게 공포로 다가오고 있으며, 누군가는 그 후유증으로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0년이 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전쟁의 의미에 대해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이다.

지금까지 2차례에 걸친, 특히 가장 마지막 세계 대전이었던 제2차 세



계대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고, 여전히 그 당시 사회의 모습에 대한 회상을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 하지만 벌써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흐른 만큼 이제 나와 같은 젊고, 어린 학생들, 즉, 전쟁 세대를 겪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참혹함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 나는 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그 때 당시 사람들이 남긴 생생한 육성과 메시지라고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선정한 ‘제 2차 세계대전(알라스테어 핀란, 폰 콜리어 외 1명)’은 굉장히 훌륭한 책이었다. 저자는 유럽, 바다, 지중해, 태평양, 동부에서의 전쟁 상황들에 대해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56개 이상의 참전국들의 당시 정치·군사·경제·사회 상황을 설명하고, 각 전선에서 벌어진 주요 작전계획과 전투 전개과정, 그에 대한 작가의 간단한 견해를 상세히 전달한다. 하지만 이런 상세한 사실들보다도 더 큰 감명을 준 내용은 책의 각 부가 마무리되는 부분에 수록된 “한 ...의 초상” 부분이었다. 이 부분은 전쟁을 겪은 이들의 증언을 통해 한 개인의 삶을 회고함으로써, 전쟁이라는 역사적 상황이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 그 또는 그녀의 생활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켰는지 서술하고 있다.

“너무도 생생하여 잊히지 않는 전쟁의 이미지들이 있다. 불타는 기름으로 불바다가 된 바다에서 온몸이 불에 타고 연기에 질식해가는 선원들, 물에 닿기만 해도 순식간에 얼어붙는 북극해의 차가운 바다 속에서 얼어 죽어가는 선원들, 탄약고에서 불꽃이 번쩍하면서 산산조각이 나는 군함들, 격침된 잠수함에서 떠오르는 끔찍한 잔해들, 불꽃에 휩싸여 추락하는 항공기들, 공격을 받고 단말마의 몸부림을 치는 배들, 물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선원들의 끝없는 비명소리들이 바로 그런 장면들이다.”

일반적으로 조사된, 객관적인 진실만을 통해서는 느낄 수 없는 전쟁의 참혹함을 느낄 수 있는 구절이다. 이 부분은 전쟁 당시 상선 선원이

었던 John Delaney-Nash의 전쟁에 대한 증언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미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생존자들의 인터뷰가 여전히 화제가 되는지, 그 때 당시 남겨진 기록이 여전히 역사적으로 무시 못 할 가치를 지니는지, 그것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보았다.

전쟁이 무서운 이유는 ‘전쟁을 선포한다.’라는 말로 시작되고 ‘항복’으로 끝나는 그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 것이 전쟁을 결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의 전사자는 약 2,500만 명이었지만, 민간인 희생자는 약 3천만 명에 달했다. Herbert Clark Hoover의 말처럼, “늙은이들이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나 싸워야 하고 죽어야 하는 것은 젊은이”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감정 없이 나열만 해 놓은 정보들에 대해 ‘놀라움’이나 ‘흥미’를 느낄지언정 ‘공감’하지는 못한다. 이것은 북한이 언제 핵폭탄을 날릴지 모르고, 여전히 내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IS가 판을 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되짚어 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비록 개인적인 주관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쓰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그 사실이 과장되었을 수도, 왜곡되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들 속에는 한 개인의 삶이 담겨 있다. 이 무시 못 할 가치덕분에 우리는 전쟁이 가지는 무게를 깨닫고, 역사를 교과서 삼아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는 인류 멸망의 길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I've been where you are now and I know just how you feel. It's entirely natural that there should beat in the breast of every one of you a hope and desire that some day you can use the skill you have acquired here.

Suppress it! You don't know the horrible aspects of war. I've been through two wars and I know. I've seen cities and homes in ashes. I've seen thousands of men lying on the ground, their dead faces looking up at

the skies. I tell you, war is Hell!”

“나 또한 자네들 자리에 있던 적이 있고 지금 자네들 기분이 어떤지 정확히 알고 있네. 자네들 가슴 속에 언젠가 여기서 배운 것들을 바깥에서 써먹을 수 있으리란 희망 내지는 소망이 두근거리고 있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야.

집어치우게! 자네들은 전쟁의 끔찍한 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네. 전쟁을 두 번 겪어보니 확실히 알겠더군. 난 잣더미가 된 도시와 집들을 보았네. 죽어버린 얼굴로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는 수천의 시체도 보았지. 똑똑히 말해두는데, 전쟁은 지옥이야!”

-윌리엄 테쿰세 서먼(1879 미시건 사관학교 졸업반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좁은 한반도를 이등분하여 서로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북한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휴전’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은 언제나 마음 한 편으로는 전쟁에 대한 무의식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그런 공포를 지니고 있음에도 그런 전쟁이 불러올 수 있는 수많은 사상자와, 참혹함, 인간성 상실 등이 가지는 무게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책을 읽고 나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조사하고, 그 참혹함을 접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습관적으로 “언제쯤 이면 전쟁이 내려나”라고 내뱉던 나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었다.

**“싸울 때는 천둥 같고, 이동할 땐 비호같지만, 이겼을 땐 역겹기 그지 없다.”**

-Winston Leonard Spencer Churchill-

### 3부\_지중해 전선 1940~1945

3학년 신○○

찰스 헤이즈릿 업햄은 영국군인 이었으며 빅토리아 십자장을 두 번이나 수상한 사람이다. 빅토리아 십자장은 영국의 무공훈장으로 특히 적진에서 수훈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최고영예의 훈장이다. 원래 그는 한번 받기도 힘든 이 훈장을 한 번 더 수상할 뻔 했지만 그는 그 훈장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병사들에게 주어야 한다면서 거절을 했다. 이후 그는 뉴질랜드에서 자신이 군인이 되기 이전의 꿈이었던 농부를 하며 그 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최고의 훈장인 빅토리아 십자장을 두 번씩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잘난 척이나 유명세를 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명세를 타기를 꺼려하고 처음과 똑같이 겸손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겸손한 영웅’이라 부른다. 그가 빅토리아 십자장을 두 번이나 받은 데는 그의 용감함과 빠른 판단력 덕분이었다. 그는 독일 공수부대가 그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크레타로 침공을 하자 그는 용기와 적의 생각을 뛰어넘는 전술 감각으로 독일군을 격파하였다. 또한 그가 올리브 숲 가장자리에서 독일군 2명과 맞닥뜨렸을 때 그는 자신이 죽을 척을 함으로써 독일군을 속여 자신에게 오게 한 후 나무에 기대놓았던 총을 재빠르게 들고 한명의 독일군을 사살하였다. 그 후 나머지 한명도 사살하였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어찌나 가까웠던지, 독일군은 업햄의 소총 위로 쓰러졌다.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그는 냉정한 판단력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그의 부대를 끌었으며, 그가 이

질에 걸려 제대로 먹지도 못하여 허약해졌을 때도 그는 탁월한 전술 감각과 헌신적인 태도로 전장에 참여하였다. 그가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 포로수용소에 보내졌을 때 그는 계속해서 탈출을 계획하고 시도하였다. 물론 탈출을 시도할 때마다 간수들에게 붙잡혔다. 계속되는 탈출 시도에, 독일군은 그를 악명 높은 콜디츠성의 포로수용소로 보내버렸다. 그러나 그는 연합군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하였다.

그의 ‘용맹한 행동’은 어찌 보면 무모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가 했던 모든 행동은 자칫하면 그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었다. 포로수용소에 있었을 때도 독일군이 그를 사살하지 않았던 것을 일종의 행운이었다고 할 수 있다. 포로수용소에서 죄 없는, 그리고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에게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하고, 죽지 않았다는 것은 무모한 동시에 용감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이질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대를 이끌었다는 점에서는 그가 무모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부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뛰어난 장교가 필요하다. 장교가 어떠한 행동 혹은 지시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부대의 생명이 보존되거나 보존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장교는 항상 건강해야 하며, 건강한 체력으로 맑은 정신을 갖고 자신의 부대에 사기를 불어넣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업힘은 이질에 걸려 한동안 먹질 못해 ‘걸어 다니는 뼈다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핏줄해졌음에도 건강관리는 뒷전으로 하고 부대를 지휘하는 데만 신경 썼다. 결국 그는 철수 선을 타게 되었다. 당연히 그가 이질에 걸려서 힘들고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대를 지휘했다는 점은 본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하며 부대를 통솔했다면 그는 부대의 사기를 더 올렸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찰스 헤이즐릿 업힘과 같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용맹하고 여러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사람, 혹은 군인들은 많다. 이순신 장군, 한국 전쟁 때 참여했던 여러 군인들, 장군들 등등, 많은 사람들이 떠오른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러한 사람들을 뽑아보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더군다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찾아보기란 더욱 더 어렵다. 예전에는 찾아보기 쉬웠던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용감한 사람들이 왜 현재에는 찾아보기 힘든, 드문 사람들이 되었을까?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3.1운동, 5.18 광주 민주화운동, 6.10 만세운동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불의에 맞서 싸운 영웅이었다. 그들은 시위와 같은 격렬한 저항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독재자들이 무력진압을 했을 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 오늘날에는 모두가 숨어버리고 웬만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려 하지 않으며 불의에 맞서 싸우기를 원치 않아한다. 오히려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에 휘말리는 것을 꺼려하며 나서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사회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이에 따라서 자신이 남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어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다 같이 잘되기 보다는 개개인이 승승장구하려고 애를 쓰며 서로를 견제, 경쟁하는 개인주의도 확산되었다.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에 참여하여 피해를 입는 것을 싫어하며, ‘남들이 다치건 말건 나만 잘되면 그만이지’라는 이기적인 생각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들은 한때 이슈가 되었던 층간소음이 원인이 되어 살인을 저지른 사건들이 생겨났다. 이 사건의 경우, 서로가 서로를 조금만 더 이해하고,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 조그만 조심했어도 살인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기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은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서로가 서로에 대해 생각하고, 배려하는 삶을 산 과거의 사람들로부터 본받아야 한다. 한 가지 예시로 몰타 섬의 주민들이 있다. 몰타 섬은 작은 섬이지만 주민수가 27만 명에 달하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항상 평화로웠다. 그러나 이 섬에 독일군이 격렬한 공습을 하기 시작하자, 도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외각 쪽으로 이동했다. 도시 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각 쪽에 아는 친척이 없었지

만, 외각 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들을 내치치 않고 친척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덕분에 그들은 독일군이 공습해 올 때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독일군이 폭격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들은 큰 지하병커를 만들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곳에 들어가 생활하였다. 물론 그 곳은 어둡고 위생시설이 잘 안 갖추어져있어서 더러웠다. 이러한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신앙의 힘을 빌렸다. 이 예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서로 더 많이 먹으려고 하지 않았고, 공평하게 나누어 먹음으로써 다 같이 생존하였다. 만약 이러한 일이 현대에 일어났더라면 아마도 서로가 자신의 음식을 지키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어떤 사람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살인이 될지라도,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애를 쓸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남을 조금 더 보고 배려만 한다면, 몰타 섬의 주민들과 같이 서로를 도와주며,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극한의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 이 상황이 혼자한테만 올 수 있고, 아니면 몰타 섬과 같이 한 지역 혹은 국가에 올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내가 만약 저 사람이었더라면, 내가 지금 한 행동은 저 사람에게 피해 혹은 상처를 주었나?’, 와 같이 생각하며 역지사지를 실천해야 한다. 극한의 상황에서는 심리적으로 힘들고 지쳐있어 이러한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땐 심호흡을 길게 하는 등, 평소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찾아 서로서로가 함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나에게 제2차 세계대전 안에서 숨겨졌던, 겸손하고 용맹한 영웅 ‘찰스 헤이즐릿 업햄’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또한, ‘왜 예전과 다르게 현재,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며, 불의에 맞서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까?’라는 의문을 들게 하였다. 몰타 섬의 주민들을 통해 예전사람들의 용맹함, 그리고 서로 간의 배려를 알 수 있었고 우리들도 몰타 주민들같이 한발자국만 물러나서 서로를 이해한다면, 현재와 같이 삭막한 사회는 되지 않을 것이다.

## 4부 태평양 전쟁

### 3학년 안○○

제 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 상 가장 극심한 인명 피해를 낳은 전쟁으로 기록된다. 여러 강대국들의 대립으로 인해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 세계의 경제, 정치, 사회 등 모든 영역이 큰 영향을 받았으며 수천만에 이르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잊어서도, 다시는 반복되어서도 안 되는 인류의 역사이다. 전쟁이라는 비극이 가져온 결과는 끔찍한 후유증과 절망뿐이었다.

사실 지금까지 ‘전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거시적 차원의 이해가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쟁이 개인에게 미친 비극성과 참혹성, 그리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피부에 와 닿도록 생생히 느끼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차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들의 힘겨웠던 상황 속으로 한 발짝 다가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인물은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군인인 토머스 커리 데릭이다. 그는 공로를 인정받아 빅토리아 십자훈장, 수훈장 등 여러 훈장을 수여 받은 중위였다. 군인의 길을 처음 걷게 된 전쟁이 선포되었을 당시 데릭은 결혼 생활에 얼마 접어들지 않은 신혼 부부였다. 행복했던 가정생활을 등지고 전쟁터로 향하는 발걸음은 그 누구보다도 무거웠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개개인 한명 한명에게는 각자 소중한 가족들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오로지 가족을 생각하며 고된 훈련 과정과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항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상상을 하며 전쟁에 임할 것이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책임감을 떠안고 굳은 의지를 다지고 떠났던 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을 경우 느낄 그 슬픔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이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들에게 닥쳤던 상황이라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전쟁의 비극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대목이다.

또한, 데릭이 남긴 편지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어젯밤 얻어맞았소. 이빨이 부러지고 입술이 터졌지. 그래서 나도 녀석을 실컷 두들겨 뒀다오. 지금은 무단 외출에다가 싸운데 대한 벌까지 받고 있다오.” 데릭은 입대 전 고된 생활을 겪어 그것에는 익숙해진 상태라 군 생활에는 쉽게 적응했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쓸데없는 군기 잡기였다고 한다. 특성상 군대 내에서 체벌이 통용된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도를 넘게 군기를 잡는 상관들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모양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당시 여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리고 항상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호지부지 끝나게 된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했다.

데릭은 연합군이 일본군 소탕작전을 진행 중일 때 탄환 하나를 맞아 중상을 입고 다음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총상으로 창자가 터진 것 같다고 말할 때조차 자신보다 다른 부상병을 먼저 후송하라고 명령하던 그였다. 나비 채집, 시 쓰기 등의 감수성이 풍부한 취미생활을 즐겼던 평범한 사람들 중 한명이었다. 전쟁이 발발했다는 이유로 그는 결혼 생활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젊은 나이로 삶을 마감한 것이다.

이어서 두 번째 인물은 민간인으로, 일본 외교관과 결혼한 미국 여성인 그웬 해롤드 테라사키이다. 외국인의 신분으로 전시 일본인의 생활상을 경험했던 특별한 경우이다. 전시 상황에서 여성은 보통 남편을 떠나보낸 채 한 가정을 꾸려 나가야 할 책임을 지니게 된다. 이들의 상황은 군인들과 비교했을 때 또 다르게 느껴졌다. 이들에게 가장 큰 걱정

거리는 식량 문제이다. 당장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에 엄청난 허기에 시달리고, 언제 공습이 닥칠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항상 두려움에 떨며 긴장감을 놓지 못하여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이다.

이들은 적은 양이라도 배급을 받기 위해 몇 시간동안 줄을 서 기다려야 했다. 그웬은 배급 상황에 대해 이렇게 기록한 바 있다. “한 ‘임신한’ 여인이 배급을 기다리는 줄 맨 앞에 섰다. 배급을 타 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그녀의 허리띠 속에 감춰져 있던 쿠션이 밖으로 빠져나와 떨어졌다. 다른 여인들이 아우성을 치자,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는 아이들 7명을 먹여야 하며 90살 먹은 시어머니도 돌봐야 한다고 변명했다.” 그녀는 극심한 굶주림을 참다 참다 못 견뎌서 분장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당장의 먹을거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식만은 굶기지 않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다.

또, 그녀의 일기에는 이러한 사례도 있다. 하루는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조개탄을 한 상인으로부터 매우 싼 가격으로 대량으로 구입했는데 사실 그것들은 검게 염색한 흙덩이였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들이 모두 살기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살고 싶어서 사기 행위를 한 것이다. 전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은 민간인들에게 어떤 것으로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을까. 그들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지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모순적이게도,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만 내보냈다고 한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셈이다. 민간인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였다고 하니, 그들의 고충이 느껴진다. 또한 그웬의 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손톱이 거의 다 없어졌다. 내가 만지는 물건에 핏자국을 내지 않기 위해 나는 손가락마다 붕대를 감아야 했다.” 끔찍했던 나날들을

정말 생생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 전시 상황에서 평범한 민간인들이 겪어야 했던 짐은 너무나도 무거워 견디기 어려운 존재였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한편, 태평양 전쟁은 연합군들이 종전을 위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로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동으로 자주 거론된다. 원폭투하가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시켰고, 그 후 방사능으로 입게 된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연합군 측의 도를 넘은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나 역시 처음에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후 일본 각료들 중에서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에도 전쟁을 계속할 의지를 가졌던 이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어전회의에 참석한 각료 6명 중 3명이 항전을 계속할 것을 주장했다고 하니, 절반이 항복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천황이 항복하는 쪽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 항복하였지만, 몇몇 육군 장교들이 항복 반대 쿠데타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한다. 민간인들이 끔찍하게 대량으로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쟁을 계속할 의지가 남아있었다는 사실이 쉽사리 믿어지지 않았다. 감정을 지닌 인간이라면 국민들의 삶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었어야 한다.

또한 천황이 끝까지 항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참을 수 없는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다가올 모든 세대를 위해 원대한 평화의 길을 닦기로 결심했다’ 등의 뜬구름 잡는 발언을 한 것은 우습게 조차 느껴졌다.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못하는 고집스러운 모습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듯 전쟁이 남기는 상처는 깊으며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과거의 모습을 항상 되새겨야 하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은 없어야만 할 것이다.

## 5부\_동부전선 1941~1945

### 3학년 심○○

1895년 빌헬름 폰 레프는 사관후보생으로서 바이에른 4 야전포병 연대에 입대했다. 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그는 뮌헨의 바이에른 1군단의 참모 장교로 복무했다. 제 1차 세계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병참부장으로 승진한 그는 전후에도 바이마르 공화국 육군에 남아 독일의 위를 위해 헌신했다. 히틀러 정권의 수립 후 나치와 거리를 두면서도 거듭 승진하여 포병대장이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독소전의 준비를 위해 레프는 이 해 가을에 프랑스에서 드레스덴으로 전환 배치되어 1941년 초에 북부 집단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레프는 당시 나치 독일에 의한 야만적인 학살과 히틀러의 전횡에 혐오감을 느껴 직접 히틀러에게 자신을 북방군 사령관에서 해임시켜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했다. 1942년 1월 16일에 레프는 사령관에서 해임되어 총통예비령에 의해 이후 다시는 군무를 보지 못했다. 나치에 비판적이었지만 레프는 생일을 맞이하여 히틀러로부터 25만 라이히스마르크를 하사받고, 바이에른에서 63만 8천 라이히스마르크에 구입한 장원도 하사받았다. 독일이 패망하면서 1945년 5월에 레프는 미군에게 포로가 되었다. 1948년에 열린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레프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포로가 된 지 3년이 넘었었기에 곧바로 석방되었다.

그의 생애는 언뜻 보면 세계 대전 당시 일반 독일 군인들과 별반 다

를 것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가 ‘나치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세계 대전에 참전한 대부분의 독일 고위 장성들이 나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레프는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엄격한 독재 정치 속에서 그러한 양심 고백이 힘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반인륜적 만행 앞에서 그는 양심을 속일 수 없었다. 같은 ‘나치’라는 이름 아래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적극적으로 히틀러에게 순종한 다른 이들과 달랐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나치라는 이름 아래 활동한 모든 나치 당원들을 범죄자라고 불러야 하는 것인가?
2. 권력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왜 위험한가?

레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분명 독일 군대에 충성했고, 독일군으로서 전쟁에 참전했지만, 나치의 반인륜성에 분명히 반대했다. 물론 그가 전후에 히틀러에게 충성하는 서약을 하긴 했지만, 그것은 그의 생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우리가 그의 생애를 모른 채 ‘독일 장교 빌헬름 리터 폰 레프’라고만 들었다면 그도 ‘나치 당원’이라고 치부해버렸을 것이다. 우리는 ‘나치에 충성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치를 이끌었던 몇몇 지도자들과 일부 적극적 지지자들을 제외하면 모두 나치에 진심으로 충성했다기보다는 나치에 세뇌되었다고 보아야 맞다.

『히틀러의 아이들』이라는 책에서 보면 많은 당시 독일 청소년들은 나치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한 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게르만족의 우월성 등과 같은 나치의 사상을 당연하게 배웠다. 인간의 존엄성, 생명 존중 사상 등을 당연하게 배우는 우리와 시작부터가 달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반인륜적 행위임을 알고서도 이를 자행한 히틀러와 그 지도

자들과는 달리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왜 범죄자라고 불려야 하는 지도 모른 채 히틀러의 말을 따랐다. 그래서 전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과 사상이 얼마나 반인륜적이고 비인간적이었는지 배우기 시작했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들은 평생 믿어왔던 ‘나치’라는 사상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것이다.

레프와 히틀러 유겐트(Hitler Jugend)로부터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전쟁을 바라볼 때 선불리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 흔히 전쟁 범죄자라고 불리는 나라에도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본을 ‘범죄자의 나라’라고 부르며 일본 국민들까지 모조리 비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선부른 행동인 것 같다. 영화 『반딧불의 묘』 같은 경우도 사람들은 전쟁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인 듯 영화 내용을 구성했다고 비난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영화에 나온 남매는 정말 전쟁의 피해자가 맞다. 전쟁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나 나치를 이끈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단순히 적국의 사람들이라고, 가해자의 나라 사람들이라고 선량한 사람들까지 같은 범주에 넣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그 사람들의 처지도 이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물론 ‘일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일반 일본 국민들을 겨냥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한 번쯤 이런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것이 보다 편견 없는 시각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깨어 있는 지식인이었다면 당시 나치 당원들 중 일부는 나치의 게르만족 우월 사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불리 나치즘을 부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마 그들의 안위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레프는 완전한 계급이 지배하는 독재 정권 속에서 용감하게 양심 고백을 했다. 사실 히틀러가 왜 그럼에도 레프를 숙청시키지 않고, 오히려 다시 군대에 불러들였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온 레프는 자신의 양심이 허용하는 선에서 독일 군대에 헌신했고, 그 점이 굉장히 멋있어 보인다.

레프의 이러한 태도는 계급, 갑과 을의 관계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회사나 기업에서는 직책에 따라 계급의식이 심한데, 최근에는 ‘갑질’이라는 용어가 새로 생겼을 만큼 그 문제가 심각해졌다. 『삶의 격』이라는 책에서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행동이 자신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옳지 못하다고 한다. 계급 사회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다보면 상사의 비위에 맞춰 자신의 존엄성을 낮추며 행동하기 쉬운데, 우리는 그것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우리의 존엄성을 스스로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레프는 양심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다.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

『서부전선 이상 없다』와

『사랑할 때와 죽을 때』에 대하여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와  
〈사랑할 때와 죽을 때〉의  
공통적인 테마**

서부전선 이상 없다 조 박○○

**CONTENTS**

1. 잔인한 전쟁의 모습 비판
2. 전쟁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애
3. 전쟁의 모순성

PART 1 잔인한 전쟁의 모습 비판

1 of 3



**참혹한 전장의 모습**

PART 1 잔인한 전쟁의 모습 비판

1 of 3



**파괴된 고향**

PART 2 전쟁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애

2 of 3



전우애와 가족애

PART 2 전쟁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애

2 of 3



남녀 간의 사랑

(사진출처 : 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 , 『사랑할 때와 죽을 때』 )

PART 3 전쟁의 모순성

3 of 3



VS



독일의 열쇠공 vs 프랑스의 열쇠공??

PART 3 전쟁의 모순성

3 of 3



아리아인의 정확한 정의란?

## 작가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에 대하여

2학년 황○○

작가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는 1896년 6월 22일 독일의 오스나브뤼크에서 태어나 1916년 열여덟의 나이로 제 1차 세계 대전에서 자원입대하여 서부 전선에 배속되었다. 그는 다섯 번이나 사선을 넘나드는 부상을 당했는데 이때 경험한 참상이 후에 발표한 그의 소설들에 잘 나타나 있다. 그의 소설들 중 하나인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제 1차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하여 학도 지원병 파울 보이머와 그의 학급 친구들, 즉 전우들의 삶과 죽음을 그린 전쟁 소설이다.

주인공 파울 보이머는 바로 작가의 분신인 동시에 전쟁터에 끌려 나간 모든 젊은이들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 곳곳에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대립, 허위의식에 가득 찬 기성세대와 젊은이들의 분노가 드러나 있다. 훈련병 시절에 만난 우편집배원 출신의 분대장 히멜슈토스는 부정적인 기성세대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도 막상 전선에 투입되어서는 꿈무늬를 빼고 두려워하며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 힘으로 신병들을 다스리려 하는 히멜슈토스는 권위주의적인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며, 다른 한편으로 군국주의에 빠진 독일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소설 속에서 파울 보이머를 포함한 전우들에게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었다. '이렇게 변해 버렸는데 평화가 찾아온다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주인공의 말이 자포자기한 병사들의 심정을 잘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쟁은 인간성마저 빼앗았다. 다리 부상으로 다리를 절단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케머리히에게 신을 수 없어진 장



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1930)

화를 탐내며 줄 수 없겠냐고 집요하게 물어보는 필러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나마 극한 상황에서 병사들을 지탱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우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전우들이 하나씩 죽고, 결국 혼자 남은 주인공도 그토록 고대하던 종전을 앞두고 사랑하는 가족 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1918년 10월 어느 날 전사하고 만다. 그날 사령부의 보고서에는 ‘서부 전선 이상 없음’ 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주인공 파울 보이머의 죽음과 그날 군당국이 작성한 보고서는 전쟁의 비정함과 허무함을 절실히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 레마르크는 인간의 생명을 짓밟는 전쟁의 폐해를 보여 주면서 전쟁이 왜 일어나선 안 되는지를 말 하고 있다.

레마르크는 파울 보이머라는 자신의 분신을 내세우며 전쟁의 참혹함을 자신이 본 그대로 서술했다는 점에서 『사랑할 때와 죽을 때』의 작품과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 레마르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만약 제 1차 대전에 지금 나이에 참전한 병사였다면 전쟁의 트라우마로 글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제 2차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인 히틀러 정부는 레마르크의 작가 활동을 탄압했다고 한다. 그가 쓴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그의 정책에 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곳곳하게 세계 1,2 차 전쟁에 대해 이야기를 쓴 그의 집념이 엄청나다

고 느껴진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1차 대전에 직접 참전했던 레마르크의 경험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라면, 『사랑할 때와 죽을 때』는 히틀러 체제가 일으킨 2차 세계대전의 실상, 특히 러시아 전선에서 독일 병사들이 겪었던 참혹한 경험을 묘사한 전쟁 소설이다.

이 소설은 『서부전선 이상 없다』와는 다르게 병사 에른스트 그래버와 그의 동창생이었던 엘리자베스의 사랑 이야기가 암담한 전쟁 속에서 피어난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사랑은 쉽지 않다.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버는 러시아 포로를 살려주고는 그 포로에게 총을 맞아 죽고 만다. 허무한 결말이다. 그러나 『서부전선 이상 없다』 또한 주인공 파울 보이머는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만다. 이런 맥락으로 보았을 때 전쟁이 인간에게 가장 크게 남기는 것은 허무함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내가 추측하건데 에른스트 그래버의 이름에서도 전쟁의 참혹함이 나타나는 것 같다. 에른스트는 독일어로 소리 나는 대로 쓰자면 ‘Ernst’인데, 이 단어 사전 뜻은 ‘위험’, ‘심상치 않은 상태’이다. 이것을 보면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름을 그렇게 배치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다. 또한 책 대목을 살펴보면 그래버는 엘리자베스와 사랑을 나누며 ‘전쟁 중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은 제목에서 ‘사랑하다’의 뜻과는 다르게 ‘살다’라는 뜻의 ‘Leben’의 단어를 왜 사용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기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자체가 그래버에게는 살아간다는 의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보면 그래버는 삼 주간의 휴가 끝에 다시 일선으로 돌아가서 총 만을 쏘는 기계가 아닌 인간이 되어있었다. 그러나 러시아 포로를 풀어주고 그들에게 다시 총을 맞아 죽은 것을 보면, 그래버는 러시아 포로들에게 인간미 넘치는, 자신들을 죽을 위기에서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 아닌 그저 한 명의 적군인 독일 병사일 뿐이었다. 이런 인간의 무자비함과 냉혹함이 레마르크의 『사랑할 때와 죽을 때』에서는 더욱

강조되어 표현된 것 같다. 엘리자베스와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고 직격탄을 맞은 집에서도 살아났는데 이렇게 허무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줄은 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파울 보이머와 『사랑할 때와 죽을 때』의



영화『사랑할 때와 죽을 때』(1958)

그래버는 다른 방식으로 죽지만 독자에게 주는 허무함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또한 레마르크의 전쟁 작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이유이다. 제 1차 세계 대전에서 직접 참전했던 레마르크에게 전쟁 속에서 전우들은

옆에서 계속 죽어나갔다. 파울 보이머와 그래버가 죽는 것 또한 그의 전우들이 죽는 것과 같은 이치였을 것이다. 특별하게 죽지 않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이 점을 통해 전쟁과 같은 암담한 상황에서 기적과 같은 해피엔딩이 아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슬픈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두 책 중 재미를 꼽자면 『사랑할 때와 죽을 때』이지만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아무래도 레마르크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을 책에 담아내다보니 좀 더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두 책 모두 세계 대전의 참혹한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고 싶다면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시대적 배경에 대하여

1학년 최○○

이 책의 배경은 제1 차 세계 대전의 독일의 모습이다.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헝가리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시작으로 제1 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독일의 경우 러시아가 세르비아 지원을 위해 총동원령을 선포하자, 삼국 동맹에 의거하여 동맹국 오스트리아를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선전포고 했다.(1914.8.1) 러시아-프랑스동맹이 성립된 결과, 9전쟁이 시작되면 독일은 러시아-프랑스 양국과의 전쟁이 불가피했다. 1914년 8월 3일, 독일이 프랑스에 선전포고에 이어 1914년 8월 4일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 했다. 결국 독일은 영국이 미국에 도움을 청한 후로부터 부족한 병력으로 패하게 되었다.

이 책의 작가는 실제로 제 1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던 사람으로서 직접 보고 겪었던 전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전쟁 소설이다. 주인공인 파울 보이머와 그의 친구들은 고등학생의 나이로 전쟁에 자원입대한다. 영웅심과 애국심을 실현하려는 그들의 목표와는 다르게 그들은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굶주림 속에서 버텨야했다.



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1930) 중에서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바를 크게 나누자면 첫 번째로 전쟁이 파울 보이머와 친구들에게 남긴 것들이다. 참혹한 전쟁이 그들에게 남긴 것은 조국은 위한 달콤한 죽음이 아니었다. 죄책감, 잃어버린 인간성,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이었다. 그들은 동료가 눈앞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버려야 했으며 하루하루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버텨야 했다. 다리를 절단한 동료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의 장화를 탐내는 모습 속에서 전쟁이 그들의 인간성마저 빼앗아간 것을 알 수 있다. 전쟁 중 파울 보이머가 적군인 프랑스인을 죽이게 된다. 그는 “이 총과 군복을 버리면 너도 캣, 알버트 같은 동료가 됐을 거야.”라고 말하며 오히려 죄책감을 느낀다. 그가 말한 것과 같이 전쟁은 그들 사이 속에서 들지 않아도 될 총을 듣게 만들었다.

고등학생의 나이로 가족을 떠나 자원입대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전부를 바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 그들에게 남긴 것은 전쟁의 허무함과 비정함 뿐 이었다. 기다리던 종전을 며칠 남기지 않고 주인공, 파울 보이머는 전사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전쟁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심지어 그 날 사령부 보고서에는 ‘서부 전선 이상 없다.’ 라고 기록된다. 파울 보이머의 죽음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전쟁에서 개인의 죽음은 한낱 역사의 통계 수치 밖에

되지 않았다.



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1930) 중에서

두 번째로는 제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이다. 제 1차 세계 대전은 왜 일어났을까? 책의 내용 속 “왜 같은 열쇠장이인데 싸우고 있는 거지?”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파울 보이머와 친구들이 모국을 위해 애국심을 실현하려고 전쟁터에 나왔던 것처럼 프랑스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전쟁은 개인과 집단사이에서 생겨난 갈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만을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내가 언급한 ‘국가’는 국민이 아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각 나라들은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컸더라면 이렇게까지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 1차 세계 대전에서 승전했다고 기뻐할 만한 나라는 없다. 승리라고 하기에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이다.



사랑할 때와 죽을 때 줄거리

2학년 배○○○



그래버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으로  
참전하여 러시아에서 싸우고 있다



2년만에 휴가를 얻어 고향에 돌아오지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시골 마을도 공습을 피할 수 없었고  
집과 건물들이 무너져 있다



폐허가 된 거리를 다니며 가족을 찾아다니는 그래버는  
쪽지를 남겨둔 채 마을을 살피본다



거리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인 알폰스 빈딩을 만나 그의 집에 초대되고 부유한 그에게서 많은 도움을 얻는다



마을을 다니던 중 동창생 엘리자베스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이후 남은 휴가를 같이 보내며 사랑을 나누게 된다



휴가가 끝날 때쯤 결혼하는 그레버와 엘리자베스  
공습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사랑으로 극복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터로 복귀한 그레버  
그레버의 부대는 러시아 민간인을 발견하고 포획한다





러시아 포로를 가장 인간적으로 대해주던 그레버는  
혼란한 틈을 타 그들을 모두 풀어준다



그러나 도망치던 한 러시아 남자의 손에는 총이 들려져 있었다  
그가 쏜 총에 맞고 그레버는 정신을 잃는다



## 『서부 전선 이상 없다』와 『사랑할 때와 죽을 때』를 비교하기

2학년 배○○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 『서부 전선 이상 없다』와 『사랑할 때와 죽을 때』를 읽게 되었다. 두 책 모두 독일 작가인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의 소설로 제 1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던 작가가 당시의 경험을 살려 쓴 책이라고 한다. 그의 소설은 반전사상을 잘 나타낸 것으로 평가받는데, 책을 읽으면서 어떤 점이 이러한 반전사상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지 파악해 보려고 했다. 전쟁 상황에 대한 묘사와 등장인물을 토대로 이 점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서부 전선 이상 없다』를 읽으면서 ‘전쟁이란 이토록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소설 속에는 전쟁 상황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20살도 되지 않은 군인들이 전선에서 느끼는 긴장감과 공포감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쓰럽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지금 너무 긴장한 나머지 멍한 상태에 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긴장이다. 두 다리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두 손은 덜덜 떨고 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공포감 때문에 더 이상 서로를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곧 끝나겠지, 곧 끝나겠지 하고 빌 따름이다. 어쩌면 우리는 무사히 살아남을지도 모른

다.’ 앞부분과 같은 문장에서는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극심한 긴장을 이겨내려는 어린 군인들의 심리가 잘 나타나 있다. 작가가 참전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러한 표현이 더 실감나게 다가왔다.

이와 더불어 가족과 전우라는 소재가 전쟁의 참담함을 부각시킨다고 생각했다. 주인공 파울은 휴가를 얻어 가족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헤어지는 아쉬움이 너무 커서 ‘차라리 휴가를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까지 한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야기 속에는 사실 가족보다 전우의 소중함이 더 많이 나타나 있는 것 같았다. 파울과 친구들은 고통스러운 순간도 함께 이겨내려고 노력한다. 음식을 나눠먹고 상처를 돌봐준다. 죽음의 순간까지 곁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전쟁 상황 속 전우란 어떤 존재일까 생각해 보았다.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을 함께 겪은 전우들은 가족들과의 관계를 넘어선 그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위기 상황에 함께 있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낄 것이라고 짐작했다. 이런 전우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면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소설 속에는 그런 장면이 많이 등장한다. 너무나 슬프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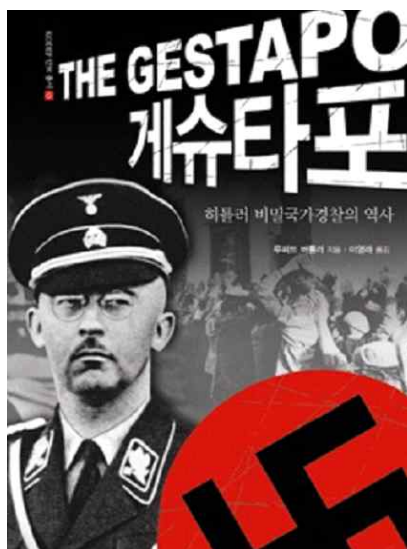
정부와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도 등장한다. “국가와 고향은 정말 다른 거야.,” “우리들은 거의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자, 직공이나 하급 공무원이야. 그럼 무엇 때문에 프랑스의 열쇠공이나 구두 수선공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니? 아니야, 모두 정부가 하는 일일 뿐이야. 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에 끌려 나온 거야.” 이 부분에서 전쟁이란 일반 사람들이 아닌 정부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는 작가의 생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 받는 것을 비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단연 주인공 파울이 죽고 난 후에 ‘서부 전선 이상 없음’이라고 사령부에 보고되는 장면이다. 어린 군인이 죽는 것 정도는 ‘이상 없음’에 해당될 정도로 흔한 일이라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았을 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서부 전선 이상 없다』가 레마르크의 1차 세계 대전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쓰인 것인 반면 『사랑할 때와 죽을 때』는 제 2차 세계 대전 막바지의 나치 독일의 파국을 그린다. 그는 『서부 전선 이상 없다』에서 드러낸 반전사상으로 인해 나치의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 작품 속에서 나치 세력을 비판하는 부분을 많이 찾을 수 있었다.

눈에 띄게 드러나는 부분이 당시의 게슈타포와 친위대에 대한 비판이다. 게슈타포는 나치 독일의 비밀경찰로, 소설 속에서 사람들을 몰래 감시하는 대상으로



등장한다. 주인공 그래버는 휴가를 받아 돌아간 고향에서 부모님을 찾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사람들은 어째서인지 모두 주변을 살피며 입을 열기 꺼려한다. 그래버는 옛 선생님인 폴만 선생님을 찾아가지만, “나는 학교를 그만두었네.,” “그렇다면 내가 파면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겠군. 나는 이제 학생들을 만나지 않아. 그리고 그럴 권리도 없네.”라는 무뚝뚝한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나중에서야 그는 “자네가 경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라고 말한다. 나치 세력으로 인해 사람들 간의 불신이 생겨난 것을 표현한 것이다. 폴만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가 찾아갔던 치글러 부인, 히르쉬란트의 어머니 등이 그를 경계하는 것이 묘사되어 있다. 말을 잘못했다가는 집단 수용소에 끌려가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레버의 연인인 엘리자베스의 아버지 또한 고발당해 집단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집단 수용소와 친위대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은 부분 등장한다. 부패한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인물로 그레버의 옛 동창이자 현재 돌격대장인 알폰스 빈딩이 등장한다. 그는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살고, 고위 간부로서 매일매일 호화스러운 식사와 사치를 즐긴다.

공습을 받아 집들이 파괴되고 시체들이 거리에 쌓여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작가는 이런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입은 피해를 더 부각시키려고 한 것 같다. 작가는 알폰스 빈딩으로 대표되는 친위대 세력과 그 외 나치의 간부 세력들의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습 또한 비판한다. 빈딩은 그레버와 학창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수학 선생인 부르마이스터가 자신에게 망신을 줬던 이야기를 한다. 그 후 그의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난 그자에게 단단히 보복을 해 주었어, 에른스트! 반년 동안 집단 수용소에 집어넣었지. 그자가 풀려 나왔을 때 어땠는지 자네가 봐야 하는 건데! 나를 보고는 잔뜩 긴장해 가지고 거의 오줌을 지릴 정도였지. 그자가 나를 가쳤지만 나는 그걸 원래대로 되돌려 놓은 거야. 어때, 재밌지?” 집단 수용소에 넣어서 보복을 해 주었다는 끔찍한 말을 하는 빈딩은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듯 보였고 심지어 그걸 ‘재밌다’고 표현한다. 이후에는 친위대원이자 집단 수용소 소장인 하이니가 등장한다. 그는 자신이 집단 수용소의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무용담처럼 이야기한다. 그레버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빈딩에게 묻는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나, 알폰스?” 빈딩은 그들이 조국에 대한 반역자라고 말할 뿐이다. 그레버가 수학 선생에 대한 일을 지적하자 “그건 사적인 문제야.”라고 대답하며 집단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답한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

히 할 줄 모르는 사고와 함께 책임을 회피하려는 나치 세력을 비판하는 부분이다.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그레버가 자신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고민하는 부분이다. 그는 폴만 선생을 찾아가 말한다. “저는 우리가 이미 전쟁에 패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계속하는 건 정부와 당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일으킨 인간들이 권력을 좀 더 연장하려고하기 때문이고, 그 결과 더 많은 불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버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전선으로 돌아간다면 공범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섭다고 말한다.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일선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는 계속 죄책감을 느껴야만 할 것이다. 주인공이 이런 철학적 고민을 하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데, 전쟁 상황 속에서도 인간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의 노력이 돋보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결말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그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동료들 총으로 쏘 죽이면서까지 무고하게 잡힌 러시아 사람들을 풀어주지만 그 자신은 정작 달아나는 러시아 사람의 총에 맞아 죽고 만다. 전선에서까지 인간적인 모습을 택했던 주인공이 죽음을 맞는 장면은 전쟁 상황에서 인간성을 지키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슬프고 안타까웠다.

두 책 모두 전쟁의 참담함을 묘사해 작가의 반전사상을 나타낸다는 것이 공통적이다. 특히, 작가가 소설 속에 등장시킨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같은 인물이 비극적인 상황을 부각시키면서,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더 실감나게 느끼게 해 준다. 또한, 작가는 정부를 비판하며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됨을 강조하여 그의 반전 의식을 다시 한 번 드러낸다. 결론적으로, 그가 소설 속에 등장시킨 여러 소재 모두가 그의 반전사상을 전달하는 데 영향력을 미친 것이고, 그로 인해 레마르크가 지금까지도 반전 소설의 대가라고 여겨지는 게 아닌가 싶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와 『사랑할 때와 죽을  
때』에 대한  
또 하나의 비교

2학년 박○○

「서부 전선 이상 없  
다」는 제 1차 세계 대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  
으며, 그 중에서도  
1917년까지 지속되었던

서부전선의 소모전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레마르크는 「서부 전선 이  
상 없다」에서 주인공 보이머를 통한 섬세한 장면 묘사, 인물들 간의  
대화, 그리고 신선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전쟁의 여러 양상들을 비  
판한다.

먼저 레마르크는 군대 체제 전반에 대해 고발한다. 특히 군대의 위  
계서열과 형식주의가 군대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불필요하게 형식을 중요시하는 장교들의 모습은  
날카롭게 비판한다. 예를 들어, 황제가 중대를 방문하여 연설을 할 때,  
병사들은 모두 군복과 무기를 신품으로 지급받는다. 하지만 황제가 돌  
아간 뒤에는 다시 옛날 물건으로 교체한다. 병사들이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을 통해 무의미하게 군력을 낭비하는 군대 내 관료주의에 비판적인 레마르크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레마르크는 어린 신병들을 군인으로 변화시키는 군대의 교육이 지나치게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했다. 그 중 보이머와 그의 동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거의 다 마친 시점에 징발되어 각자 가지고 있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모두 빼앗긴 채 전쟁을 위한 인간으로 변화되었다. 보이머의 생각에서 그와 동료들의 시련을 엿볼 수 있다.

“열여덟 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과 현존재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에 대고 충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으로 터진 유탄은 바로 우리의 심장에 명중했다.”

급격하게 자신들의 생활과 신념이 바뀌어버린 어린 청년들은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레마르크는 이러한 군대의 훈련체제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두 번째로 레마르크는 전쟁이라는 행위 자체의 모순성을 고발한다. 이는 작품 전체의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특히 보이머과 동료들의 생각에서 드러난다.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것이 물자와 인명피해를 감수하고도 그들에게 이득이 있을 때 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쟁을 실제로 경험한 군인들은 그들 중에서 아무도 전쟁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소수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전쟁의 모순을 지적한다.

또한 보이머는 야전병원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보며 전쟁의 참혹함과 공허함을 되새긴다. 보이머가 병원에서 군인들을 보고 생각한 이 한마디는 레마르크가 직접 전쟁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전쟁의 부조리함을 집약하여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대대적이니 유혈사태, 수십만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러



<War 2> by Latuff2

(출처 : [http://latuff2.deviantart.com/art/](http://latuff2.deviantart.com/art/War-2-27832944)

War-2-27832944)

한 감옥을 수천 년의 문화로도 막지 못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얼마나 거저되고 무의미한 것인가.” 사람들은 오랫동안 인간의 문화가 발전해왔다고 하지만 전쟁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야만성은 문화적인 인간의 면모로는 보기 힘들 정도인 것이다.

다음으로 레마르크는 군인들의 가치관 상실에 대하여 말한다. 군인들은 전시상황을 겪으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관을 잃어버렸다. 생명존중, 정상적인 사고방식, 문화적 감성과 같은 인간적인 도리와 감정이 공포와 강한 생존욕구로 인하여 닳아버렸다. 이는 보이머가 겪고 목격한 순간들에서 잘 알 수 있다.

“만약 당신의 아버지가 저편에서 적들과 함께 돌격해 온다 해도 당신은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의 가슴을 향해 수류탄을 던질 것이다!”

“말들, 말들, 말들, 그 말들은 나의 폐부를 찌르지 못한다.”

참호에 갇혀 있다는 것에 끔찍한 공포를 느끼는 ‘참호병’에 걸려 총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벌판으로 뛰어나가는 신병의 모습에서나, 살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가족마저도 알아보지 못하고 공격하겠다는 보이머의 생각에서나 일반적인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혼란스럽고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전선에서는 당연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이머가 군대에 자원하기 전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을 다시 읽으면



서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장면에서 문화적 감성과 공감 능력마저 잃어버린 청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레마르크는 전쟁과 무관한 일반 시민들을 비판한다. 그들은 전선의 잔인한 실상을 모른 채 전쟁에 호의적이기까지 하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강제징집이 있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군대지원을 하도록 유도하는 보이며 반의 담당 선생님 칸토레크는 오랜 사회생활 경력을 마치 권력처럼 남용하여 학생들이 옳지 않은 신념을 갖게 했다. 전쟁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믿고 있던 그는 아이들에게 전쟁의 타당성을 강요하고 군대에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선택지가 옳다고 우겼다. 이는 소중한 생명이 더 빨리 희생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고방식으로부터 학생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을 유발했다.

또한 보이머가 휴가를 받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동네의 어른들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마을에서 여러 추측과 예상만 늘어놓는다. 이들은 끔찍한 전방의 실상은 모르지만 말로만 그럴 듯하게 떠든다. 그들의 모습으로부터 전쟁의 실제 모습은 모르는 채로 국익이나 전반적 그림과 같이 추상적인 것만 생각하는 일반 시민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레마르크가 16년 뒤에 출판한 「사랑할 때와 죽을 때」는 그 다음 세대의 전쟁인 제 2차 세계 대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레마르크는 이 소설에서도 그의 다른 작품들 같이 반전(反戰)을 주제로 다룬다. 하지만 전쟁의 배경이 된 민족주의를 다룬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주인공 에른스트 그래버의 휴가 기간이 주가 된다는 점에서 「서부 전선 이상 없다」와는 차이점을 갖는다.

특히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이유가 독일의 파시즘과 나치즘인 만큼 이 소설에서는 이와 관련된 모순성을 여과 없이 비난한다.

군인수송열차에서 군인들이 다투는 내용을 통해 ‘아리아인’의 가치가 사실은 혈통이 아닌 독일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임의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아리아인’은 그들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러시아인은 아리아인이 아니야.”**

[..] / “그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들도 아리아인이야. 그들도 한때는 우리와 동맹국이었어.

[..] / “네 말은 틀려. 폴란드인, 체코인, 프랑스인 들이 열등 인종이야. 우리는 러시아 사람들을 송산주의자들로부터 해방시켰어. 그래서 그들은 아리아인이야. 공산주의자들은 빼고.”

[..] / “사정이 바뀐 지 오래됐어. 일본인들처럼 말이야. 전쟁에서 우리의 동맹국이 된 이후로 일본인들 또한 아리아인이야.”

이 소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레마르크는 전쟁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부각하여 전쟁에 반대하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 죽은 독일 장교가 눈 속에서 발견되고 병사들이 그를 발굴한 뒤 다시 매장하는 장면에서 역시나 철저한 위계질서에 따라 남용되는 군력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러시아 게릴라들을 총살하는 장면에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상실한 군인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서부 전선 이상 없다」와는 달리 「사랑할 때와 죽을 때」에서는 공간적 배경이 달라짐에 따라 그래버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레마르크는 이 두 공간과 가치관을 극명하게 대립하여 이전의 가치관을 비난한다.

먼저, 그래버가 휴가를 가기 전까지 그는 전쟁을 합리화하는 동료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상명하복의 체제에 순응하고 별달리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는 군대의 일반적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 살았다. 또한, 그는 전쟁의 진정한 의미와 인간이 갖춰야 할 올바

■ 전쟁을 돌아보고 평화를 생각하다

른 태도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 그레버의 전우 프레젠부르크의 말에 대한 그의 대답에서 그의 무감각한 사고가 나타난다.



하지만 휴가를 명령받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레버는 사랑을 계기로 하여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 그는 전장에서의 자신의 행위를 ‘범죄’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지에 대해 고민한다. 그는 학창시절에 종교 과목을 배웠던 폴만 선생님을 찾아가 속죄하고 인간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그는 자신의 존재를 전방의 수많은 병사들 중 한 명으로 가볍게 평가하던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해주기를 바라게 된다. 레마르크는 이렇게 상반된 사고방식의 변화를 참혹한 전방의 모습과 일부가 파괴되었지만 아름다운 고향의 이미지를 대조하여 더욱 부각시킨다.



영화, 『A time to love, a time to die』(1958)

## ■ 전쟁을 돌아보고 평화를 생각하다

그리고 소설의 결말에서 그레버는 무죄인 것이 확실해 보이는 러시아인 포로들을 풀어주고 친위대원인 슈타인브레너에게 총을 쏜다. 레마르크는 마지막으로 그레버가 선택한 것이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적 도리를 지키는 길임을 보여주면서 전쟁에 대해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이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서부 전선 이상 없다」와 「사랑할 때와 죽을 때」 모두 전쟁을 비판하고 당시 전쟁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반전 소설들이다. 비록 시대적 배경이나 주가 되는 요소들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작가 레마르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동일하다. 전쟁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이로 인한 사람들의 괴로움이 훨씬 더 크고 오래 지속된다. 지금과 앞으로의 사람들은 그의 소설들을 통해 끊임없이 전쟁을 경계하며 평화의 소중함을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스페인 내전에 대한 문학적 보고서

어니스트 헤밍웨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조지 오웰, 『카탈로니아 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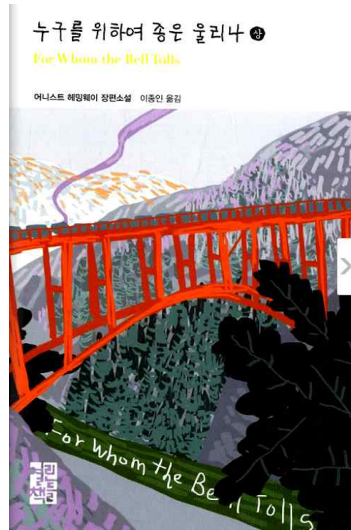
역대문학번역 46

### 카탈로니아 찬가

Homage to Catalonia

조지 오웰 장영익 옮김

민음사



## 어니스트 헤밍웨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 대한 개략적 소개

1학년 이○○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스페인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헤밍웨이가 스페인 내전을 바탕으로 쓰였다. 이 소설은 스페인 내전이 끝나는 시점에 집필이 되어 1940년에 출판되었다. 스페인 내전의 역사적 계기로는 19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스페인은 공화파가 집권하고 있었는데 이에 반발하는 프랑코를 중심으로 하는 스페인 군부에서 반란을 일으켜 내전으로 확대되었던 전쟁이었다. 헤밍웨이는 파시스트에 대항하였고 스페인 공화파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앰블런스 운전기사로서 직접 참전하였다가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 소설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대표적 장편소설 중 하나로 행동주의 소설의 대표작이다. 이 글에 남성적인 문체인 '하드-보일드(hard-boiled)문체가 사용되어 간결하고 템포가 빠른 느낌을 준다. 특히 이 소설은 독특한 구성을 보이는데 이는 삭막한 전쟁 장면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병행함으로써 여인과의 사랑과 전쟁의 비극에 대한 지식인의 주체적 결단, 죽음을 초월한 용기와 사랑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반영한다.

소설 속 인물인 미국의 젊은 대학교수, 로버트 조던은 에스파냐 내전에서 반(反)프랑코파의 골즈 장군 휘하의 게릴라 부대에 참가해 세고비아 남쪽 과다라마 동굴지대에서 생활하게 된다. 부대에서 만나게 된

마리아라는 여인의 아버지는 시장이었지만 곧 파시스트에게 총살당하게 되고 마리아는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지게 된다. 게릴라 부대의 대장인 파블로에 의해 구출된 마리아는 게릴라 부대에서 우연히 조던과 만나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마리아는 점차 안정감을 되찾아가게 된다. 조던과 마리아는 적군의 중요한 교량을 폭파하는 임무를 맡아 작전에 성공하지만 임무 수행 도중 조던은 적탄에 맞아 쓰러진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마리아에게 떠날 것을 당부하곤 홀로 남아 기관총을 잡고 동료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장면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조던의 결단은 전쟁이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자기의 신념에 의한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조던은 회의를 극복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는 점에서 《무기여 잘 있거라》의 회의적 모습을 떠는 헨리와 대조된다.

자진하여 반(反)파시스트 의용군에 참가한 헤밍웨이가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한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이 폭파 임무를 수행하는 3일 동안의 주인공의 경험을 중점으로 한다. 열렬한 공화정부 지지자인 여걸형(女傑型)의 필러, 기타 개성이 강한 등장인물들이 생동감 있게 묘사되었으며 소설의 일부분인 '어떤 이의 죽음도 나 자신의 소모려니 그건 나도 또한 인류의 일부이기에, 그러니 묻지 말지어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느냐고,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것이다.(Any Mans Death Diminishes Me, Because I am Involved In Jaankinde; and Therefore Never Send To Know For Whom The Bell Tolls It Tolls For Thee.)'라는 구절은 이 소설의 제목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는 개인과 인류와의 관계, 이 지상의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의 위기와 전 세계의 자유와의 관계, 개인의 무력함과 연대책임의 중요성을 냉철하게 시사하고 있다.

## 어니스트 헤밍웨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 대한 짧은 감상

2학년 정○○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장편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작가가 직접 스페인 내전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라서 내전 전개 상황과 당시 스페인 사회와 사람들의 생활상이 현실감 있게 나타난다. 주인공 로버트 조던이 맡게 된 다리 폭파 임무를 둘러싼 산 속 게릴라 부대원들과의 갈등과 협력, 마리아와의 사랑, 로버트 조던의 죽음까지 이 모든 일들이 나흘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다는 게 믿기지 않는 사이 이 소설은 끝이 난다.

### 스페인 내전에 대하여

이 소설을 이해하려면 스페인 내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스페인 내전은 1936년 군부세력인 프랑코파의 반란으로 인해 발생했다. 공화파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아나키스트, 자유주의자, 민주주의자로 이루어졌고 프랑코파는 스페인의 로마 가톨릭 교회, 군부 세력, 토지 소유자, 기업가로 구성되었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각국과 미국에서 온 대규모 지원병 부대로 이루어진 국제 여단은 스페인 인민전선정부를 도와 공화파의 편에 섰고 이에 반해 프랑코파는 독일과 이



탈리아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스페인 내전을 통해 드러난 파시즘과 자유주의 사이의 국제적 갈등은 스페인 내전을 제 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었다. 약 3년에 걸친 내전이 끝난 후 프랑코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정부주의 운동의 거점이었던 카탈로니아와 바스크 지방은 프랑코 군에 의해 수십 년간 공포 정치에 시달렸다. 프랑코 사후 자치권을 얻은 카탈로니아와 바스크 지방은 스페인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원하며 여전히 독립 시위를 활발히 벌이고 있다. 이 두 지방은 스페인 연간 지역내총생산 1,2위를 다투는 가장 부유한 주이며 카탈로니아어와 바스크어가 따로 존재할 만큼 이 지방 사람들은 스페인의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 언어,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다.

### 공화파 vs 파시스트

소설의 배경이 된 스페인 내전은 공화파와 파시스트들이 각각 국제 여단, 나치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으며 1936년에 발발해 3년 동안 일어난 전쟁이다. 스페인 국민들이 공화파와 파시스트로 편을 나눠 격렬히 싸웠는데 한민족이 둘로 갈라져 싸우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떠오르게 했다. 6·25 전쟁문학을 읽고 동족상잔의 슬픔을 느꼈었는데 스페인 내전은 또 하나의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한과 북한이 그랬듯이 공화파와 파시스트들은 서로를 잔인하게 죽였다. 파시스트들은 공화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을 사람들을 총살하고 마리아와 같은 여성들을 데려다 머리를 삭발시키고 강간을 한 후 감옥으로 이송시켰다. 마리아가 로버트 조던에게 고백하는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마리아의 처지에 저절로 동정심이 생겼고 파시스트들의 만행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특히 마리아의 부모님이 총살당할 때 마지막 말로 한 말이 인상 깊었다. 아버지는 “공화국 만세”라고 외쳤고 어머

■ 전쟁을 돌아보고 평화를 생각하다

나는 “이 마을의 촌장이었던 내 남편 만세”라고 말씀했다고 하는데 죽음의 순간에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당당히 죽은 마리아의 아버지의 모습과 아내 역시 그런 남편을 마지막 순간에 존경심을 표하며 죽었다는 게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본 마리아가 그분들의 뒤를 따라 명예롭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마리아로부터 부모님이 총살당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래 그림과 같은 장면이 떠올랐다. 아래 그림은 스페인 출신 화가 고야의 작품으로 마드리드 폭동을 진압하는 프랑스군의 모습인데 아마 파시스트들에 의해 목숨을 잃은 마리아의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 역시 아래 장면과 같았을 것이다.



「고야, 1808년 5월 3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4927&mobile&cid=46720&categoryId=46824>)

공화당원들은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는데 그들 역시 마을에 쳐들어

가 파시스트 당원들을 죽였다. 파블로 부대와 마을 사람들이 파시스트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필라르의 설명을 듣다보면 그 잔인한 수법에 그동안 마을 사람들을 못살게 굴어왔던 파시스트들보다 마을 사람들이 더 끔찍하게 느껴졌다. 파블로의 명령에 따라 두 줄로 늘어선 마을 사람들은 그 사이로 한 명씩 지나가는 파시스트 당원을 손에 들고 있는 각종 농기구로 내리치다가 그가 쓰러지면 절벽 아래로 던진다. 처음에는 평소에 마을 사람들이 파시스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증오의 감정이 얼마나 크면 자기도 남을 때리면서 분명히 고통을 느낄 텐데 직접 손에 무기를 들고 일어났을까 하며 그들의 심정을 이해했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파시스트들을 죽이면서 서서히 난폭해지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겁이 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급기야 시청에 쳐들어가 그곳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파시스트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자 그곳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생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게릴라 부대원들과의 갈등과 협력

스페인 내전에서 로버트 조던이 맡은 임무는 파시스트군이 이용할 수 없도록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로버트 조던은 산속 게릴라 부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는데 처음에 그가 아무도 신뢰할 수 없다며 게릴라 부대원들을 경계하는 모습이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나 역시 누구를 믿어야 할지 생각하며 책을 읽었는데 나는 안셀모 영감이 처음부터 로버트 조던에게 친절히 대하며 다리 폭파 지점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정찰 임무도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통해 믿음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안셀모 영감이 고령의 나이로 고생하는 게 안타까웠고 꼭 살아남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런지 안셀모 영감의 죽음은 더욱 안타깝고 허무했다. 안셀모 영감은 다리에 폭탄을

설치하는 일을 도왔고 마지막에 폭과 스위치까지 누른 인물인데 그런 사람이 다리 폭파할 때 날아온 파편에 맞아 목숨을 잃는다는 전개가 마음에 안 들었다. 왜 꼭 안셀모 영감이 죽어야 했는지 의문이었고 단지 로버트 조던의 임무 수행을 성실히 도왔을 뿐인데 그가 자폭 스위치를 누르고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게 되어버려서 마음이 안 좋았다. 로버트 조던 역시 근처에 몸을 피하고 있었는데 왜 그는 안 죽고 애꿎은 안셀모 영감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안타까운 마음만 들었다. 그동안 파시스트 진영을 왔다 갔다 하며 위험한 임무 수행에도 살아남은 안셀모 영감이어서 그 죽음이 더욱 더 허망했다. 안셀모 영감의 죽음은 파블로의 탓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는 처음부터 다리 폭파 작전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결국 폭파기가 든 나무 상자를 들고 달아나 버린다. 파블로만 아니었다면 좀 더 먼 곳에서 다리를 폭파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안셀모 영감이 파편에 맞아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파블로의 경솔한 행동에 비난을 퍼붓고 싶었다. 더 이해할 수 없었던 파블로의 행동은 그가 폭파기를 버린 후 작전 당일엔 마음을 바꿨다면서 돌아온 것인데 나는 이제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고 작전 수행 도중 또 방해나 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다. 하지만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파블로는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다음 퇴각까지 재빨리 했는데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파블로는 공화파의 승리에겐 관심 없이 그저 자기 한 목숨을 지키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로버트 조던과 마리아의 사랑

나는 다리 폭파 작전을 수행하던 중 로버트 조던이 마리아와 사랑에 빠진 것은 성공적인 임무 수행에 별 도움이 안 됐다고 본다. 임무 수행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때 사랑에 빠져 이루지도 못할 마리아와의 행복

한 결혼 생활을 꿈꾸는 로버트 조던이나 그를 보고 첫눈에 반해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가 가는 곳은 어느 곳이나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마리아를 보며 목숨을 건 임무를 앞둔 와중에 그런 사랑이 가능한가 싶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한지 나흘 째 되는 날 로버트 조던은 심각한 부상을 입어 더 이상 같이 도망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마리아에게 자신을 두고 떠나라고 말한다. 나는 로버트 조던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거짓말이라면 그는 마리아에게 말을 타고 도망갈 때 중간이 가장 위험하다면서 맨 앞에 가라고 자신은 맨 끝에 갈 거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로버트 조던과 게릴라 부대의 도망경로를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면 나는 맨 앞에서 말을 몰아 도망가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고 뒤로 갈수록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맨 처음 말을 타고 도로를 건널 경우 적군들이 나를 발견하고 포를 조준하는 사이 길을 다 건너 반대편 숲속에 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맨 마지막으로 도망가다 보면 그 사이에 적들이 나를 맞출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걸 알았는지 자기 목숨은 끔찍하게 생각하는 파블로가 제일 먼저 도로를 건넜고 다른 게릴라 멤버들도 필사적으로 달려 가까스로 대포알을 피했는데 맨 마지막에 달린 로버트 조던은 결국 목숨을 잃는다.

이 소설은 로버트 조던의 나흘도 채 안 되는 다리 폭파 임무를 다루고 있지만 책의 쪽수는 거의 800페이지에 달한다. 책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진 데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로버트 조던의 내면 의식서술과 등장인물들의 과거 회상에 있는데 이를 통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작전 수행을 앞둔 인간의 심정과 당시 스페인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다. 하루하루 다리 폭파 날짜가 가까워지자 로버트 조던은 용감한 군인이었던 자신의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용기를 얻으려고 한다. 이런 로버트 조던의 모습을 통해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돈, 명예, 권

■ 전쟁을 돌아보고 평화를 생각하다

력 같은 세속적인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오로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신의 죽음을 슬퍼할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로버트 조던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떠올리며 목숨을 잃고 마는데 다른 사람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여 주기 위해 끝까지 정신을 붙잡고 있는 그의 모습에 감동받았다.

## 스페인 내전에 대한 또 다른 접근

- 조지 오웰, 『카탈로니아 찬가』를 읽고

1학년 이○○

우리 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스페인 내전에 대한 알고 싶어서 주제를 스페인 내전으로 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카탈로니아 찬가』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책을 통해 스페인 내전에 대해서 알았기 보다는 책을 읽고 나서 인터넷을 통해 찾아봐서 안게 된 것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다. 인간 불평등, 조직 사회가 지배하는 인간의 자유의 주제에 집착하던 저자 조지오웰은 스페인 내전에 종군 기자로 갔다가 스페인 현지에서 내전에 통일노동자당의 의용으로 참전했다. 그는 목에 총알이 관통당하는 부상을 입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영국으로 돌아왔다. 직접 프랑코의 파시즘과 대항했던 그는 혁명을 위해 대항하는 사람들과 전선의 상황은 신경도 쓰지 않고 정치적인 경향으로 흘러가는 상황과 파시즘에 대항했던 세력들의 분열에 대해서 자신이 보고 느낀 바를 기록해 낸 책이 카탈로니아의 찬가이다. 카탈로니아 지역은 스페인의 동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축구로 유명한 바르셀로나가 포함된 지역이다.

스페인 내전은 안으로는 자유와 평등을 위한 전쟁이었고 겉으로는 세계 2차 대전의 도화선이다. 조지 오웰은 당시 종군기사로써 스페인에 갔지만 혁명에 매료되어 이 전쟁에 뛰어든다. 오웰은 평범한 민병대로서 이 전쟁에 참여하였는데 공화당이 분열되자 공산당의 음모로 오웰이 속

한 통일노동자당이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웰은 목에 총의 부상을 입은 후 스페인에서 빠져나와 프랑스로 도망쳤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 완성한 작품이 카탈로니아 찬가인 것이다. 이 작품은 정의와 평등을 위해 투쟁하는 양심의 기록이며 또한 혁명의 약속과 배반 그로부터 비롯된 좌절과 환멸의 작품인 것 같다.

나는 조지 오웰의 『카탈로니아 찬가』를 읽고 전쟁이 현대인들이 흔히 영화에 나올 법하다고 생각하는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하는 격렬한 전투는 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책의 내용에 의거하자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폐렴이었다. (중략) 물론 부상자는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 입은 부상이었다.”,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추위를 피하고 먹을 것을 확보하는 일 이었다” 등이 있다. 이런 구절들을 읽고 나서, 오히려 실제 전쟁이 일어나서 사망자가 발생하기 보다는 추위나 질병 혹은 식량 부족 때문에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고 좀 놀랐고 신기했다. 책을 읽을 때 실제 전투 상황이 나오기 보다는 이런 구절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추위나 식량부족 외에도 의용군은 무기도 부실했다. 조지 오웰이 받았던 소총은 8백 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사람이 아닌 큰 짐도 못 맞출 그런 부실한 총이었다. 또한 병력도 부족해서 보초 근무와 경찰 외에도, 야간에 경보가 울리면 언제든 지 경계 태세에 들어가야 했다. 파시스트 진영과 정부 의용군은 총알이 간신히 닿을 정도로 떨어진 거리를 두고 대기만 하면서 전쟁의 거의 대부분 시간을 보냈다. 밤에는 상대 진영을 향해 확성기로 항복 혹은 탈영을 유도하는 말을 했다. “우리 군에서는 아침마다 빵에 버터를 발라 먹는다.”와 같은. 식량이나 빨감 같은 생활자재들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고 탈영하는 파시스트 군인들이 있었다고 한다.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전체주의도 일개 병사의 배고픔을 달래주지는, 참게 하는 힘을 갖지는 못했나보다.

그들은 또한 다양한 사상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로써 내부 분열로 통일되지 않았고, 열악한 무기와 보급의 부재로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전폭적인 지원을 입은 프랑코 측 파시스트들을 이길 수 없었다. 결국 스페인 내전은 조지 오웰의 생각과는 다르게 파시스트의 승리로 끝났다.

언론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을 아군에게 유리하게 날조한다. 여러 매체의 보도는 사실에 무지한 대중에게 편견을 심어주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수많은 당원들이 죽어나갔다. 이런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

공산당의 음모와 잘못된 보도로 인해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프랑코에게 지고 만다. 나는 우리가 아직도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속보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실치도 않은 일을 단언하듯 말하고, 언론 정신을 잃은 그들은 그저 알 권리만을 외치며 자극적인 발언만 외치낸다. 전 세계에서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파시스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스페인에 모였듯이 국민들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지 오웰도 사실 정치적인 생각을 하고 스페인으로 간 것은 아니다. 자신의 이념조차 몰랐던 것으로 조사된다. 오웰은 좌파의 입장이었는데 그가 속했던 것은 통일노동자당이였다. 당신은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오웰은 식량만 축 냈습니다 라고 밖에 대답하지 못했다.(96쪽) 그는 죽지 않기 위해 스페인을 떠났고 그의 입장에서 파시즘에 대한 대항에 아무런 힘도 신지 못했다. 그 후 오웰은 자신의 재능인 글쓰기를 통해 분노를 표출했고 이것은 『카탈로니아의 찬가』를 통해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과 경각심을 불어주었다. 그의 입장에서 전장에서는 무능했던 자신이지만 결국은 진실을 호도하게 되었다. 『카탈로니아 찬가』는 같은 소재를 다룬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와 비교될 수 있다. 두 작품 모두 자유와 평등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헤밍웨이의 작품은 스페인 내전의 이야기의 배경을 둔 반면 카탈로니아 찬가는 스페인 내전 자체를 이야기로 이끌어 내고 있다. 오웰은 작품 속에서 수많은 당파들의 입장들을 밝혀내고, 내전의 핵심이 되는 사건을 분석하고, 또 자신의 사상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또 참

호전에 대해 자세하고 현실감 있는 묘사가 돋보이고 자신의 일기를 쓰는 듯한 묘사에는 자신의 경험이 녹아 있다.

파시스트에 대항해 자유와 평등, 불의에 대해 대항하는 지식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고민하고 이루고자 한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전 세계 많은 곳에서 헤밍웨이, 피카소, 카파, 조지 오웰 같은 20 세기가 자랑하는 저명한 인사들이 목숨을 걸고 참여한 모습을 보며 그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끝으로 언론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사실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이 책을 읽은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 2차 세계대전의 참상

### - 유대인 문제와 나치즘을 중심으로

타티아나 드 로즈네, 『사라의 열쇠』

권터 그라스, 『양철북』

아트 슈피겔만, 『쥐』

베른하르트 솔링크,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영화 : 데니스 간젤, 『디 벨레(Die Welle, The Wave)』

## 『사라의 열쇠』를 열기 위한 열쇠

2학년 김○○

『사라의 열쇠』는 제 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에서 비시 정권하에 있었던 벨디브 일제 검거 사건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다. 벨디브 사건은 다른 이도 아닌 프랑스 경찰들이 파리에 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철저히 검거해 당시 경기장으로 쓰이던 벨디브 사이클 경기장에 그들을 며칠간 가두어 둔 후 아우슈비츠로 이송해 가스실에서 죽였던 사건이다. 나치의 명령 때문이라고는 했지만 충격적이기 그지없는 사건이다.

사실 이 책을 접하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건인데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후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동안 나치가 저질렀던 일들만 대략 알고 그 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내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독일에서만 일어난 줄 알았던 일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그것도 자국 경찰에 의해 일어났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다. 책을 통해 이제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라의 열쇠』를 읽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책이 사소한 디테일까지 신경 쓴 것 같다는 것이었다. 일단 등장인물이나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비록 소설임에도 실화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실제 지명, 그리고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런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와서 읽는 내내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지 않았나 싶다.

또한 이 책에서는 1942년 사라의 이야기와 2002년 기자 줄리아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며 나오는데, 사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에는 열쇠 그림이 있고, 줄리아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는 자물쇠 그림이 나오는 것도 섬세하지 않았나 싶다.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나름의 의미 부여를 하자면 사라는 남동생이 숨어있는 벽장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니 당연히 열쇠 그림이 있고, 사라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기 전까지 줄리아는 끊임없이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며 어떻게 보면 잠겨있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열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니까 자물쇠로 표현한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다. 사라의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던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되어주는 것이고 말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눈에 띄었던 요소는 단연 두 시대를 오가는 이야기 구조인데, 1942년과 2002년을 오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두 이야기가 이어지는 구조가 신선했고 몰입도를 높여준 것 같다. 이야기 자체도 지루하지는 않았지만 한 이야기가 지루해 지지 않게 지루해질 법하면 시대가 바뀌어 다른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니 두 이야기를 모두 따라가기 위해 절로 집중하게 되지 않았나 싶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책의 제목이기도 한 사라의 ‘열쇠’다. 사라의 가족들이 경찰들에게 끌려갈 때 사라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였다. 금방 돌아올 수 있을 줄로만 알았던 사라는 남동생에게 비밀 벽장 속에 숨어있으라고 한다. 하지만 남동생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먼 곳으로 끌려가게 된다. 사라는 전부터 알고 있던 경찰의 도움으로 친구와 함께 도망치지만 사라의 부모님은 아우슈비츠로 강제 이송된다.

결국 사라는 마음씨 좋은 노부부를 만나 파리로 돌아가게 된다. 이 긴 시간동안 늘 사라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벽장 열쇠이다. 남동생 미셸에게 한 약속만을 생각하며 파리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파리에 있던 자신의 집에 돌아갔을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 다른 가족이 그 집으로 이사를 와 버렸고, 동생은 물도 먹을 것도 없는 벽장 속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는 것이다. 사라가 동생을 발견하고 오열하는 장면에서는 나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라의 이야기는 그쯤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책에서 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줄리아의 이야기이다. 줄리아는 프랑스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프랑스에서 잡지 기자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미국인 여성이다. 줄리아도 사실 나름대로의 고충이 많은 인물로 그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게 해주는 것 같다.

그런데 줄리아가 더욱 주목됐던 이유는 사실 줄리아가 작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책인 만큼 작가의 목적은 사건을 소설 속에 녹여내어 알기 쉽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함이지 않을까 싶은데 줄리아 또한 숨겨진 사실들을 알아내서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작가 대신 작가의 목적을 잘 드러내 주고 있는 것 같다.

사라에 대한 비밀을 파헤침에 있어서 줄리아의 대담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도 줄리아를 다시 보게 만들었던 것 같다. 사실 본인의 삶이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줄리아는 남편을 신경 쓰고 남편에게 찢찢매는 그다지 용감한 인물은 아니다. 그렇지만 사라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놀라울 만큼 집착과 추진력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의 인

생까지도 바꾸어놓게 된다. 사라의 이야기만 줄줄 늘어놓는 것보다 줄리아라는 인물이 그 이야기를 파헤쳐가는 과정을 통해 내용이 더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효과를 준 것 같다.

사실 전혀 접점이 없을 것만 같았던 1942년의 사라와 2002년의 줄리아 사이의 접점은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다. 사라의 집으로 이사 왔던 그 가족이 알고 보니 줄리아의 시댁이라니. 이 얼마나 영화 같은 일인지. 그렇지만 또 아예 현실성이 없는 설정도 아니어서 그저 놀랍다는 생각만 들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았던 것은 사라의 죽음이다. 수용소에서 탈출해 좋은 가족을 만났지만 결국 어릴 적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택한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 부모님을 잃고, 동생이 죽은 모습을 직접 보았을 상처가 얼마나 클 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이름도 바꾸고 미국으로 떠나 노부부와 연락조차 끊었지만 아무도 자신의 본모습을 모르는 채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큰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을 배우게 되어 의미 있었고 앞으로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셜 속 사라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영화로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가 주는 색다른 감동도 느껴보고 싶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흥미로운 책이었던 것 같다.

## 『사라의 열쇠』와 전쟁

1학년 김○○

우리가 역사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는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는 지표일 것이다. 현재 세계 역사의 오점으로 남은 것들이 있다. 과거의 아픔은 현재까지 전승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처를 똑바로 보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자기 나라 역사의 치부를 똑바로 보고 이를 세계에 고발한 책이 있다. ‘타티아나 드 로즈네이’작가의 『사라의 열쇠』가 그 예이다.

『사라의 열쇠』는 전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소설은 아니다. 하지만 역사 속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였던 홀로코스트의 잔해인 ‘벨디브 사건’이 소설의 기반이 된다.

‘벨디브 사건’의 전개는 책 『사라의 열쇠』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사라가 의문을 갖던 유대인 가슴 위 노란별은 그들을 차별하기 위한 제도에 의한 것이었다. 프랑스 경찰들이 유대인들을 잡기 위해 들이닥치는 장면을 통해 당시 프랑스 시민들의 인식을 알 수 있다. 몇몇 사람들은 그들을 욕하기도 하고,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숨는 것을 돕기도 한다.





(영화 『사라의 열쇠』에서 경륜장 근처에 살던 주민의 대사) “문을 한동안 열지 못했어요. 소음 때문이 아니라 악취 때문에.” 를 통해 당시 사건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프랑스는 당시 ‘유태인의 구원자’라고 불릴 정도로 유태인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그렇기에 1만 여 명의 유태인이 학살된 이 사건은 특히 충격적이었고 많은 상처를 남겼다.

‘용감한 파리 시민들은 10,000명의 유태인이 숨는 걸 도왔다.’  
(또다른 벨디브 사건 기반 영화 『라운드 업』의 마지막 구절)

1만 3152명의 유대인들을 가두어 놓은 벨디브(Vel d'Hiv)경륜장은 화장실도, 물도, 음식도 부족했다. 몇 사람들은 자살하고, 가족 없이 홀몸으로 온 사람들은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엉망이었던 위생 사태에 아이들은 병에 걸렸지만 일손은 턱없이 부족했다. 100명의 의사가 지원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정부에서 목격자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책 초반에는 내용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줄리아 시점의 이야기와 사라의 이야기가 너무 빠르게 교차되었고, 두 이야기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었다. 하지만 줄리아의 시아버지가 자신이 어린 시절 사라와 만난 이야기를 시작한 이후, 전혀 다른 시대에 벌어진 두 이야기가 하나로 통일되었다.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 마치 벨디브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현재까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사라가 열쇠를 항상 지니고 다니는 모습에서 벽장 열쇠가 사라의 죄책감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보았던 책 상단의 열쇠구멍 표식이 갑갑하게 느껴졌다.

사라가 벽장 속 동생의 시체를 발견한 이후부터, 스토리는 오로지 줄리아의 시점에서만 전개된다. 줄리아의 추적 속에서만 우리는 사라의 감정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짐작해볼 수 있다. 작가는 왜 이런 표현방식을 선택했을까? 우선, 작가 스스로도 사라의 상처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또, 사라의 어른이 된 모습에 거리감을 두기 위한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사라'라는 이름 앞에 총명하고 투명했던 어린 소녀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거대한 재앙 앞에 순수하기에 힘이 없던 소녀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두 주인공인 줄리아와 사라는 완전히 상반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사라의 어리고, 전쟁이라는 특별한 사건에 휘말리는 캐릭터인 반면, 줄리아는 나이도 있고, 부부관계라는 일반적인 고민에 휘말린다.

책에서 줄리아와 대비되는 캐릭터를 한 명 더 찾을 수 있다. 바로 그녀의 남편인 베르트랑이다. 줄리아는 뱃속의 아이도, 자신의 죄책감이 돼버린 사라도 놓칠 수 없다. 그녀는 항상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다. 반면에 베르트랑은 갱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태도 차이는 그들이 이혼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또, 줄리아는 몇몇의 가까운 사람들(가족, 두 게이 친구들, 시댁, 회사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녀의 상사이자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인 조슈아는 줄리아가 돈을 가불해달라 하자 ‘자네가 돈 이야기를 꺼낸 게 처음’이라며 당일 오후에 입금해준다. 반면 베르트랑은 젊었을 적 바람둥이였다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들과 넓고 얇은 관계만을 형성하고 있던 것으로 짐작된다.

줄리아는 숨겨진 과거 사실을 밝혀 많은 이들을 혼란스럽고 괴롭게 한 것에 대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질책 받는다. 줄리아 자신도 자신이 과연 옳은 일을 한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한다.

모든 사람들이 아픈 진실을 성숙의 기회로 삼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 다만 내가 믿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소설인 『유진과 유진』에서 나온 구절을 떠올린다.

**“감추려고, 덮어두려고만 들지 말고 함께 상처를 치료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상처에 바람도 쐬어주고 햇볕도 쬐여 주었으면 외할머니가 말한 나무의 응이처럼 단단하게 아물었을 텐데.”(책『유진과 유진』 276페이지)**

인터넷에서 벨디브 사건에 대해 찾아보면 나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프랑스는 이 사건에 대해 굉장히 잘 대처했으며 이는 여러 나라에게 존경 받을 만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정부 측 입장일 뿐인



지 책 『사라의 열쇠』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이와 달랐다. 일반 시민들은 벨디브사건에 대해 입 밖에 내는 것조차 꺼려하고 암묵적으로 덮어두고자 하는 느낌을 받았다. 벨디브 사건

은 직접 경험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이 기억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건이다. 젊은이들에게는 서서히 잊혀 가고 있다. 진실을 손쉽게 알 수 있는 사람들도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굳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 흔히 사람들은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한다. 과거를 외면한 사람들은 이전과 같은 문제가 닥쳤을 때 더 나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다. 그렇기에 역사는 되풀이되고 상처는 반복된다.



**“우린 역사를 좋아해요. 생소한 얘기잖아요. 저 친구들을 봐요.”**

**“죄송해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영화『사라의 열쇠』에서 벨디브 사건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을 알 수 있는 대사이다.)**

■ 전쟁을 돌아보고 평화를 생각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할지어다. 절대 잊지 말지어다. (책『사라의 열쇠』 398페이지)

## 『사라의 열쇠』를 열기 위한 또 하나의 열쇠

2학년 박○○

세계 제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7월 16일 프랑스 경찰은 ‘유대인 학살’을 목적으로 프랑스에 살고 있는 유대인 가족들을 검거한다. 유대인 가족들은 먼저 ‘벨디브 경륜장’으로 임시 수용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되어 학살당한다. 이 사건이 ‘벨디브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검거 당시 10세 소녀 사라는 동생 ‘미셸’을 벽장에 숨기고 다시 돌아와 꼭 꺼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수용소에서 탈출해 동생을 찾아갔을 때 동생은 결국 벽장에 죽은 채 썩어있다. 이후 사라는 사려 깊은 노부부의 도움으로 삶을 이어가고 미국인 남자와 결혼해 아들을 낳고 살아가지만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안고 결국 자살한다. 사라의 이야기는 유대인 학살과 같은 대량 학살이나 전쟁, 식민 통치 등의 역사적 비극에서 겪는 한 사람의 고통이 나중까지 지속되며 당사자의 친적과 주변인들의 삶까지도 비극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책을 읽으며 ‘벨디브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거대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비교적 최근까지 프랑스가 그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숨겨왔기 때문일 것이다. ‘벨디브 사건’

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협력한 비시 정부의 과오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행동의 주체가 독일 정부가 아니었음에 주목을 받았으



1942년 7월 16일 당시 벨디브 경륜장의 모습

며 나치 독일에 항복한 비시정부가 저지른 추악한 범죄로 많은 비난을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1995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들로서는 나치가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인종청소’를 진행한 것이 프랑스 경찰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학살이 많은 수의 어린이들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역사였을 것이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프랑스 비시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랑스를 통치하겠다는 연설을 했다.

Il est difficile de les évoquer, aussi, parce que ces heures noires souillent à jamais notre histoire, et sont une injure à notre passé et à nos traditions. Oui, la folie criminelle de l'occupant a été secondée par des Français, par l'Etat français.

그것들을 상기하기 어려운데, 이는 이 어두운 시간들이 영원히 우리 역사를 모독했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전통에 흠집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네, 점령자(독일)의 범죄적 광기는 프랑스인들과 프랑스 국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1995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연설 중에서...)

2012년에 올랑드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벨디브 검거사건 70주년을 기념하여 파리 에펠탑 부근에 있는 벨디브 위령탑에 조문하고 “프랑스 안

에서 프랑스가 저지른 범죄 행위"라고 본격적인 사과를 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기는 했지만 자신의 과오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자신들이 승전국이고 2차 대전의 피해 당사자인 건 하지만, 자신들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명백한 사실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는 점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2015년 8월 15일 광복절 글을 쓰는 시점에서 역사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를 가져본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를 왜곡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끊임없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통해 한국의 아픈 상처를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바람직한 태도를 일본이 보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역사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희생자를 기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자랑스러운 역사 뿐 아니라 부끄러운 역사까지도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올란드 대통령이 벨디브 위령탑에 조문하는 모습

이렇게 무거운 역사적인 사건을 주제로 한 소설임에도 쉽게 읽고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사건과 현재 상황을 교차형식으로 서술한 서술방식 덕분인 것 같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깊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나와서의 관련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생각



한다. 하지만 이 책은 주인공의 시택인 테작 집안이 살아왔던 집이 ‘유대인 가족이 학살을 당하기 전 살던 집’이라는 설정을 통해 사건을 내가 직접 겪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소설을 통해 그런 역사는 또 반복될 수 있는 가까운 이야기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이 책을 바탕으로 한 영화의 영어 제목은 ‘Sarah's Key’. 하지만 프랑스에서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제목은 ‘Elle s'appelait Sarah’이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였다’라는 뜻. 프랑스어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작가가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제목을 붙인 것 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반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은 어떤 사건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칠 때 쓰는 ‘반과거’ 시제의 특성을 이용하여 ‘벨디브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책을 보면 사라의 주변 사람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게조차 사라의 이야기를 알게 됨으로서 삶에 큰 변화가 생긴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이 있고 몇 십 년이 지난 현재 자신이 살게 될 아파트의 주인이 유대인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서 주인공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이처럼 역사적 비극은 현대에도 쉽게 잊히지 않고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주인공은 기자로서 사라의 삶을 추적하며 과거의 역사를 밝혀낸다. 그리고 사라에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생긴 아이의 이름을 ‘사라’로 짓는다. 잊고 싶지 않은,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벨디브 사건을 기억하겠다는 의도로 아이의 이름을 ‘사라’라고 지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영화 ‘사라의 열쇠’는 그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학살의 현장에는 아이들을 무차별적으로 내던지고 가두어 놓는 프랑스 경찰 이외에도 아이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사과를 던져주는 마을 아주머니들, 그리고 사라의 탈출을 몰래 돕는 경찰들이 있었다. 유대인 학

살이라는 잔인한 범죄 현장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경찰들과 대비되어 더욱 감동적이었다.



사라가 탈출을 했을 때부터 이후까지 사라를 자신의 손녀처럼 생각하고 돕는 노부부는 특히 인상적이었다. 사라가 동생을 찾는 길에 함께 동행해주고 항상 사라를 응원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야말로 천사가 아닐까 생각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야드 바셈 협회에서는 전쟁 기간 중에 유대인을 구한 비유대인들에게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고 한다. 유대인을 도왔던 사람들은 충분히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어린이들은 그 사람들의 도움을 잊지 못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자신의 아이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같은 나이임에도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슴에 별을 달고 있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혀 물과 먹을 것을 먹지 못한 다는 사실에 가슴 아팠을 것이다.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사람들 모두에게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학교 폭력에 대한 기사가 만발하던 중학교 2학년 시절 제임스 프렐러의 ‘방관자’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책을 읽고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직접 가하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폭력을 말리지 않고 보고 있

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방관’이라는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사건을 보고 있음에도 무관심으로 방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집단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012년 이후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이제는 점차 학교 폭력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하지만 여전히 학교 폭력은 존재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폭력을 방관하기만 한다. 프랑스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를 감추고 싶어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방관이 부끄럽기 때문일 것이다. 프랑스 경찰이 옆집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잡아 갈 때 대부분의 프랑스 사람들은 말리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그들을 도와주고자 했던 소수의 사람들의 노력이 더욱 빛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들이 수용소의 아이들에게 던져주었던 사과 하나가 나중에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희망이 되었을 것이다. 대학살의 악몽 속에서 그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편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학생들이 이 책을 읽고 폭력 속에서 자신의 관심과 도움이 피해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

## 『양철북』을 다시 읽기 위하여

1학년 이○○

내가 양철북을 읽고 싶은 책으로 선정한 이유는 독일의 전쟁과 관련한 나치의 악행들을 시원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철북은 오스카의 성장 소설이라 볼 수 있지만 다른 뜻으로는 독일 나치 시대의 어두운 역사라 볼 수 있다. 성장이 멈췄다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은 뜻이므로 그 당시 나치가 장악한 시대 즉 어두운 시대를 빛대어 말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인공 오스카는 양철북을 두들겨대는데 나는 맨 처음 읽을 때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으나 그는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고 성숙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난쟁이였기에 다른 정상인들이 가질 수 없었던 시각을 가지고 성인들의 위선을, 넓게 보면 지금 독일 사회의 모순들을 알레고리적인 풍자와 반어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했었던 것이다.

오스카는 정신 병원에 오래 머물러 있길 원하는 데 그 까닭은 큰 위선과 허위로 가득한 사회 세상에 있기보다는 정신 병원이라는 하얀 공간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양철북의 등장인물들은 아무런 특별한 뜻이 없을 것 같지만 각 각의 뜻을 다 담고 있다. 오스카의 개인사는 독일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게 지하 창고에 추락했던 오스카는 성장을 멈추었다. 멈추었기 때문에 독일 소시민 계층의 나치즘을 추종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성장이 멈춰졌다는 뜻도 있지만 오스카가 성장하기를 거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가 성장을 거부한

까닭은 어른들의 위선에 혐오를 느껴서 반항하기 위해 성장을 거부한 것 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의 실제 아버지인 얀 브론스키는 폴란드 인이다. 그가 죽음으로써 그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는 폴란드가 패배했다는 뜻이다. 또 오스카의 다른 아버지인 마체라트의 삶과 죽음도 의미하는 바가 있다. 삶은 독일 나치에 동조하는 독일인이고 죽음은 붕괴, 파괴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오스카가 다시 성장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 데 이것은 독일 나치가 서서히 망해가고 있다는 걸 짐작하고 독일의 시민으로써 국가의 대한 자기반성과 독일 사회가 이제 앞으로는 성장해갈 꺼 라는 걸 예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읽다보면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 서로 오가는 데 읽을 때 헷갈렸다.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 오간다는 것은 숨겨진 뜻이 있다. 주인공 오스카의 혼란스러운 정신세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양철북 1권 연단 부분에서 시기는 독일 1934년이었는데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하고 나서 히틀러가 대통령이 되어 독재자가 된 시기이다. 1934년 여름에 뫼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오스카는 당에 대한 애착을 잃었다고 한다. 나는 이 부분을 읽고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한 역사적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뫼의 반란 사건이 뭔지도 몰랐다. 뫼의 반란 사건을 찾아보니 에른스트 뫼이 나왔는데 그는 독일의 군인이자 정치가 직업군인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종군했고 대전 직후 나치스와 접촉, 히틀러를 변호하고 스스로도 나치스 당원이 되어 당에 소속된 청년 스포츠단체인 SA(돌격대)를 육성했으며 나치스 정권수립을 도왔고 히틀러의 은인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SA와 정규군과의 통합을 희망했는데 히틀러와 장군들에게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SA가 ‘제2혁명’을 꾀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게 되어, 히틀러의 명령으로 SS(친위대)에 의해 부하와 함께 숙청당한 사건이 뫼의 반란 사건이다. 이로 인해 히틀러는 돌격대(SA)를 장악하고

친위대와 국가비밀경찰을 동원하여 반대파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억압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뫼의 반란 사건이 뉘지 알고 나서 느낀 점은 히틀러에 대한 분노였다. 히틀러는 자신을 많이 도와준 뫼를 믿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의리를 저버렸다는 점이다. 또한 나도 뫼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당에 대한 애착을 잃었다고 말하는 오스카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당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잃기 두려워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인 것을 꾸며내거나 과장을 심하게 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기 때문이다.

연단에서 오스카는 뉘프자크가 연단 위에 서서 연설을 하고 있는 중간에 스승인 베브라가 자신에게 결코 연단 앞에 서지 말고 우리 같은 사람은 연단위에 있어야 한다는 말을 생각해서 연설용 소 탁자 밑에 앉아서 양철북을 두들겼다. 플루트는 오, 다뉴브 강을 불고 사람들은 오, 다뉴브 강을 노래하고 있었다. 오스카가 노래를 호랑이 지미로 바꾸자 사람들은 너도나도 다 춤을 짝지어 추기 시작했다. 춤 파트너를 구하지 못한 뉘프자크의 고독함과 전체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대조되었다. 따라서 오스카는 나치를 위해 일하고 있는 뉘프자크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 된다.

단치히에서 수정의 밤 사건이 일어나는데 수정의 밤 사건은 꼭 알아야 할 세계적인 역사이어서 자세히 알아봤다. 수정의 밤은 1938년 11월 9일에 일어나는데 10일 동안 일어났다. 수정의 밤의 뜻은 깨진 유리 파편을 비유하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1938년 10월 18일, 히틀러의 명령으로 1만 2천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쫓겨났다. 폴란드 당국이 임국 허가를 주저하는 동안, 당시 열일곱 살이던, 헤르셀 그린슈판은 가족으로부터 추방 소식을 들었다. 그는 권총 한 정을 사서 총알 다섯 발을 장전한 후 독일 대사관으로 갔다. 그의 계획은 독일 대사를 죽이는 것이었다. 당시 서기관이던 에른스트 폼 라트의 방으로 안내 받은 그린슈판은 폼 라트를 총으로 살해 한다. 그린슈판이 폼 라트를 죽인 이유는 그린슈판이 약 1만 2,000명인 폴란드 계 유대인이 독

일에서 폴란드로 강제 이송된 것에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격하였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독일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폭력적인 시위와 파괴적인 집단행동이 일어나는데 그 날이 바로 수정의 밤이다. 수정의 밤은 5년 9개월이 넘도록 지속된 치밀한 차별과 박해의 정점으로 얘기가 된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초기부터 반유대인 조치는 계속되었다. 전체 인구의 0.7% 밖에 안 되는 독일 유대인들을 나치 선전기구에 의해 내부의 적 또는 독일의 패전과 잇따른 경제적 곤궁의 원인으로 돌렸다.

히틀러를 대신해 성명을 발표한 요제프 괴벨스는 히틀러가 시위는 허가하지 않지만, 자연발생적인 분노의 표출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 말은 유대인 사회에 대한 전국적인 광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돌격대, 친위대 등 나치 단체의 회원들은 도끼와 쇠파시로 무장하고 유대인 소유의 상점과 예배당에 대한 공격을 주도했다. 수많은 상점들과 백화점, 개인 주택들이 약탈당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유대인 예배당 심지어 묘지들까지 훼손당했다. 3만 명 이상의 독일계 유대인들이 다카우, 부헨발트, 작센하우젠의 수용소에 강제로 보내졌다. 거리에서 유대인들을 때리기도 하고 강제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는 글귀를 들고 걷기도 시켰고 조롱도

했다.

독일 정부는 반유대주의 분노의 자연스러운 분출이라고 했으나 관련 문서를 보면 나치당이 유대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계획을 짰다는 걸 알 수 있다. 수정의 밤이 찾아와서 모든 것이 변했다는 말과 같이 수정의 밤은 한 나라의 사건이 아닌 세계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사건이다. 수정의 밤 사건은 한 줄로 요약하면 유대인들 몰살작전이다. 나치가 저지른 거대한 악행이 아닌 가 싶다. 어떤 사람은 히틀러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히틀러가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생각해보면 유대인들도 사람이다. 단지 종교와 문화가 다를 뿐이다. 근데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동물만도 못한 대우를 했다. 유대인들은 아무 잘못도 안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것이다. 물론 셰익스피어의 책 베니스의 상인에서 나오는 유대인 사일록 고리대금업자가 나오긴 하는데 유대인 모두가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히틀러는 계속되는 패배와 경제적 가난에 찌들어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의 분노를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 필요했다. 그때 딱 마침 유대인이 눈에 들어왔던 것뿐이다. 그래서 죄 없는 유대인들이 모두 죽어야만 했다. 히틀러는 사람들의 분노가 자신에게 튀어 권력을 잃게 될까봐 셀 수 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다. 그래서 히틀러가 매정하다 생각한다.

쇼윈도에서 오스카는 길가는 행인들이 쇼윈도를 지날 때 고음소리를 내어 조그만 유리 구멍을 내어 행인들이 도둑질을 하게 만든다. 그는 행인이 자신과 동떨어져있다고 믿고 있는 사악함을 속에서 끄집어내는데 재미를 느낀다. 오스카의 성격이 사악하고 장난스럽다는 걸 알 수 있다.

트럼프로 만든 카드 집 부분에서는 폴란드 우체국이 친위대 향토 방위대원들에게 포격을 당한다. 오스카의 아버지 얀 브론스키와 오스카 그리고 수위는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두려움을 잊기 위해 카드 게임을



한다. 얀 브론스키는 독일인에게 끌려나와 죽는 순간에도 자신이 카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지금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는 세계적인 사건과 사적인 카드 게임이 결합되고 도피와 유희가 결합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가끔씩 읽다보면 오스카의 행동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는) 나의 추정상의 아버지인 마체라트를, 단지 아버지들에게 신물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당 배지를 이용하여 죽였으니 말이다. 아니면 쿠르트(오스카의 추정상의 아들)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어 마땅한 어린이다운 애정을 살인으로부터는 달리 표현할 수 없었던 말인가?” 2권 174페이지에서 오스카는 마체라트에게 당 배지를 주는 데 왜 하필이면 그 때 주었을까? 하고 의문이다. 만약 오스카가 마체라트에게 당 배지를 주지 않았다면 마체라트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니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마체라트를 죽인 이유는 아마도 마체라트가 오스카의 그녀 마리아를 그에게서 빼앗아가고 추정상의 그의 아들인 쿠르트도 빼앗아가서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 나는 확신한다. 그는 마체라트가 죽고 나서 나중에 마리아에게 혼인하자고 제안을 하지만 마리아는 그가 혼인하자는 말을 듣고 거절을 한다.

나는 얀 브론스키의 죽음, 마체라트의 죽음의 원인이 오스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로 만든 카드 집 부분에서 얀 브론스키가 죽는데 그것은 오스카가 얀이 자기를 여기로 데려왔다고 해서 얀이 죽은 것이다. 이것은 당연 사실이 아니다. 맨 처음 여기에 오자고 한 것은 오스카였다. 오스카는 자기의 부러진 양철북을 수리하기 위해 수위를 찾으러 온 것이다. 만약 오스카가 양철북을 수리하러가자고 얀 브론스키에게 폴란드 우체국에 가자고 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오스카는 먼지 털이단의 대장을 맡게 되는데 먼지 털이 단들이 교회에서 예수 석상을 훼손하는 것을 걸러서 잡히는데 오스카는 거기에서 자신만 빠져나와 모른 척을 한다. 오스카는 왜 자신이 일을 저질러 놓고는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고 모른 척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오스카는 사악할까? 나는 오스카가 단순히 사악하다고 말할 수 없다. 오스카는 사악하기보다는 빼뿔어지고, 꼬여있고, 기묘한 것 같다. 오스카는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마지막에서 드디어 오스카는 30살 생일을 맞이하였다. 그는 도피를 하는 도중 검은 마녀를 본다. 그는 검은 마녀를 두려워하고 피해 다닌다. 여기서의 검은 마녀란 오스카에게 서서히 찾아오는 죽음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오스카는 검은 마녀를 피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양철북은 교양도서인데 다른 교양도서와는 특이하게 다르다. 다른 교양도서들을 보면 어떠어떠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양철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스카는 3살 때부터 떨어져 성장을 멈추고 나중에는 정신병원이라는 곳에서 산다. 이것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 퇴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것은 전쟁을 겪으면서 황폐화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우리가 독일 전쟁에 대한 책을 고르기 전까진 양철북이라는 책을 몰랐었다. 양철북이 독일의 유명한 고전 문학이라서 처음 읽은 나에게서는 어려웠다. 왜냐하면 글을 읽을 때 작가가 반어법과 역설 법 그리고 풍자 등 다양한 표현들을 썼고 내가 양철북을 읽을 때 넓은 관점이 아닌 좁은 관점에서만 이해하려고 했었던 것 같다. 양철북은 그냥 주인공 오스카의 개인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넓게 보면 독일 역사를 반영하고 있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양철북이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양철북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나치의 악행을 비판하고 있거나 자기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양철북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을 한단어로 간단히 표현하자면 나는 '대단하다'라고 표현하고 싶다. 그 이유는 나치,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그때의 독일 역사를 모두 두 권에 담았다는 게 대단하다. 그래서 양철북은 독일 역사를 담은 가치 있는 책이라고 본다. 양철북을 읽고 나서 역사에 대한 책임 의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양철북에

서 나치의 악행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런 나치의 악행에 대해 자신들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반성했기에 독일은 지금 강대국이 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나도 우리나라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악행을 저지르면 우리나라가 한 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진 국민이 될 것이다.

물론 나는 양철북을 다시 읽어 볼 것이다. 아직까지 나는 오스카의 행동이나 문장 속에 숨겨진 뜻을 잘 모르고 있기에 다시 읽고 오스카를 이해하고 싶다. 나는 양철북을 치고 있는 오스카의 북소리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다. 이 소리는 절규, 고통, 외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나에게 힘을 내라고 말 해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오스카의 북소리를 내 마음에서 한동안 못 잊을 것 같다.

## 베른하르트 솔링크, 『책 읽어 주는 남자』를 읽어주기

2학년 조○○

### 홀로코스트,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했었던 홀로코스트에 대한 정보의 출처는 사회 수업시간에 읽었던 ‘안네의 일기’라는 작품이었다. 수업시간에 인류와 학살의 비극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설명하시던 나의 초등학교 선생님은 어느 날 도서관의 역사 섹션에 가지런히 꽂혀있던 전쟁에 대한 책들을 손수 골라서 빌린 후 책장 옆에 비치되어있는 노란 바구니에 한가득 담아 오셨고, 그 책들이 선생님과 함께 교실에 도착한 순간, 나를 포함한 우리 반 아이들은 사회 수업시간에 꼼짝없이 책 한권을 끝까지 다 읽게 된 것이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해 사진들과 함께 상세하게 서술한 책,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6.25전쟁에 대한 만화책, 미국의 흑인노예들과 노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꽤 두꺼운 책... 지금 생각해보면 그 책들은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책들이었고, 심각하게 수준 높은 책들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초등학생인 나의 눈에는 그 모든 책들이 하나 같이 전부 다 어려워 보였고 재미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게다가 표지도 전부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인물들, 또는 흉포하게 생긴 대형 전쟁 무기들과 총을 든 군인들과 맞서 싸우는 사진이나 그림들이었던 책들이었다. 그런 이미지들을 낯설어하고, 두려워했

던 나로선 책들 중 어느 하나 가벼운 마음으로 고르기 버거웠다. 물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무엇을 읽을지 상당히 고민되는 눈치였다. 하지만, 냇 놓고 다른 친구들이 더 읽기 쉽고 재미있는 책을 차지하기 전에 썩썩하게 책을 선별해낼 필요가 있었다.

민첩하게 차곡차곡 쌓여있던 책들을 한창 살펴보던 도중에 나는 다른 책들과 상당히 다른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 책을 마침내 발견할 수 있었다. 책의 표지에는 명랑하게 생긴 내 또래의 여자아이가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고, 제목 또한 사랑스럽기 그지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책을 덥석 집어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안네의 일기와 처음으로 대면할 수 있었다. 앞으로 누군가의 일기를 읽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푼 채, 책을 펼쳐들게 된 나는 대략 책의 20페이지쯤을 읽은 뒤에 생각보다 이 책이 명랑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차례로 읽어 나갈 때 마다 주인공 안네가 처한, 스산하고 온갖 위험과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기에, 종래에는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하지만, 안네가 처한 상황이 그 다음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나도 가슴이 졸여졌던 나는 ‘안네의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칠 때 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심지어 안네가 직접 쓴 일기 부분을 다 읽었고, 책 뒤에 수록되어있는 율킨이의 말이나 책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곧잘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네의 그 뒤의 삶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열렬히 알고 싶었기 때문에, 율킨이의 말까지 전부 다 빠짐없이 읽었다. 안네의 비극적인 삶의 마지막 부분까지 전부 알게 된 나는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채 몇 날 며칠을 안네의 생각으로 가득 찬 채 보내야만 했다. 그렇게 안네에 대해 생각을 되풀이 하던 중, 어느 순간 나는 안네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나를 분노에 빠뜨린 그 악당들의 정체가 진정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책속에 나왔던 ‘나치’라는 단어를 기억해내 그것에 관련된 책을 하나 둘 씩 찾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홀로코스트의 의미

와 피해자들의 고통, 그리고 가해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악행들을 지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이후에도, 즉 안네의 일기를 접하게 된 이후에도 나는 때때로 수업시간에 홀로코스트에 대해 배울 기회가 생겼고, 보다 더 다양한 관점에서 홀로코스트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물론 중학교에 입학해서도 이러한 기회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주어졌다. 수업을 들으면서 유대인 학살의 가해자들에 대해 예전과 같은 분노와 적개심은 느낄 수 없었지만, 수업시간에 반복해서 배우게 되었던, 그들의 인류 사상 최악의 악행들은 나로 하여금 그들을 떠올릴 때 끔찍한 이미지들,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힌 광신도들의 이미지를 함께 떠올리게끔 하였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갈수록, 나에게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러한 이미지들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홀로코스트를 일으킨 가해자들에 대한 한층 더 내밀하고 자세한 정보들과 설명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물론 그 당시 유대인 학살로 이어지게 되었던 다양한 정치 상황들과 국제 정세에 대한 지식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어째서 독일인들은 그 끔찍한 일들에 동조하고 방관하게 되었는지, 나치의 일원으로써 일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인류를 저버린 행위들을 광신도처럼 맹목적으로 할 수 있었는지, 전쟁이 끝난 후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들의 자손들은 홀로코스트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가졌는지 등과 같은 가해자들에 대한 의문은 수업만으로는 풀길이 없었다. 게다가 그들은 종종 마치 인간이 아닌 광포한 살인 기계들처럼 묘사되어지곤 했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써의 가해자들 또한 강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궁금증들과 이해의 결핍은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그리고 나는 ‘안네의 일기’를 우연히 조우했듯이, 『책 읽어주는 남자』를 조우하게 되었다. 또한 나는 앞서 이야기 했던 궁금증들의 해

결의 실마리와, 한 인간으로써의 가해자의 내면과 삶을 『책 읽어주는 남자』의 등장인물인 전후세대 인물 미하엘의 시각으로 보는 한나로부터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나는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 『책 읽어주는 남자』, 첫인상, 안네의 일기.

우선 이 책의 첫인상에 대해 조금 설명해 보는 것으로 시작하려 한다. 이 책과의 가장 최초의 대면은 이 책이 엄마의 손에 쥐어져 있을 때였다. 제목은 『책 읽는 남자』였고, 나는 제목을 보자마자 낭만적인 분위기의 제목이군,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심지어 엄마의 손에 붙들려 있는 저 소설은 아마도 남녀 간의 애상적인 로맨스를 그린 소설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기도 했다. 그리고 이 책을 처음 봤을 때의 인상은 ‘안네의 일기’를 처음 집어 들게 되었을 때의 인상과 상당히 닮아 있었다. 독자가 제목을 처음 봤을 때 받는 낭만적이고 산뜻한 인상과 책이 담고 있는 무게의 부조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했고, 홀로코스트와 어떠한 연관도 갖고 있지 않을 것만 같은 표지의 책들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했다. 하지만 막상 『책 읽어 주는 남자』의 속내를 들여다보니, 두 책은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을 상당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안네의 일기가 비극의 피해자의 비참한 수기라고 한다면, 책 읽어주는 남자는 ‘인간’인 가해자들의 모습과 전후세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즉, 제각기 다루고 있는 시기부터 다루고 있는 대상까지 명백히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책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 홀로코스트의 가해자들과 전후세대의 초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책 읽어주는 남자』 : 한나

『책 읽어주는 남자』의 시작은 마치 안네의 일기처럼 평범한 소년의

기억으로부터 이끌어진다. 그 기억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기억이 아닌, 그의 평생의 삶을 좌우하게 되는 첫사랑의 기억이었다. 소년, 미하엘 베르크의 사랑은 비가 오는 도중, 황달로 인해 쇠약해진 그가 구토를 한, 후미진 골목에서 시작된다. 벽에 기대어 웅크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미하엘을 구해준 것은 한나 슈미츠였다. 거칠고 조금 고압적이지만 미하엘을 세심하게 보살피는 한나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에서 그녀의 강인하고도 따뜻한 아름다움을 지닌 성정을 나 또한 미하엘과 같이 은연중에 느낄 수 있었다. 그 이후 미하엘이 한나 슈미츠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들의 사랑은 시작되게 되고 육체적인 접촉 또한 이루어지게 된다. 그들의 사랑의 행위는 처음엔 미하엘이 서술하였듯이, 한나의 유희를 위한 것, 즉 육체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들의 사랑은 점차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만족시키는 충만한 애정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들의 사랑이 플라토닉한 사랑으로 까지 나아가게 된 계기는 한나의 요청으로 미하엘이 한나와 사랑을 나누기 전에 먼저 책을 읽어준 후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의식’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하엘이 한나에게 책을 읽어줌으로써 시작되는 그들만의 의식으로 인해 그들의 사랑은 한층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한나가 자신의 예민하고 풍부한 감수성을 미하엘의 앞에서 드러내 보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나가 등장인물들의 말과 표정의 묘사, 인물들 사이에 서려있는 긴장감에 몸을 맡기며 분노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며, 슬퍼하기도 할 때, 나는 책 읽기라는 행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문학을 즐기고 음미하는 행위가 ‘한나’라는 한 인간에게는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고, 또한 강하고 고압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다소 깃들여 있는 그녀도 다른 이의 삶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달을 수 있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호시절은 빨리 지나가 버리곤 한다. 한나와 미하



엘에게도 이는 예외가 아니었다. 봄에 시작된 그들의 사랑과 ‘의식’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지만, 결국 한나가 홀연히 모습을 감추게 됨으로써 끝을 맞이하게 된다. 미하엘과 한나의 사랑의 종말은 나에게 여러 의문점을 안겨주었는데, 그 중 가장 커다란 의문점은 어째서 한나가 그녀의 원래 직업인 차표 검표원 보다 더 나은 직장인 기관사 일을 마다하고, 심지어 본래 직업인 검표원의 일마저 포기한 채 종적을 감춰버렸는가였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녀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또한, 미하엘과의 사랑마저 저버린 채 떠나가기로 결심한 한나를 이해하는 것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한나에 대한 인상을 부정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대신, 한나의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매몰차며 이해 불가한 결정과 그녀의 강인하고 온화한 성격 사이의 모순을 곱씹으며 나는 그녀에게 그 누구에게도 말 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고 그것은 그녀의 상당한 치부임을 어렵פות이 직감했다.

책을 읽어 나가며 나에게 계속해서 커다란 의문점으로 남아있었던 그녀의 비밀은 훗날 미하엘이 대학생이 된 후 유대인 학살의 가해자들을 재판하는 자리에서 밝혀졌다. 그녀는 미하엘을 만나기 전 젊은 시절에 유대인 수용소의 감시원이었고, 전쟁 종결 직전에 불붙은 교회에 사람들을 가둔 채 몰살당하게 한 주범들 중 한명이었다. 하지만 이 사실이 그녀가 숨기고자 했던 치부는 아니었다. 그녀와 미하엘의 사랑마저 조각내버린 한나의 콤플렉스는 다름 아닌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가장 깊고 깊은 수치심이 동반된 콤플렉스로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사랑하는 미하엘에게도 선뜻 말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이 악마와 같은 콤플렉스는 판사가 불붙은 교회에서 일어난 끔찍한 유대인 학살에 대한 보고서를 주도적으로 쓴 자를 가려낼 때에, 한나가 모두를 대표하여 쓴 것이 아니냐며 추궁할 때조차도 한나로 하여금 결국

문맹인 사실을 감추게 하고 다른 이들의 죄까지 뒤집어쓰도록 만들고 만다. 그녀의 콤플렉스가 그녀를 궁지로 몰고 가게 된 것이었다.

이 일련의 사건들, 미하엘과의 사랑, 갑작스러운 이별, 재판까지의 과정들을 미하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나는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한 사람 속에 잠재되어있는 두 가지 충돌되는 면모, 부드러운 인상의 ‘암말 같은’ 한나와 나치의 일원이었던 고압적이고 냉혹하며 유태인 수용자들 사이에서 ‘암말’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한나 사이의 간극이 한나라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였던 나의 시도들을 좌절시키는 듯 했다. 하지만, 다양한 소설들을 읽어주는 미하엘의 모습에 눈을 반짝이며 관심을 기울이고, 주인공들에게 감정 이입을 하며 그들과 혼연일체가 되는 그녀의 모습들은 거짓이 아니었기에, 그녀에 대해 한층 더 깊숙이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한나는 한때 나치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이해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내가 여태껏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들을 해결하는 것과는 직결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으로써, 과연 한나를 비롯한 많은 나치당원과 유태인 수용소의 근무자들은 동정심과 공감하는 능력이 결여된 이들이었나를 생각해 보아야 했다. 그들이 저질렀던 크나큰 과오들만을 주목해서 본다면, 그들에게 동정심과 인륜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털끝만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하지만, 그들 또한 인간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과정으로 태어났으며 자신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다양한 감정들을 지녔고, 소중한 가족을 가지며 한 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스실에 보내고 그들의 시체로 비누를 만들었을까? 내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아니오’ 이다. 물론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유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생각에 대해 충분히 반대할 수도 있고, 분개할 수도 있다. 또한 나로선 그들이 겪은 홀로코스트라는 생지옥과 고통에 대해서 그들만큼 알지도 못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나의 모습에서 유태인

학살에 참여했던 이들의 같은 사람을 학살하는 데에 스스로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내면을 보았기에 그들을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쉽게 치부해버릴 수는 없었다. 한나는 후일에 미하엘에게 책을 읽어줄 것을 부탁했듯이, 수용소에서 몇몇 병약하고 수용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녀들을 불러 책을 읽게 하는 대신, 그 혜택으로 다른 이들 보다 더 좋은 침대, 더 좋은 식사를 제공해 주었다. 그녀는 그들의 처절한 생활에 공감하지 못하는 철로 된 인간은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그녀는 미하엘이 읽어주는 책 속 인물들에 흠뻑 빠져 그들에게 십분 공감했듯이, 그 소녀들의 절박한 상황에 공감했고, 그 결과 그녀들을 도우려 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들이 저지른 참상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그들이 죄 없는 유대인들의 비참한 최후를 바라보며 진정으로 공감하고 그들이 받는 끔찍한 처우들에 조금이라도 슬퍼할 수 있었다면, 어찌서 그들이 계속하여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의문에 한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신들은 히틀러를 주축으로 한 나치당이 이끄는 자신들의 조국인 독일이라는 거대한 집단 속 작은 개인이었기에 자신들이 부여받은 임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했노라고. 이 대답으로부터 한나를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 수용소의 나치 당원들, 감시원들, 그리고 독일인들이 어떻게 그 순간 죄의식을 그들의 머릿속에서 말끔히 지워버리고 학살을 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또한, 조국의 명령을 따라 그들 민족의 영광을 지켜야한다는 그들의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은 한나에게도 영향을 끼쳤고, 그녀로 하여금 큰 죄의식 없이 책을 읽어주었던 소녀들을 다시 아우슈비츠로 보내게 했던 것이다. 이는 미하엘이 표현하듯, 죄의식의 ‘마비’상태였다. 한나를 비롯한 그들은 모두 유대인을, 즉 같은 인간을 학살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도덕성의 마지막 부분까지 마비시켜 버렸던 것이다. 이런 상태에 빠졌던 그들을 향해 어찌서 그 당시 끔찍한 학살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벌였는지 추궁하고 고함을 지르고 비난한다 해도 그들은 그 비난과 질문들에 제대로 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마비’상태였기 때문에.

물론 한나를 비롯한 나치 학살의 주범들을 한 인간으로써 이해하고자 하는 이 모든 시도들과 생각들이 그들을 용서하고자 함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씻을 수 없고, 함부로 용서받고자 해서도 안되며 그들의 자손인 전후세대들에게 까지 죄의 짐을 지게 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 중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지울 수 없는 과거를 돌이켜 보며 뒤늦게 겪은 뻣속 깊은 후회와 고통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마비 상태에서 벗어난 그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느끼는 이질적인 공포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절망은 그들을 참회하게 하였다. 그들의 참회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독일의 전후세대는 그들의 부모세대의 죄에 대한 용서를 함께 구했다. 한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죄를 용서받길 기대조차 하지 않았고 쉬이 용서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 또한 알았지만,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된 마지막 순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자 했다. 그녀는 매번 자신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끝내 자신을 유대인 수용소 감시원이라는 죄를 향해 몰고 간, 마치 메피스토와 같은 문맹 콤플렉스를 수감 중에 극복했고, 자신의 유언장을 직접 쓰게 된다. 그 유언장에는 유대인 학살의 피해자 모녀 중 딸에게 그녀가 수용소에서 몰래 가져갔던 깡통을 돌려주고 자신이 남은 삶 동안 속죄하듯이 모은 돈을 유대인 피해자 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물론 이 유언장의 내용을 미하엘을 통해 듣게 된 딸은 그녀가 행했던 참상들과 끔찍한 과거를 용서하지는 않았으므로, 그녀의 재산 또한 절대로 개인적으로 받지 않았다. 물론 갈 곳 잃은 한나의 유산은 미하엘이 딸의 허락을 구해서 유대

인 문맹퇴치 단체에 기부하게 되지만, 처음에 딸은 그 돈을 받아 홀로 코스트 단체에 한나의 명의로 기부하는 것마저 거부했다. 하지만 딸은 수용소에서 한나가 몰래 훔침으로써 잃어버렸었지만 한나의 유언에 의해 다시 되찾게 된 낡은 양철 깡통만큼은 자신이 되돌려 받겠노라고 했다. 그녀는 그 깡통 속에 담겨있는 한 사람으로써의 ‘한나’의 과거를 돌아보았던 고통과 노력, 그리고 다시금 되찾은 인간성에서 비롯된 참회의 마음을 발견하여 그것을 받아들여주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소설 속 한나의 행동들과 삶의 족적들을 따라가 보며 나는 ‘한나’라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해결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이들을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복잡한 일이고, 어찌면 비난받을 수도 있는 일 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을 이해함으로써 비난과 증오로 점철된 사회가 아닌 회복된 인간성과 눈물어린 참회를 받아들이는 사회를 맞이하고, 마침내 비극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독일과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며, 모든 민족, 모든 국가들에게도 깊게 관련이 있음에 분명하기에,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한나’를, 가해자들의 진정한 얼굴을 직면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들, 가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과거를 부인하지 않고 돌아보게 했던 용기와 참회도 함께 말이다.

### 『책 읽어 주는 남자』 : 미하엘

한나의 모순적인 모습은 계속해서 독자로 하여금 그녀에 대한 인상을 혼동하게 만든다. 나 또한 앞서 말했듯이, 한나의 이중적인 모습에 그녀를 이해하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데에 상당한 혼란이 뒤따랐다. 이러한 혼동은 ‘책 읽어 주는 남자’의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미하엘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그는 자신의 삶 전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연인인 한나의 사랑스러운 모습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나치 당원으로서의 한나의 모습 사이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한다. 이 괴로움은 결국 그들의 사랑의 마지막 순간을 비참하게 만든다. 그렇다고 해서, 미하엘의 괴로움과 고뇌, 그리고 자신의 한때, 한나를 향했던 마음과 사랑을 죄책감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이었다.

미하엘은 법학도가 된 후 같은 법학도의 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 활동 중 한 일환으로 자신들의 부모들, 즉 유대인 학살이 이루어졌던 시대에 방관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학살에 참여했던 세대들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이었다. 다른 친구들이 모두들 자신들의 부모들에 대한 혐오감을 거리낌 없이 내비치고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유죄선고를 내리자, 미하엘 또한 자신의 아버지에게 ‘수치의 선고’를 내리게 된다. 미하엘의 아버지는 사실 상 그 당시 홀로코스트가 행해지는 것에 대해 그 어떠한 기여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철학과 교수로써 스피노자의 강의를 개설하려다가 대학에서 내쫓기는 등의 오히려 그들에 반대하는 활동들을 해왔다고도 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하엘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수치의 선고를 내렸던 것이다. 나는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까지도 수치의 선고를 내린 미하엘의 자신의 민족을 향한 극단적인 수치감과 혐오감을 보면서, 미하엘을 포함한 그 당시 젊은이들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죄인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절망감과 수치심을 엿보았다.

그렇기에 미하엘은 더욱 더 한나의 모습을 재판장에서 보았을 때 끔찍한 기분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한때 열렬한 사랑을 나누었던 연인의 모습을 보고도 그는 그녀를 향한 안타까움이나 슬픔을 느끼는 대신, 재판장에 있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마비상태에 빠진 것 같다고 이야기 한다. 심지어 미하엘은 그녀의 범죄 사실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고,

한나가 자신에게 때때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내보였을 때, 그리고 책을 읽어달라고 했던 때를 떠올리며 한나가 자신을 향해, 과거 유대인들에게 가졌던 감정과 가학성을 드러내 보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하게 된다. 하지만, 과거 한나에 대한 사랑과 한나라는 사람 그 자체를 의심하면서도, 미하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한나가 문제의 보고서를 쓰는 것은 불가능 했다는 것을. 한나가 자신의 문맹을 숨기기 위하여 모든 죄를 뒤집어쓰는 것을 보고도 미하엘은 재판에서 그 어떠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는 한나가 종신형을 억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둔 것이다. 이는 미하엘이 갖고 있는 부모세대를 향한 분노와 수치심이 한나를 향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로써 도저히 한나가 과거에 저질렀던 과오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미하엘은 한나가 유대인 학살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써 반드시 자신의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녀가 여생을 그곳에서 보내야 한다고 해도 죄인에게는 징벌이 가해져야 한다는 그의 도덕관이 오히려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사건 이후 미하엘은 한나를 이해하려 집에서 가까운 수용소를 방문해 보지만, 그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그 당시의 아버규환은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 전후세대인 그에게는 결코 실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후, 그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등 평범한 생활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 행복을 오래가지 못했고, 이혼을 한 미하엘은 홀로 남게 된다. 그때 그는 한나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된다.

미하엘은 이때까지도 한나를 이해할 수 없었기에, 그는 한나를 이해하고, 예전에 분명히 한나로부터 느낄 수 있었던 깊은 공감과 감수성을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 수감 중인 한나에게 책을 읽어 그것을 녹음하여 보내주었다. 한나에게는 테이프들이 마치 구원과도 같았다. 그녀가 테

이프를 통해 글을 배우고 편지를 써서 미하엘에게 보냈을 때, 미하엘은 결코 단 한번도 답장을 하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미하엘의 태도는 한나를 다시금 정면으로 마주대하기엔, 그가 한나를 사랑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한 그의 죄책감이 미하엘 속에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내면에 계속해서 이어져 온 죄책감과 사랑의 충돌은 그에게 한나를 반기거나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내버려 두질 않는다. 한나의 출소 전날의 상황을 보기만 해도 이는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절망한 한나는 자살하게 되고, 미하엘은 한나의 계속된 사랑을 발견하며 비통해한다.

이렇듯, 미하엘이 한나를 향해 갖는 죄책감은 현대 독일인들이 자신들의 부모세대들에게 갖고 있는 죄책감과 근본적으로 같다. 전후세대의 절망은 그들의 부모를 향해 혐오를 갖게 하고 이는 자신들에 대한 혐오와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런 고통들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부모를 맹렬히 비난하고 결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그들의 과거 세대를 이해하지 않는 한, 그들의 고통은 덜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굵아 썩어 들어가는 상처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증오만이 서로 돌고 돈다면, 그 어떠한 해결책이나 발전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 책의 미하엘의 한나를 이해하고자 했던 여러 시도들이 전후세대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미하엘이 그랬듯이, 그들의 부모세대들은 분명히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의 자녀세대대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도록 짐을 지운 이들에게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들의 부모세대를 이해함으로써 그들은 죄책감과 계속해서 이어져 온 분노와 증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설령 미하엘이 이러한 노력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세대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미하엘은 끝까지 자신의 부모세대를 이해하려 노력 하였고, 유태인들에게 한나를 대신하여 사죄



하면서 고통의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또한, 그는 마지막에 그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한나의 무덤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전후세대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부모세대를 향한 분노와 혐오 보다는 그들의 근본적인 모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미하엘이 그랬듯 말이다.

### 홀로코스트, 피해자, 가해자, 되돌아본다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단 하나의 생애를 부여받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일생을 살아낸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 숨 쉬는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감정들을 느끼지만, 사람들은 이 모든 삶의 격변들을 대부분 망각하고 만다. 그럼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수많은 세월이 지나 신체와 마음의 상태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만다 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삶의 순간들이 있다. 그러한 순간들은 시간의 힘으로도 지워지지 않으며, 지나가 버린 과거로서 남아있지 않는다. 그들은 계속하여, 씬 없이 흘러가는 삶의 크고 작은 순간들의 모든 단면, 단면에 마치 한때 물방울이 떨어졌던 종이 위에 우그러진 채 남아있는 물 자국처럼 언제나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종종 지나간 일들을 회고하며 자신들의 삶 속 결정적인 순간들, 항상 존재해 왔지만 돌이켜 보지 않았던 그 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책 읽는 남자』는 삶의 중요한 순간들, 과거를 돌이켜 보는 이들의 이야기였다. 전후 세대의 미하엘은 한나와의 지워지지 않는 물자국과 같은 사랑을 돌이켜보았고, 그녀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닌 단지 이해하기 위해 그의 삶의 일부는 아니지만, 한나의 삶의 일부인 유태인 학살의 한 단면을 다시금 바라보려 하였다. 한나 또한 순수한 소년 미하엘과의 사랑을, 자신의 사라지지 않는 과오의 자국들을, 자신의 삶을 최악의 실수로 몰고 간 콤플렉스를 되돌아 봤을 것이다. 불타는 교회의 아비규환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던 두 유태인 모

너 또한 계속해서 그 시절을 회상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과거를 돌이켜 보는 것, 되돌아보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곤 한다. 하지만, 그 고통들을 인내하여 한나와 같은 가해자들은 결국 용기를 내 과거를 되돌아보았고, 유대인 피해자 모녀와 같은 피해자들 또한 자신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던 온갖 끔찍한 재앙들을 돌이켜보았으며, 미하엘과 같은 전후세대들은 그들의 위의 세대를 철저히 부정하는 대신에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죄를 함께 짊어지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자신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과거를 돌이켜 보았다. 이처럼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전후세대가 모두 함께 되돌아 봄으로써 그들은 한층 더 나은 사회와 현재의 독일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코 지워지지 않을 과거를 되돌아본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말로 고통 속에서 일궈내는 단 하나의 진정한 참회와 용서의 시작이었다.

## 아트 슈피겔만, 『쥐』를 읽다

2학년 백○○

### - 책의 첫인상

중학교 3학년 때였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언젠가 나는 이 책을 읽었다. 그 때에는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친구들이 좋은 만화책이 있다고 해서 보았고, 읽은 후에도 여운은커녕 표지를 덮으며 “뒤편, 그냥 진부한 나치 역사책이잖아!”하고 기억 속에서 잊혔더랬다. 그런 ‘쥐’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나에게 왔다. 처음에 책 표지를 보고 ‘어디서 많이 본 표지인데....’ 생각했고, 표지를 열어 첫 페이지에서 블라텍이 아트에게 ‘친구들을 방 안에다 먹을 것도 없이 일주일만 가둬놓으면 그 땐 친구란 게 뭔지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고 ‘아, 이 책!’하며 다시 만난 ‘쥐’를 알아차렸고, 반가움을 느꼈다. 다시 읽어보는데, 1~2년의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 성숙하게 하는구나 하고 느낀 것이, ‘쥐’가 나에게 더 이상 ‘진부한 나치 역사책’이 아닌 ‘블라텍, 즉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삶이 고스란히 남은 흔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치인 고양이에게 쫓기는 쥐 신세가 된 유대인들의 수용소에서의 삶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왔고, 만화책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움이 전혀 없이 깊은 공감을 하며 읽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 두 번째 ‘쥐’는 결코 가볍지 않은, 또 하나의 ‘꼭 소장해야 할, 다시 읽어보아야 할 책’ 목록에 들어가게 되었다.

## － 책 “쥐”에 대하여

“쥐”. 책 제목이 딱 한 단어다. 많고 많은 동물 중에서도, 우리가 보잘 것 없고 더럽다고 기피하는 생물체인 쥐. 그런 쥐가, 이 책에서는 나치에 의해 희생당한 유대인들로 묘사된다. 잘 읽어보면, 캐릭터 선정이 정말 잘 했다. 각각 유대인들은 쥐, 독일인은 고양이, 미국인은 개, 폴란드인은 돼지로 표현했다. 나치를 피해 다니는 쥐인 유대인들과 그런 그들을 쫓으며 잡는 고양이인 나치의 모습이 그려진다. 또한, 인간 학대의 잔인한 장면을 동물로 전환함으로써, 잔혹함과 괴리감을 줄이고 전쟁의 비참함을 부담 없이 잘 전달했다는 점에서 동물을 캐릭터화한 표현기법은 훌륭하다.

작가가 이 책을 집필하는 데 무려 13년이 걸렸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한가지의 일을 하는 데에 10년 이상의 시간을 쏟아 붓는다는 것은 그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그 일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트 슈피겔만이 직접 겪은 이야기가 아닌, 아버지 블라텍이 겪은 이야기를 그가 듣고 만화로 옮기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13년의 세월동안 작가는 그 점을 가장 염두에 두고 책을 집필했다. 실제로 그는 아버지가 한 말들을 녹음하고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했으며, 전쟁 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게 알기 위해 전쟁 당시를 표현한 책들로 책장을 채웠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전쟁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었고, 독자들에게 전쟁 세대가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이야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한다.

## － 나치는 유대인을 어떻게 학살 했는가

이 책에서는 유대인들을 죽이기 전, 나치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그려져 있다. 독자로서 그 처참한 광경들을 현실

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동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묘사해준 아트에게 정말 고마웠던 부분이다. 침대보다 유대인들을 더 많이 배정하여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밀가루에 톱밥을 섞어 만든 빵, 상한 치즈나 잼을 주는 등 제대로 된 음식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며 쉬지 못하게 하고, 이유 없이 때리고 죽이며, 결국에는 가스실로 보내 잔인하게 죽였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일꾼으로 이용했으며, 동시에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다.

나치 치하에 있던 독일군들도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들이라고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에 죄책감이 없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처참한 대학살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나치는 유대인들을 인간 이하로 전락시켜, 독일인들의 죄책감을 덜게 하고 인간으로서의 도덕성을 파괴했다. 나치는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기 전에, 유대인들을 거의 동물과 같게 만들었다. 먹을 것도 주지 않고, 화장실을 없애고, 씻지도 못하게 하고 좁디좁은 공간에 가두어놓아서 정말 말 그대로 시궁창에 사는 ‘쥐’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박탈시키고, 동시에 그들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하게 만든 것이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독일군은 어땠을까. 그들이 인간이 아니게 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본 순간, 그들은 유대인들을 더 이상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물과도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윤리적 이성을 잃고 동물을 죽이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며 감정 없이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이다.

도대체 누가 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만들었을까. 어떤 인간이 같은 인간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인’할 수 있을까. 독일인들도 결국엔 똑같은 사람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잔인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유대인이 한 종족인 건 맞지만, 그들은 인간은 아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한 말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우월성을 가졌다. 인간은 또한 우월함과 열등함을 구분하기를 좋아한다. 실제로 일상

생활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인간의 특성이다. 경제적인 능력에 의해 서비스가 달라지고, 외모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등 말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같은 인간을 나보다 하등하다고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한없이 비열한 존재로 전락한다. 그들은 언젠가부터 상대를 자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것부터 신체적인 것까지 상대에게 피해를 준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참 이기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점을 직시하고 조심해야 한다. 또 다시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면 안 된다. 상대를 자신과 다른 하등한 사람으로 보는 순간, 이미 대학살은 시작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 - 전쟁 세대와 후세대의 갈등과 그 접점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책은 나치가 유대인을 탄압했던 과거와 나치의 탄압을 반평생동안 겪은 블라텍과 그 감정을 알지 못하는 미국에서 살아온 아트트의 현재의 충돌이 교차되며 표현된다. 여기서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바로 아트트의 행동이었다. 아트트는 “쥐”를 집필하기 위해 아버지 블라텍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런데, 아트트와 블라텍은 블라텍의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무런 충돌이 없다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충돌이 잦아진다. 주로 블라텍이 아우슈비츠에서 겪은 경험의 후유증으로 안정적이고 체대로 된 일상을 살 수 없는 것으로부터 발생되는데, 블라텍의 고집이 센 것이나 새 아내 말라와의 불화, 이상한 것들에 집착하는 것들이 그 예이다. 이럴 때 아트트는 블라텍에게 짜증을 내며 블라텍을 무시하고 기피하려고 한다. 작가는 이러한 모습을 여과 없이 표현했는데, 어쩌면 그러한 아트트의 모습이 후세대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전쟁을 겪은 전 세

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그로 인한 전 세대의 상처나 후유증에는 관심이 없는 후세대 말이다. 작가는 이러한 후세대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과 아버지의 갈등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

이렇듯이, 이 책은 전쟁 세대와 전후 세대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2부의 두 번째 이야기인 ‘아우슈비츠(시간이 흘러서)’의 첫 부분에는 작가인 아트의 생활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온다. 그는 지금의 독일 사람들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대학살에 대해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고 답한다. 이 말은 전쟁 세대, 전후 세대, 대학살을 실행했던 독일, 대학살의 피해국, 지켜보던 다른 국가 모두 다 대학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항상 그 사건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학살이 단순히 겪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전후 세대가 영원히 안고 가야 할 역사이자 문제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부분이다.

또한 아트의 주치의는 블라텍은 자신이 옳았다는 걸, 항상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려 했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블라텍이 살아남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상황이 끝나 안전해지자 그 죄책감을 ‘진짜’ 생존자인 아트에게 떠넘겼다고 말한다. 이 부분은 전쟁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후 세대에 자신들이 겪은 대학살을 부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기억을 후세대에 전달하는 것을 전후 세대에 떠넘기는 것이 그 모습이다. 그와 동시에 모순적으로 전후 세대에 자신들이 직접 겪은 것들을 모른다고 말하면서 전후 세대에 전쟁을 일으킨 것, 전쟁에 참여한 것, 또한 그 전쟁을 지켜본 것들을 숨기려고 한다.

아트의 주치의는 거기에 덧붙여, 희생자들은 이미 죽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산 사람들만이 승리했다고 추대 받고, 희생자들은 비난을 받는다고 말한다. 모두가 최선의 인간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여기서 작가가 던지고 싶었던 물음은 “과연 대학살에서 살아남고 죽은 것을 구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이다. 결국 모두가 전쟁과 학살을 겪은

세대인건 같은 사실인데. 어쨌면, 산 사람들은 전쟁과 학살에 대한 후유증과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이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끔찍한 전쟁과 학살을 잊으려고 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치의는, 여태까지 많은 대학살에 대한 책이 쓰였는데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어쨌면 더 새로운 대규모 학살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다. 나는 이 부분에서 전후 세대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전쟁 세대가 어쨌든, 그 와중에 사실과 역사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계속 존재해왔다. 하지만 전후 세대는 곳곳에서 작은 전쟁과 학살을 일으키고 있다. 인종차별, 성차별, 이념갈등, 종교전쟁 등... 옛 선조들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학살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말은 그 말이다. 제 2차 세계대전같이 대학살이 한 번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몰살당하면, 그제야 문제를 인식하고 전후 세대가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인데, 나는 이 의견에 조금의 불안감과 의심을 가지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전쟁 세대도 그러한 기대를 분명히 했을 것이다. 자신들의 희생으로 후의 역사에 다시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다시 전쟁 세대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 한 번의 학살이 더 일어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있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후 세대는 전쟁 세대가 될 것이고, 전쟁이 끝난 후에 그들도 선조들처럼 자신들의 후세의 자손들에게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말할 것이니 말이다. 주치의의 말은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 - 읽고 난 후에

교과서에서, 영화에서, 책에서, 인터넷에서 결코 적지 않게 보았던 것이 홀로코스트와 나치, 그리고 유태인이다. 나는 여태까지 그들의 역사



와 삶을 어느 정도는 알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도 전후세대와 다를 바 없었다. 그들이 겪었던 전쟁을 객관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본 것이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으로 인해 어떤 사람이 죽거나 다쳤는지.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이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전후세대에게 주어진 과제와도 같은 것이다. 머나먼 얘기지만 나도 한국전쟁의 전후세대이고, 그 여파로 아직도 진행 중인 휴전 상태와 분단을 바라볼 때, 이러한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쥐’를 통해 느꼈다.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역사를 기록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후대에 선조들과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동일한 실수들이 반복되고 있는 피비우스의 띠처럼 보이진 않을까. 우리는 전 세대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그 잘못으로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의 역사를 직시하고, 그게 우리 세대에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며 우리의 후 세대에게 우리의 역사를 전달해주고 우리가 했던 실수들을 그대로 알려주어야 한다. 부끄럽지 않은 선조, 부끄럽지 않은 자손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목표는 아닐까 생각해본다.

## 독재정치는 어떻게 가능 해지는가

### - 영화 『디 벨레』를 보고

3학년 안○○

‘21세기에 독재정치가 가능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당연히 ‘아니다’ 였다. 독일의 나치즘과 러시아의 파시즘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 받는 모습을 보았고 이에 대해 교육도 받았고 사람들이 모두 경각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다시는 일어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디벨레는 나에게 굉장히 충격이었다. 이영화가 현실을 기반 하여 만들어져서 실화가 있다는 점도 놀랐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디 벨레의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관찰하다가 총기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엄청난 공포를 인식한 내 자신에 대해 더 놀라게 되었다.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독재정치의 부활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단순히 개인이나 집단이 군중을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더 이상의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단언할 수 없을 것 같다. 파시즘이라는 것이 단순히 복종되어지고 어느 한 집단이 권력을 잡고 있다는 의미를 떠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누군가는 반드시 내편일 것이라는 군주심리에 의하면 무목적 적이고 지나친 자유와 자율에 구속을 갈망하는 현대인들에게 군주정치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한 개인이나 집단을 광적으로 믿고 따르

는 지에 대해 궁금해져서 독재정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표적인 독재정치인 독일의 히틀러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람들은 풍요롭고 살기 좋을 때 영웅 같은 독재자의 출현을 원하지 않는다. 삶이 힘들고 무언가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절실하게 원할 때 설령 독재자라고 한들 ‘영웅의 귀환’을 기대한다. 사회적 불평등,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정치적 갑갑함, 민족성 자각 등이 독재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 주요요소가 된다. 독일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독일은 당시 실업자가 800만 명에 이르렀고 이러한 상황은 단기적인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일 년이나 넘게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때 히틀러가 등장하여 정권을 잡았다. 히틀러는 4년 안에 국민을 빈곤에서 구해내겠다는 약속을 했고 집권한지 3년째에 실업자는 10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는 그가 정당하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기르는 데에 기반이 되었다. 이후 히틀러는 국방 장관 블롬베르크와 밀약을 맺고 돌격대 지도부를 숙청하고 뤼프 구테타를 일으켜 자신의 정권 구축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모두 숙청하였다. 그런 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대통령이 사망하였고 히틀러는 수권법을 통해 독일의 지도자 즉 총통이 되었다. 원래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뽑아야 하였지만 군사와 경제권을 모두 쥐고 있는 히틀러는 수권법을 통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이로서 그가 가질 수 있는 한 나라의 권력을 모두 한곳에 집중시켰고 그 다음으로 의식교육을 시작했다.

히틀러는 처음에는 간단한 구호나 동작부터 시작을 했다. 처음부터 그들에게 어떤 사상을 주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공동체적 유대감이나 연대감을 느끼게 해주었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다’라는 소속감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디벨레에 나오는 독재정치의 수업과정도 이와 굉장히 유사하다. 어떤 적을 선정하고(영화에서는 무정부 수업)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나간다. 처음부터 독재나 극단의 공동체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자신의 의견은 무

조건 일어서서 이야기하기'라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 뒤로는 어떤 모임이 생겼으니 이름을 선정하고 자신들을 드러낼 수 있는, 모두가 평등해질 수 있는 흰 티에 청바지를 입기로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느 순간 독재정치 수업을 듣는대도 불구하고 흰 티에 청바지를 입지 않는 학생들에게 학생들 스스로 제재를 가하고 단지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왕따를 시킨다. 또한 자신만의 구호를 만들어 도시 곳곳에 표시하고 다닌다. 히틀러의 사상교육도 마찬가지로였다. 가난한 독일에서 아이들은 식량과 일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히틀러 청소년단'에 가입한다. 처음에는 모두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부모에 대한 사랑을 키우게 하고 그것이 점점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의 형태로 나아가게 만드는 교육을 받는다.

'디벨레'를 보고 나서 또 다른 생각이 든 것은 독일인들의 애국심이다.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은 히틀러 같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독일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고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물론 아우슈비츠에 유대인들을 학살한 주체는 그 후손들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독일인으로 자신의 나라가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고 역사 속에 존재하는 개인으로서 역사에 책임을 지게 한다. 하지만 독일은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무시무시한 일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여겨지는 애국심마저 독일인들은 마음 편하게 가질 수 없다. 또한 그들의 과거 때문에 독일에서 가장 큰 욕은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야'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나라에 온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지적받는 것을 제일 부끄러워하고 차별받는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하고 반성한다. 근데 '디벨레'에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대사가 나온다.

“나치 독일은 끔찍했지,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우리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인데 언제까지 죄책감을 느껴야해?”

아이들은 이미 나치에 대해 수도 없이 교육을 받아왔고 일부의 아이들은 그 교육에 대해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히틀러로 인해 독일의 교육제도 자체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독일은 여러 유럽의 나라들 중에서도 높은 주입식교육과 학습률을 가진 나라였는데 이 방법이 부른 극단인 히틀러 이후에는 더 이상 학생들을 줄 세우고 일등을 만들어내는 교육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서로 경쟁하여서 남을 누르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개인들이 만나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좋은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교육방식으로 바뀌었다.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즘에 전 세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독일은 성장했고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전체주의에 대해 각성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경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기여라고 생각이 든다.

나는 이 영화를 보고 나 자신과 우리나라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대부분을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고 역사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할 때도 “나치즘 같은 사태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다.” 라고 배울 정도로 나치즘에 대해서 배운다. 중학교 때 우장산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응원한 적이 있다. 분명 나는 축구를 잘 알지도 못하고 축구를 그리 좋아하는 편도 아니지만 친구들과 같이 응원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그 자체가 즐거웠고 골을 못 넣는 선수들을 욕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분명 나는 축구를 좋아하지도 않고 잘 모르지만 같이 응원을 하고 골을 넣을 때 소리 지르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 또한 한일 2002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로였던 것 같다. 사람들이 다 같은 옷을

입고 나와서 같은 노래를 부르고 응원하다가도 골을 못 넣거나 성적이 좋지 않으면 갑자기 180도 돌아서서 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치즘이라는 것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아서 그런 것이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전체주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영화를 보고나서 또 생각이 든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다. ‘디 벨레’라는 영화가 단순히 학생들이 조직을 만들고 군국주의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규율과 규칙을 만들고 그것에 따르게 만들고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서 그들의 공동체주의가 정당화 될 수 있는 역할을 했다. 더 무서운 것은 선생님도 공동체 주의에 빠져서 학생들이 자신을 따르고 단체 행동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독재 정치를 즐긴다. 또한 선생님의 자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느꼈다. 학생들에 있어서 자신들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가르쳐 주는 선생님은 절대적은 존재이다. 선생님의 행동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은 큰 변화를 보이고 부모님이 아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어른의 이상형이다. 또한 수업이나 학습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된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규율하는 면에 있어서 선생님 말이 곧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존재가 뱅어 선생님처럼 극단에 치다른 생각을 하거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에게 미칠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떤 교육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계기가 된 것 같다.

전에 읽은 ‘쥐’라는 책에서 이야기해주는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나치의 교육을 받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 소리를 지르고 혐오한다. 이 책을 읽을 때에는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나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치관과 사상이 교육되어진 것이고 이것을 과연 할아버지 탓이라고 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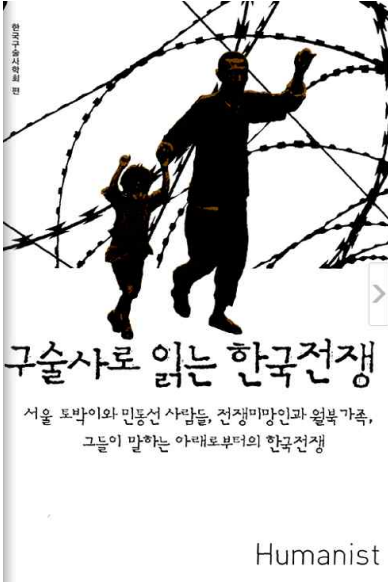
■ 전쟁을 돌아보고 평화를 생각하다

있을 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다. 스스로 성찰하고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교사라는 직업이 한 사람 아니 다수의 학생들의 생각과 사고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찰하고 반성해서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한국 전쟁”

손창섭, 「잉여인간」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 문학 작품 속의 6·25 전후

### - 손창섭 「잉여인간」을 중심으로 -

3학년 김○○

20-20클럽에서 활동은 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어간다. 3년 째 이 동아리에서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결과물과 나의 만족감 모두 높은 편이다. 좋은 기회를 얻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또한 이 프로젝트로 3년간의 동아리 활동을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동시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계기를 제공’ 하는 것이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비극이자 아픔이었던 한국 전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하는 생각을 해보곤 한다. 분명한 것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졌을 거란 것이다. 전쟁은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는 국가에서 개인에 이른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전쟁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들 중 문학 작품 속에서의 변화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했다. 그래서 파트너와 함께 작품을 고르고 여러 번 얘기를 나눠 보았다. 그렇게 해서 고른 작품이 손창섭 작가의 「잉여인간」이다. 단편소설이었지만, 결코 적지 않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가장 문제적인 전후 소설가 손창섭은 장용학과 함께 1950년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황폐화되고 불구화된 전후 상황 속에서 개인의 삶의 무의미에 대한 가치부여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육체적·정신적 불구자이거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이며 그들의 행위는 무의미하다.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탐구를 주제로 했던 기존의 소설과는 달리 지금까지는 은폐되었던 인간의 무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현대문학대사전, 2004. 2. 25.) 손창섭이 작품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병자의 노래’, ‘모멸의 인간상’과 ‘병신스런 인물’이라고 비평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위의 소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손창섭이 그만큼 전후의 인간상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러한 고민의 결과들을 소설로 나타내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마 그래서 그의 대표작 「비오는 날」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그에 비해 우리가 고른 ‘잉여인간’은 전쟁의 아픔만이 묻어나지는 않는다. 다른 그의 소설들처럼 전쟁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와중에도 상처받았지만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가진 인물들이 몇몇 등장한다. 내가 이 소설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회복 가능성,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이 절망적이면서도 절망적이지 않다고 느껴졌던 것 같다.

소설에서 어떤 부분이 좋았다고 얘기하기 보다는 등장인물들을 놓고 이야기 하고 싶다. 당연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등장인물은 바로 서만기이다. 서만기는 ‘만기 치과의원’의 원장이고, 집안도 좋고 어렸을 적부터 교육을 잘 받아와서 상당히 교양이 있는 사람이다. 외유내강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만큼 남자로서도 가장으로서도 듬직한 사람이다. 소설 속 등장인물들 중에서 전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는다면, 서만기는 결코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이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만기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그의 어려움이 그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하기 때문에 더 돋보인다고 생각한다.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를 가지고 그는 한 때 아내의 가족들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의사라

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중학 동창들 중에서 가장 나은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처지도 딱하다. 게다가 봉우 처에게 병원을 담보로 한 협박성 유혹을 당하기도 한다. 전쟁이 끝난 후라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나가기에 급급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그가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까지도 전쟁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래저래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천봉우이다. 봉우는 일자리를 가지지 않고 만기 치과의원에 매일매일 비공식적이 출근을 한다. 그러곤 대합실에 누워 신문을 뒤적뒤적 거리다가 잠에 든다. 중학시절의 그는 재기발랄한 야심가였지만, 전쟁 통해 양친과 형제를 잃고 인간사에 흥미가 점차 줄어들다가 현실사회에 시들해져버린 인물이다. 그는 잠을 잘 때에도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잠을 자는데 한국 전쟁 사변 때에 빨갱이와 공습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 때문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기에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다고 한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잠을 잘 때에도 온갖 소리를 다 들으면서 잔다. 전쟁에 대한 심리적 긴장 현상이 나타나는 인물이다. 항상 하루를 대합실에서 잠을 자며 무기력하게 보내지만 가장 눈이 빛날 때가 있다. 만기 치과의원의 홍인숙 간호사를 볼 때이다. 봉우는 인숙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도 그렇다고 드러내지도 않는다. 내가 느꼈던 봉우의 인숙을 향한 마음은 가장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얻었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그 상처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각박한 삶속에서 사랑이 어떤 힘을 줄까도 싶었다. 그렇지만, 생각을 더욱 확장시켜 봤을 때, 전쟁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순수하게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으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 또한 느낄 수 있었다.

봉우 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소설 속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인물이다. 돈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당시 여성들과는 달리 속물적이고 돈밖에 모르는 인물이라 형제들 틈에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재산을 꽤 모으게 된다. 만기를 좋아하지만 돈을 이용해서 만기의 마음을 얻으려 하고 병원 건물을 담보로 걸고 만기에게 관심과 사랑을 갈구한다. 그가 그녀의 마음을 거절하고 거부하자 병원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연락을 하면 다시 생각해볼 의향이 충분이 있다는 것을 밝힌다. 아마 손창섭 작가가 가장 부정적으로 그리고 싶었고 비판하고 싶었던 인물이 그녀인 것 같다. 전쟁이 끝나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상황을 오히려 역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자 그녀를 등장시켰던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해 아마 소설을 읽은 사람이라면 전부 그렇다고 생각할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그녀를 느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들 무기력하게 삶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난 그녀에게서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생기, 삶의 의욕을 보았다. 물론, 그녀의 삶의 방식과 방향성은 잘못되었다. 하지만, 나는 무기력함의 대표적 인물인 봉우와 달리 봉우 처에게서 뿔어져 나오는 삶에 대한 욕망까지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만기와 봉우와 더불어 중학 동창 중 한명인 채익준이 있다. 익준은 ‘비분강개파’라고 소설 속에 나온다. 봉우와 함께 직장 없이 대합실에 나와 시간을 보낸다. 그는 매일 신문을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꼼꼼히 읽는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문 속에 조금이라도 비판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의 별명대로 비분강개하며 주변 사람들을 붙잡고 비판을 하기 시작한다. 그가 겪고 있는 시련은 직장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다.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봉우처럼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만기를 통해서도, 자신이 직접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 그 일자리를 찾아 집을 며칠 비우게 되는데 하필 그의 병든 아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과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아버지 없이 장례를 치룬 아이들과 집으로 돌아온 익준이 만나면서 이야기가 끝난다는 것이다. 이 장면이 이 소설의 비극성을 더욱 더 심화시키기고 소설을 읽고 난 후 더욱 그에 대한 동정심과 애잔함이 생겨나게끔 했다.

그를 통해서 그 당시 사회가 얼마만큼 썩어있었고 비판의 여지가 충분했는지 알 수 있었다.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을 보면 전쟁 전후로 해서 한국에 전쟁으로 인한 아픔보다 오히려 이념의 갈등이라든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 갈등으로 인해 우리가 더 아파했음을 알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끓어가고 있었고 그에 대해 비판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삶의 대부분을 여러 전쟁을 겪으며 보냈던 손창섭 또한 그러한 사람들 중 한명이지 않았을까. 그는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그리고 한국전쟁 등을 겪었다. 당연히 그도 전쟁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작가답게 비판의식을 소설 속에 투영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만기처럼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이 시기를 견뎌내는 인물들이 더 있다. 바로 만기의 처, 은주와 흥인숙 간호사이다. 둘 다 만기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있고, 이 각박한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인물들이다. 경제적으로 둘 다 만기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지만, 만기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은주는 함께 살던 집에서 만기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가족들을 데리고 독립했고, 인숙은 봉우 처에 의해서 병원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자 자신이 지금까지 받았던 봉급들을 고스란히 모아 개인 병원을 차리는데 돈을 쓰라고 한다. 아마 만기가 익준과 봉우와 달리 긍정적인 에너지로 버틸 수 있었던 이유에 이들도 한 몫 하지 않았을까.

이 작품을 읽고 인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자연스레 「잉여인간」

이라는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된다. ‘잉여인간’이란 ‘남아도는 인간’, ‘삶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상실한 인간’을 지칭한다. 아마 이 소설 속에서는 익준과 봉우가 잉여인간인 것 같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잉여인간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내 생각에는 시대가 주었던 아픔이 가장 큰 것 같다. 여기에 더욱 상처를 내는 봉우 처와 같은 사람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만기, 은주와 인숙과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전쟁의 혼란기를 이겨냈고, 아직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 놓여있지만 사람들이 안정을 찾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다.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이상 잘 알지 못하고, 잘 알 수가 없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 용서를 통해 후세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에 응하는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 피해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대한 완벽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족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과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후세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제대로 문제를 직시할 수 있게끔 말이다. 그리고 완전하진 않지만 지금 보내고 있는 이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이고 역사 속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워하던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 한국 전쟁 전후의 인간상

### - 손창섭, 「잉여인간」을 중심으로 -

3학년 유○○

얼마 전 광복 70주년을 맞아 tv속에서는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8월 15일이 토요일임을 감안해 나라에서는 대체 공휴일제를 실시하였다. 그렇다. 대한민국이 광복을 마지 한지는 어느 덧 70년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광복이외에도 기억해야할 1940년대 50년대의 획을 그은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 바로 한국 전쟁이다. 한국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큰 영향을 끼쳤으며 분단과 이산가족 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전쟁은 그 성격과 정도에 상관없이 사회적, 개인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는 곧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한국 전후 우리 사회의 인간상을 나타낸 소설을 선정해 이를 분석하고 감상하려 한다.

손창섭의 「잉여인간」은 그의 또 다른 작품 비오는 날과 함께 전후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소설 속에서 대표적인 등장인물은 만기, 익준 그리고 봉수이다. 만기는 번듯한 집안에서 자라 잘 교육받고 외모 또한 번듯한 귀공자 이미지의 치과의사이다. 그는 성품 또한 훌륭해 항상 여자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낡은 건물에서 오래된 기구로 치료를 하지만 출중한 실력과 빼어난 외모 덕에 그의 10명에 다리는 식구를 빼듯 하게 먹여 살린다. 그런 만기의 치과에는 항상 한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만기의 중학교 동창 봉수와 익준이 있다. 봉수는 병원 간호사 인숙을 진심으로 짝사랑하는 인물이다. 그녀의 출근시간에 병원에 와 남몰래 그녀를 흠모의 눈길로 쳐다보고 인숙이 퇴근 할 때 엄마를 쫓아

가는 아이처럼 졸졸 따라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처량히 돌아가는 것이 그의 일상이다. 봉수에게는 아내가 있지만 아내는 봉수 집안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만기를 물질적으로 꼬시려고 하는 그저 형식적인 부부 사이이다. 봉수는 그런 아내에게 큰소리 한번 치지 못하는 무기력하지만 순수한 인물로 묘사된다. 만기는 항상 웃는 얼굴로 자신을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는 아내와 그 못지않게 몰래 그를 숭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처제 은주를 포함한 자신의 식구들을 먹여 살리지만 그는 항상 물질적으로 빠듯한 생활을 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민과 걱정을 털어 놓지 않고 혼자 견뎌내는 인물이다. 인숙의 급료조차 3개월 치가 밀려 있는 상황에서 만기는 자신의 병원을 찾아온 익준의 아들을 본다. 익준은 매일 아침마다 병원에 와 신문을 읽으며 사회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고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정작 그는 그런 깔끔하고 아집 있는 성격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 없이 가족에게 남편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 익준의 아내는 아파 앓아누운 지 반년이고 죽음이 가까워져 올 때 아들이 애타게 아버지를 찾지만 익준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만기는 마음이 심란해진다. 그 와중에 인숙은 진심으로 봉수의 사랑이 부담스럽다며 만기에게 도움을 청하고 만기의 마음은 더더욱 무거워진다. 봉수의 처는 만기가 치과를 하고 있는 건물의 주인으로 곧 건물의 세를 올리거나 치과와 기구를 팔아넘기겠다고 만기에게 말한다. 그러나 그에게 금전적으로 새로운 개업을 도와주겠다고 계속 그에게 추파를 던진다. 금전적으로 힘든 만기였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생각해 그녀의 제안을 묵살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익준의 아들이 다시 한 번 아버지를 애타게 찾으며 병원에 찾아오고 익준의 아내가 죽었음을 알게 된다. 정작 익준은 약값이라도 벌어 보겠다고 공사현장에 나가지만 이미 아내는 죽은 뒤고 머리까지 다친 채 돌아와 만기가 봉수의 처에게 급하게 돈을 꾸어 장례 준비를 하는 것을 허망하게 바라보며 소설이 마무리 된다.

이 작품을 보며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떠올랐다.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언뜻 보면 돈을 갖기 위해 서로 쫓고 쫓기는 보안관과 킬러 그리고 조폭의 이야기를 다룬 액션영화 같지만 영화 후반부 20분, 허무한 결말을 내리며 조연같이 보였던 은퇴한 보안관의 의미심장한 말로 마무리 된다. 영화를 보고 이해가 가지 않아 나중에 따로 해석을 찾아보았는데 다양한 해석이 있었지만 내가 가장 와 닿았던 해석은 이것이었다. 영화 『노인의 위한 나라는 없다』는 80년대 경제적으로 힘든 무기력한 미국인을 묘사하며 허무주의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었다. 영화의 각 캐릭터는 사회를 대표하는 인간상을 묘사하고 있었으며 특히 은퇴한 보안관은 영화의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노인'이며 이슈화 되고 있는 사건을 접하면서도 자신의 직업에 맞게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사명감을 잃은 인물을 표현한다. 또한 노인으로써 꺼져 가는 생명력에 대한 열망 또한 이 영화가 표현하고자 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영화는 내가 본 영화 중 손에 꼽을 정도로 인상적이었으며 좋아하는 영화이다. 그 이유는 영화 스토리 전개 측면에서 영화가 지루함 없이 손에 땀을 쥐며 보게 하다고 후반부 20분부터 긴장이 딱 풀리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결국 이 영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 이었고 그런 것들을 스토리 전개나 영상미 보다는 인물 한명, 한명을 대표하는 인물로 표현해 특징을 살림으로써 전달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손창섭의 「잉여인간」 또한 전후의 우리 사회의 인간상을 각각의 인물을 통해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작품 '비오는 날'이 전체적으로 장마가 계속되는 우울한 배경을 통해 전후의 사회 모습을 전달하려고 했다면 '잉여인간'은 뚜렷한 인물들로 그 모습을 대변하려고 한 것 같다. 먼저 가장 주된 인물로 묘사되는 만기. 그는 아내, 처제, 은숙 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에게 사랑을 받고 인기도 많은 유능한 치과 의사이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며 대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어깨가 무거운 가장이다. 그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도 항상 웃으며 환자를 돌보고 아내의 가족까지 돌보는 선한 인물이다. 마지막 순간에 친구 아내의 죽음

을 무시할 수 없어 봉수의 처에게 부탁을 하며 돈을 꾸 장례준비를 해 준다. 그런 그의 모습을 우리는 무능력하다고 비판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의 모습은 한국 전쟁 전후 사회에서 보기 드문 인간상이라고 본다. 그는 항상 겸손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며 미안해 할 줄 알고 연민할 줄 안다. 그런 그이기에 급료를 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새로 개업할 병원 창업비를 보태겠다는 간호사 인숙, 가족을 잘 살피는 모습을 보며 그의 그런 모습에 반해 죽을 때까지 몰래 그를 바라보겠다는 처제 은숙,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며 묵묵히 그를 뒷바라지하는 현모양처 아내까지 그에게는 주변사람들의 사랑과 도움이 있다. 어쩌면 작가가 원한 전후 사회의 인간상은 한국 전쟁이라는 참혹한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능함과 가진 것에 상관없이 남을 사랑할 줄 알고 가여워 할 줄 아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또한 항상 신문을 보며 비판을 하는 익준은 사회에 불만을 가진 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신문을 보며 가짜 약을 속여 진짜 약처럼 판 사람들을 맹렬히 비난하며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일자리 하나 없이 가정에서 제대로 된 가장 구실도 못하는 인간이다. 전후 일자리가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본다. 자신의 성격 때문에 막 노동도 잘 하지 못하는 그 이지만 비난의 화살은 항상 자신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향한다. 사회에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사회의 잘못으로 돌리는 자기합리화를 보여준다. 작가는 그를 통해 전후 사회에서 무능력한, 하지만 노력조차 하지 않는 인간을 비판 하고 싶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봉수는 전후 사회의 대표적인 인물로써 무기력함을 상징한다고 본다. 그는 가장으로써의 권위를 버린 순수하지만 가장 무기력한 인물이다. 아니 어쩌면 더 나아가 한 인간으로써의 지위조차 잃어버린 길을 잃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봉수는 원래도 열정적이지 않았지만 한국 전쟁 이후 더욱 무기력하고 쓸모 없는 인간으로 전락한다. 이는 가장 직접적으로 정신적으로 전쟁이 한 개인을 어떻게 타락시키는지 보여 준다. 작가 손창섭은 이 작품을 통해

■ 전쟁을 돌아보고 평화를 생각하다

전쟁이 낳은 세 명의 잉여인간을 보여주며 비판하고자하고 또한 지향하는 인물상을 잘 묘사한 것 같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21세기 우리 사회에서의 잉여인간은 누구 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 J. M. 쿣시, 『어둠의 땅』에 대하여



## 야코부스 쿿시의 이야기

### - J.M.쿿시의 『어둠의 땅』을 읽고

3학년 민○○

책을 통독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쿿시가 재현한 식민주의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잔인한 것이어서, 웬만한 비위로는 단 번에 읽을 수 없다.

쿿시는 주인공 야스부스 쿿시의 시각에서 남아프리카의 초기 탐험자들이 원주민들을 어떻게 ‘길들였는지’ 세밀하게 묘사한다. 작가와 주인공의 성이 ‘쿿시’로 동일한 것이 독특하다. 이는 마치, 작가 쿿시와 주인공 쿿시가 친족 관계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한다. ‘오킨이의 글’에 의하면, 작가는 “가해자(식민주의자)의 후손이라는 자신의 실존적 상황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자신의 공모 관계를 부각시키고자(215쪽)”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들의 심리를 면밀히 파헤친 것은 이 소설의 놀라운 특징이다. 네덜란드 식민주의자들은 짐승을 대하듯이 원주민을 대한다. 원주민 집단을 차라리 짐승의 한 종류로 생각하고 소설을 읽는다면 혐오감이 덜할까? 그렇다면 하더라도, 네덜란드인의 폭력은 지나치게 혐오스럽다. 양심의 가책은 고사하고 증오에 찬 이 폭력의 행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폭력은 누구도 반감을 가지지 않는 다분히 일상적인 것이었다. 쿿시가 가해자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그 것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나는 이 일상적 폭력과 인종차별의 근원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자. 남아프리카공화국<sup>3)</sup>은 1488년 희망

---

3) 물론 당시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라는 국명은 없었다.

봉의 발견으로 유럽인들에게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나, 네덜란드인은 17 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곳에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동인도제도와 중계 무역을 하기 위해 케이프타운에 식민지 깃발을 꽂았다. 하지만, 얼마 후, 군대를 앞세운 영국인이 대거 이주하자 내륙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소설은 바로 이 과정에서 백인 이주 세력과 흑인 토착 세력이 겪은 갈등<sup>4)</sup>을 묘사한다. 갈등의 역사 속에서, 이주 네덜란드인은 자신들을 독립적 실체로 자각하며, 스스로를 ‘보어인(Boer)’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는 본격적인 신분 구분의 징표라고 할 수 있겠다. 이 후, 영국령과 독립 공화국시절에 이르기까지 ‘아파트르헤이트’라는 법아래 합법적인 인종차별이 이뤄져 왔으니, 남아공에서 인종 차별의 역사는 아주 뿌리 깊다고 할 수 있다.

자 이제 소설로 돌아가자. 배경은 18세기이다. 주인공 야스부스 쿿시는 네덜란드 이주민으로, 여느 이주민들과 같이 원주민 호텐토토족을 노예로 부리며 살고 있다. 소설의 초반부에 쿿시는 호텐토토족과 더불어 부시먼족을 소개하는데, 식민주의자가 원주민에게 가지고 있는 인식이 드러난다. 쿿시는 부시먼족을 ‘짐승의 영혼을 가진 야생 동물’이라고 지칭한다. 그러면서 부시먼족의 비인간성을 묘사하며 그들에 대한 경멸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데,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듯하다. '문명화'된 서구인의 눈에는 때를 지어 인간을 맨 몸으로 '습격'하는 그들이 짐승처럼 무서웠을 것이다. 원주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런 부시먼을 '사냥'하는 식민주의자들의 모습은 부시먼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고, 그 방법은 오히려 더 잔인하다. 게다가, 부시먼은 '양금'이 있는 인간을 공격하지, 무작위로 '사냥'하지 않는다. 그 '양금' 역시, 네덜란드인들이 부시먼을 학살하고, 그 거주지를 무단으로 빼앗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하지만 과렴치한 네덜란드인들은 침탈을 인정하지 않는다. 뻔뻔한 것도 아니고, 이해하지 못한다.

---

4) 갈등보다는 약탈에 가깝지만, 가해자의 시점에서 쓴 소설이므로.

뿌리 깊은 제국주의 논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들이 또 다른 원주민, 호텐토토족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뭇 다르다.

‘그들(호텐토토)는 올라가고, 우리는(네덜란드인)은 내려가면서 모든 곳에서 차이가 점점 더 좁혀지고 있었다. ... 누가 누구를 닮아 가는 지 모를 일이다. ... 그들에게 아직도 배어 있는 호텐토토 냄새가 우리 중의 일부에게서도 난다.’

컷시는 자신들과 호텐토토 사이에는 차이가 거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신분을 구분 지어주는 한 가지 결정적 요소가 있다.

‘우리를 호텐토토 들로부터 구분해주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다. 우리는 기독교도이며 그건 운명이다. 그들도 기독교도가 되지만, 그들의 기독교 신앙이란 공허할 뿐이다. ... 그들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혹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폭력과 신분의 분리를 정당화하는 신성불가침의 요소는 종교이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모든 네덜란드인의 신앙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호텐토토의 신앙이 불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그 것은 컷시를 비롯한 네덜란드인의 자의적 해석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분을 위한 구실일 뿐이다. 사실상 그들은 신체적 억압과 위협으로써 원주민과 자신들을 구분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선택받은’ 유대민족을 위한 종교였던 유대교에서 그 대상을 자의적으로 확장시키며 발족한 기독교가 분리의 명목으로 사용된 것이다. 네덜란드인들은 우스운 변명거리로 원주민을 자신들로부터 필사적으로 분리했다. 힘의 논리를 멋들어지게 포장한 제국주의 논리가 그 기반이다.

야스부스 컷시는 나파카 지역으로 코끼리 사냥을 나갔다가 병에 걸리고, 나파카족이 그를 간병한다. 컷시의 부하들은 나파카의 친절에 융화되지만, 컷시는 도리어 장난을 치는 나파카족 아이의 귀를 물어뜯는 등 파렴치한 식민주의자의 태도를 보이고 결국 나파카 지역에서 쫓겨난다. 본거지로 돌아온 컷시는 후일, 나파카를 습격하여 원주민과 자신

의 전 하인들을 몰살하며 소설은 끝이 난다. 쿣시의 식민사관은 끝끝내 극복되지 못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소설은 제국주의·식민주의의 야만성과 그 것의 비이성적 논리를 고발한다. 그런데, 작가의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나는 오늘날의 인류에게 그 논리가 건재함을 깨달았다. 식민주의의 핵심은 경멸에서 비롯된 분리와 차별이다. 식민주의의 바로 그 논리는 천부인권설로 이어진다. 인간은 여타 동물과 달리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존엄성이 있다고 했다. 인류의 모든 법이 저 한 문장에서 비롯된다. 인류가 직립보행을 한다고 해서,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지능이 높다고 해서, 자아실현을 갈망한다고 해서 등등 어떤 이유로도 인류가 특별한 존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천부인권설은 이미 뿌리가 깊고, 인류는 모든 다른 동물을 서식지를 침탈했으며, 도리어 우리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침범하는 동물을 학살한다. ‘문명’이라는 멋들어진 단어로, ‘야만’을 경멸한다. ‘문명’은 무엇이고, ‘야만’은 무엇인가. 근대 식민주의를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 어둠의 땅을 읽고

### - '베트남 프로젝트' 를 중심으로

3학년 김○○

#### ▶ Dusklands, evening-lands, das Abendland and Europe

어둠의 땅이라는 소설의 제목을 처음 보고 내가 떠올린 건 김원일 작가의 소설 「어둠의 혼」 이었다. 밝고 경쾌한 것과는 거리가 먼 ‘전쟁’이라는 소재는 평소에 선뜻 손이 가지 않았지만, 참 우연한 기회에 한국 전쟁을 담은 소설을 읽었다 싶었는데, 이번에 「어둠의 땅」이라는 책을 읽게 되어 기분이 묘했다. 둘 다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라는 공통점도 있었고, 제목도 참 닮았다 싶었다. 제목처럼 어두울 것이라고, 또 난해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일단 책을 펼치는 데 과거의 독서경험이 큰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작가 존 쿿시의 작품경향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 짐작했겠지만, 작품의 제목은 작가가 ‘유럽’이라는 단어를 풀어 쓴 것이었다. 전쟁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강대국의 식민주의를 그려내고자 했던 그의 의도가 반영된 제목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훌륭한 작가는 제목으로 말한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다.

▶ 나는 내 일을 믿는다. 내가 나의 일이다. ‘베트남 프로젝트’는 지난 일 년 동안 내 생활의 중심이었다. (p.12)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 소설이 워낙 쉽지 않아서, 내 역량으로 완벽한 감상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 나름대로 인상 깊었던 구절을 몇 가지 골라 구절에 대한 감상을 적어보려 한다. 사실 이 작품에서 제일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던 구절을 꼽으라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첫 구절을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이름은 유진 돈이다. 그건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일 먼저 첫 구절을 꼽지 않았던 것은 주인공 유진 돈이 실제로 첫 구절에서 드러나는 것만큼 순종적이고 운명론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 같지는 않아서였다. 자신에게 주어진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끝내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건 누구나 가진 욕망인가 보다. 지금부터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는 이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그녀는 나하고 결혼하면서 내가 자기처럼 순응주의자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순응주의자인 적이 결코 없다. (p.24)

작품의 시선이 자신의 상사 존 쿿시에 대해서 이야기 하던 것을 멈추고 어느 순간 자신의 아내를 향한다는 초기 내용부터 심상치 않았다. 작품의 페이지가 누락된 것은 아닌가, 내가 놓치고 넘어온 부분이 있거나 싶어서 몇 번을 다시 보았는데, 아직까지도 매끄러운 연결로는 보이지 않지만, 소설에서 아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공과 아내가 갈등을 일으킨 원인도 결국 서로 극단을 달리는 성향 때문이었다. 둘은 상대방이 자신의 성격을 닮기를 원했거나, 자신의 성격을 닮아 가리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비극적인 결말을 위해 이보다 완벽한 설정이 있을까. 다소 비약을 섞어 말하자면, 유진 돈이 아내의 가치관에 익숙해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의 베트남 프로젝트는 사회에서 ‘매장감’이 되었다. 그는 남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원치 않았고,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그 만의 세계에 이미 매료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우리는 모두 다소간 몇몇치 못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죄의 원인은 죄보다 덜 중요하다. (p.30)

유진 돈과 그의 아내 사이의 애정전선에 이상신호가 발현한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아내는 유진 돈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그만두는 단계에 이르렀고, 유진 돈은 그런 아내의 세계를 인정한다. 유진 돈이 베트남 프로젝트를 위해 한동안 베트남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사활을 걸었지만, 그만큼 프로젝트가 끝난 후 자신에게 남은 건 이미 내면적으로 황폐화된 육체와 정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도 유진 돈이 가지고 있었던 위와 같은 사고 때문이다.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일으키는 쪽도 논리에 부합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표면적인 명분을 가지고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다. 전시 중인 베트남,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서 유진 돈이 눈에 담았던 참상들이 그에게 저런 생각을 심어준 것이다. 그리고 그게 유진 돈의 가정, 더 나아가 생활 전반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 신화는 예언의 힘을 갖고 있는 한 진실이다. 말하자면, 작전상 진실이다. 뿌리가 깊고 보편적인 신화일수록 그것과 대적해 싸우는 일은 더 어렵다. …… 신화서술학은 신화를 뒤엎고, 수정하는 일이 더 좋은 반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최고의 선전은 새로운 신화의 보급이다. (p.49-50)

유진 돈이 대체 어떻게 베트남 프로젝트를 마무리했기에 작품 초반에 상사로부터 자진 퇴사를 중용받았을까 궁금했는데, 결국 그 내용이 나왔다. 유진 돈이 하는 이야기가 도저히 평범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신화서술이라는 생소한 분야의

담당자라는 사실이었다. 대체 베트남 전쟁과 신화서술 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기에 작가는 굳이 주인공을 신화서술이라는 특정 분야에 심취한 인물로 묘사한 것인지 묻는다면 내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 전쟁은 단순히 이념간의 문제나 국제적인 힘겨루기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앞서, 베트남의 역사에만 국한시켜 본다면 전통적인 베트남 사회가 현대로 넘어오는 격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신화가 애초에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 진 허구라는 주장도 만연한 마당에, 그가 서술한 시각은 그에게는 당연한 것이었던 셈이다. 작품을 읽다보면 유진 돈이 유난히 베트남 신화 속에 드러나는 ‘나약한 아버지의 삶’을 조명하는데,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도 베트남만큼 모계 중심 사회로서 여성이 부각되는 나라로는 유일하다는 점을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부권이 평가절하 되는 양상도 자연스럽다. 물론 작가의 의도는 일차원적으로 베트남의 신화에 주목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종식에 심리전만큼이나 효율이 좋은 방법은 없다는 당시의 지배적인 흐름에서 기인한 일종의 전술로서 신화가 지니는 가치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고 보는 것이 제일 기본이 되는 사실이어야 할 것이다.

**▶베트남은 나한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했다. 나는 슬픈 상처가 났다는 은유를 사용한다. (p.61)**

전쟁이 끝나고 더 이상의 베트남 프로젝트는 무의미한 것이 되자 유진 돈은 비로소 피폐해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그의 정신과 그의 삶은 이미 전쟁이 베트남을 세차게 할퀴 때 함께 찢겨나갔고, 그로 인해 말 그대로 넝마가 되어 극심한 정신 분열을 겪는다. 실제로 베트남전은 베트남 국민은 물론이고, 전쟁에 참가했던 많은 국가들에게도 심한 상처를 남기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유진 돈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인물이

다. 전쟁이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무서운 존재라는 가르침과 더불어, 전쟁의 종식이 개인의 고통과 절망의 종식과 결코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줄지에 자신의 전부를 잃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그 상처는 아마 평생 자신이 안고 살아가야 할 상처라는 점을 스스로 직감했기에 ‘슬픈’ 상처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저 슬픔은 단순한 상처의 깊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쟁의 잔혹함을 극명히 드러내기 위한 문장을 작가가 사용했다는 정도로 짚고 넘어간 것이라는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다.

**▶나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방을 싸서 아들의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가라.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도시를 떠나라.” (p.67)**

주인공 유진 돈이 운명론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제시된 구절이다. 전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생활을 벗어나 아예 먼 곳으로, 즉 베트남에 대한 기억을 조금이라도 떠올릴 수 있는 곳에서 벗어나,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동시에 자신이 아는 것도 없는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속한 사회와 삶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그는 실직 상태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가장이자 남편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일종의 족쇄를 차고 있는 인물이다. 도시를 떠나 생판 낯선 곳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에 친숙함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무언가 지금의 상황에서 달라질 것이 있으리라는 희망 말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달라진 것 하나 없는 현실이 그를 찾아 왔고, 주인공 유진 돈은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이 사라졌음을 직감하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에 이른다.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 그는 베트남 신화 속 ‘나약한 아버지’와 다를 게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그의 입으로 새로운 신

화의 보급이 훌륭한 반격이자 최고의 선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베트남전의 결과는 그의 계획을 단 하나도 실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이 나 버렸다. 유진 돈은 그 누구보다도 ‘아들’이라는 존재가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베트남전에서의 패배가 그의 계획을 따르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그의 계획도 결국 무의미한 것에 불과했다고 생각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이 어떤 것이든 간에 결국 그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하나로 귀결된다. 그는 그의 상황에서 제일 옳은 일을 했다고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작품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왜 그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지 공감하게 되는 저마다의 해답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서만이 나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불확실한 삶을 살아왔다. 질서를 유지하는 건 나의 천성이다.**  
(p.82)

작품의 *프트머리*는 ‘질서’를 바로잡는 것의 의미에 대해 논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의 질서는 전쟁 후의 혼란이 수습되고 나서 안정한 상태에 진입하는 단계를 소망하는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혼란을 겪는다. 혼란을 겪고 나면, 그것을 겪기 전에는 이것이 안정된 삶인지 불안정한 삶인지, 건강한 삶인지 피폐한 삶인지를 가늠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혼란을 겪고서야 비로소 ‘기준’이라는 것이 정립되기 때문이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혼란이 시작되지만 그러한 혼란의 산물이 기준이라는 사실은 한 번쯤 되짚어 생각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임에 틀림없다. 같은 맥락에서 전쟁을 겪지 않으면, 전쟁 전과 전쟁 후의 상황이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작가가 전쟁을 옹호하는 것은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상 결코 아니다. 작가는 유진 돈의 입을 빌려 전쟁

## ■ 전쟁을 돌아보고 평화를 생각하다

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개개인에게 달려있다고 말한다. 전쟁은 개인의 잘못이 합산된 것일까, 아니면 개인의 잘못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사회의 잘못된 판단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작가가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다만 독자인 우리로 하여금 전쟁 뒤의 평화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환원된다는 점을 던지시 일깨우는 것이 작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뿐이다.

## 『어둠의 땅: 베트남 프로젝트』를 읽고

3학년 김○○

컷시의 베트남 프로젝트라는 소설은 유진 돈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긴 어렵지만 유진 돈은 베트남 전쟁에서 심리전에 대한 글을 쓰는 게 목적이다.

베트남 프로젝트를 읽는 내내 드는 생각은 이 사람 약간 미친 것 같다는 것이다. 유진은 컷시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 하고 병적인 정신 상태를 보여준다. 우울증의 증세가 나타난다고 말하기도 하며, 자신의 굶은 등과 눈빛에 자신감이 없다. 물론 이러한 유진 돈의 정신상태에 대해서 완전히 공감을 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니다. 나도 한 번쯤은 생각 해본 것들이 담겨있었고 이런 감정표현이 굉장히 세세했기 때문에 놀라기도 했다. ‘고도의 자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경우도 대비해둔다. 나는 한사람이 학생이기를 그만두는 순간, 즉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순간에는 배반당했다고 느끼는 스승들의 질투 어린 반격을 예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와 같은 부분은 과거에 느껴본 적은 있지만 누구와 공유해본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작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책에 대한 흥미가 늘어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몇몇 감정서술에 공감을 하기도 했지만 페이지가 뒤로 가면 갈수록 유진 돈의 정신 상태는 이상해진다.

유진은 계속 ‘나는 평화와 사랑, 영양과 햇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데 이 말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가 보이는 다른 행동들과 어울려 보았을 때 정말 정신이 나간 것 같다. 그는 ‘매럴린은 사랑에 대한 양자고정이론을 믿는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다른 대상에 사랑을 쏟는다면 그 사랑은 그녀에게서 도둑질해 간 것이라는 이론이다. 그런 이유로 그녀는 내가 베트남 프로젝트에 점점 더 깊숙이 빠져 들자 나의 일을 점점 더 질투하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사실 여자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본다. 결혼생활에서 남편이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일만 한다면 서운함과 질투심을 가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유진은 이러한 감정을 이론이라고 말하며 약간 부인을 하듯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안겨준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매럴린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불행한 여자다.’라고 말하며 무시하기도 한다. 또한 유진은 매럴린이 자신이 출세하길 바라는 이유가 그녀의 이기심에서 우리나라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녀가 바람을 피면 더 매력적일 것이라는 보편적으로 사랑해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모습은 아니다. 이러한 유진이 매럴린에게 느끼는 사랑은 아니지만 변태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기분이 점점 더 더러워진다. 이런 면에선 작가가 남성을 화자로 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다.

결혼생활뿐만 아니라 유진은 여러 방면에서 병적 정신상태를 보여준다. 그의 가방에는 베트남 여자와 성행위를 하고 있는 미군, 죽은 베트남인의 해골을 들고 있는 미군, 호랑이 우리에게 간혀 있는 베트남인들의 사진이 있다. 이런 사진들에 유진은 ‘아이들과 즐겁게 노는 아버지’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하며 잘린 머리를 보며 우스꽝스러운 상상을 하기도 한다. 아들을 엄마에게로부터 격리시켜 모텔에서 함께 지내기도 하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흔들고 눈을 부라린다. 그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당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마지막에 ‘나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본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의 잘못인지 알아낼 수 있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라는 말을 던지며 책이 끝난다.

마지막에 던진 저 말이 작가가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인 것 같았다. 전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사실 따지고 보면 유진 돈이라는 사람도 피해자이다. 물론 직접 참여를 해서 트라우마를 얻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진 않았지만 어떤 프로젝트로 인해 동정심이나 사랑 같은 인간적인 면모를 잃게 되었으니 말이다. 앞부분에서 유진 돈이 스스로 자신이 소극적이라고 말하는걸 보니 적극적으로 대항할 인물은 아니었던 듯싶다. 사실 우리 모두가 국가적 임무를 맡게 되면 이런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적인 유진 돈의 정신 상태를 탓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이 불가피해진 이유는 궁극적으로 무엇에 있을지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인간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 저항할 힘이 별로 없다고 믿는다. 국가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국민 그리고 외국의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따지고 보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도 큰 나라들의 다툼 때문이기 때문이다. 권력층의 이념을 퍼트리기 위해서 유진 돈과 같은 사람이 이용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윽긴이의 말을 읽어보면 작가는 가해자들의 심리를 파헤쳐 그들의 행동의 기반이 되는 ‘폭력의 형이상학’을 해체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한다. 이 말을 이해하고자 형이상학이 무엇인지 검색을 해봤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을 초월하여 근본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폭력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전쟁 즉 폭력 후에 잇따르는 과학적, 경제적 발달을 무시할 수만은 없으며 생존을 위해 주어진 본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물론 문명이 더 발달된 시기에 문제시 되는 것은 개인의 권리가 파괴되고, 전쟁으로 얻은 이익은 있는 자들에게 더 크게 돌아온다는 점이다. 즉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극대화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 하며 복귀를 위한 도움을 주고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란 인간의 본성이지만 이젠 극복해내야 하는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90페이지의 소설을 통해 많은 걸 느끼게 해준 작가에게 대단함을 느꼈다. 먼저 감정표현이 굉장히 세세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느낀 것만 같은 생동감이 있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입하는 옳지 않은 이념, 그리고 전쟁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다. 위에서 말했듯이 전쟁이란 불가피 한 것이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되기엔 너무나도 미개한 방법인 것 같다. 서로의 의견 차이는 줄이기 어려운 것이다. 개개인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고, 이론으로 정립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가 발전해나갈수록 파괴하기 위한 무기들 또한 엄청난 속도로 개발되고 있다. 나날이 새로운 기술이 첨가돼가는 신무기들에 대해 들어보면 정말 나중에 큰 전쟁이 터지면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 인간의 정신적인 모습들이 발전함에 따라 그 기술 또한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다. 물론 분쟁과 경쟁이 다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기도 하지만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폭력으로 이어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해야 진정으로 적응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싶다. 기득권층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 개개인의 행복을 앗아가지 않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 전쟁을 돌아보고 평화를 생각하다

저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20·20 클럽

1학년 이○○

1학년 이○○

1학년 김○○

1학년 최○○

1학년 이○○

2학년 정○○

2학년 김○○

2학년 황○○

2학년 박○○

2학년 배○○

2학년 백○○

2학년 박○○

2학년 조○○

3학년 신○○

3학년 심○○

3학년 안○○

3학년 안○○

3학년 정○○

3학년 김○○

3학년 민○○

3학년 김○○

3학년 유○○

3학년 함○○

3학년 김○○

지은이 명덕외고 20·20클럽

펴낸이 명덕외고 20·20클럽

지도교사 김○○